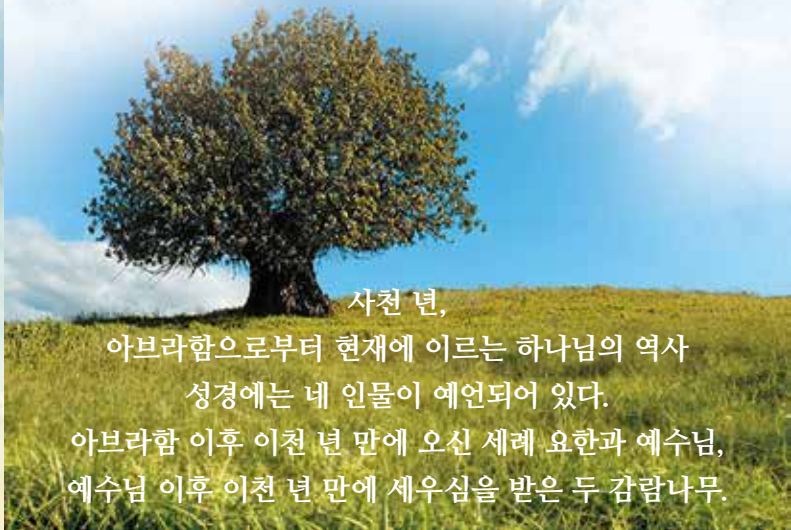


이영수 설교전집

# 에덴의 메아리

13



사천 년,  
아브라함으로부터 현재에 이르는 하나님의 역사  
성경에는 네 인물이 예언되어 있다.  
아브라함 이후 이천 년 만에 오신 세례 요한과 예수님,  
예수님 이후 이천 년 만에 세우심을 받은 두 감람나무.



(재)한국기독교에덴성회선교재단

# 에덴의 메아리

---

발행일 | 2012년 5월 30일 초판인쇄

지은이 | 이영수

펴낸이 | 한국기독교에덴성회

펴낸곳 | 에덴성회

주소 | 경기도 가평군 청평면 에덴벚꽃길 189

홈페이지 | [ieden.kr](http://ieden.kr)

이메일 | [info@ieden.kr](mailto:info@ieden.kr)

※ 문의 한국기독교에덴성회 총무부 031-582-7273

※ 잘못된 책은 구입하신 서점에서 바꾸어 드립니다.

ISBN 978-89-6449-386-1

ISBN 978-89-6449-223-9 (세트)

---

에덴의  
메아리 13



저자 (1999년 당시)



상천에덴유치원. 유스호텔 건너편에 위치하고 있으며, 동화 속의 궁전과 같은 환상적인 모습이다.



에덴 E.S.O.L. 외국어학원. 원어민에 의한 영어 교육을 하고 있으며, 유치원과 함께 운영되고 있다.

# Prologue

## “머리말”

기독교는 인류에게 영적으로는 말할 것도 없고, 육적으로도 막대한 영향을 끼쳐 왔으나, 오늘날 이른바 ‘인간전성기’를 맞아 ‘신은 죽었다’는 목소리가 심심찮게 들려올 정도로 심각한 위기에 놓이게 되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인간의 말을, 내세가 아니라 현세를, 아가페가 아니라 에로스를 존중하는 것이 작금의 일반적인 풍토이다. 과학이 고도로 발달하여 우주 시대를 열었으나, 내일을 예측할 수 없는 불확실성으로 인하여 방향 감각을 상실한 나머지 신학마저 뿌리째 흔들리고 있다.

19세기에 들어와서 자유주의 신학이 대두되면서 성령의 감동을 받아 기록한 성서도 비판의 대상으로 삼아 기독교 자체를 인간의 구미(이성)에 맞게 뜯어고치려는 움직임이 일어났다. 이런 와중

에서 복음주의 기치를 높이 든 펜테코스트(오순절) 운동은 성령의 은사를 강조하는 방언을 그 증거로 삼았다. 그리하여 은혜가 메마른 교계에 새바람을 일으키려고 했으나, 자기도취에 빠져 사단에게 악용될 우려는 백일하에 드러났다. 초대교회 당시와는 달리 전혀 필요 없는 방언을 받아 기뻐하는 이들이 감람나무에게 안찰을 받으며 입에 거품을 물고 까무러치는 광경을 우리는 흔히 목격할 수 있었다. 하늘에서는 참된 성령의 역사가 무엇인가를 이렇게 증거하고 있는 것이다. 온 세상의 주, 즉 하나님을 모시고 있으며,<sup>(속 4:14)</sup> 예수님의 증인인<sup>(계11:3-4)</sup> 이긴자 감람나무가 전하는 복음은 교계에 하나의 경이가 아닐 수 없다. 그에 의해 계시록의 비밀이 드러나 기독교의 진수가 밝혀진 것이다.

이긴자 감람나무는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수 샘물(생수)을 유업으로 받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게 되어 있다.<sup>(계21:7, 22:17)</sup> 이 생수는 주께서 하늘에 올라가 보내기로 약속하신 보혜사 성령의 조화로 되는 것이다.<sup>(요7:39)</sup> 자연수는 아무리 정화되어도 병에 담아 두면 한 해 여름을 견디지 못하고 썩게 마련인데, 이긴자가 축복하여 만들어진 생수는 수십 년이 지나도 변치 않고 한결같다. 그리고 이 생수를 굳어 버린 시체에 바르면 아름답게 피어나는 것은 아는 사람에게는 하나의 상식이 되어 버렸다. 감람나무는 먼 타국에 있는 양떼에게 앉아서 생수를 공급한다. 성령이 그를 통해 공간을 초월하여 역사하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하나의 사례이다.

또한 그는 따르는 양떼들에게 성령을 부어서 죄에 물든 심령을

씻어 맑혀 주고,(슌13:1) 하나님의 새로운 메시지로 양떼들을 진리 가운데로 인도한다.(요16:13) 그리하여 그가 전한 생명의 말씀을 차례로 엮어 여기 열세 권 짜의 설교집을 간행하게 되었다.

그러나 세상은 이 보혜사 성령의 역사를 알지 못하여(요14:17) 무작정 사이비로 몰려고 한다. 그렇다고 하나님께서 정한 뜻이 계셔서 하시는 일을 인간이 무슨 수로 가로막을 수 있겠는가! 하나님의 역사를 인간의 생각(모럴)으로 왈가왈부하는 것은 위험한 일이다. 하나님의 생각은 인간의 생각과 다르기 때문이다.(사55:8)

이제 이 역사는 갖은 시련과 우여곡절 속에서도 꾸준히 성장을 거듭하여 소기의 열매를 맺어 가고 있다. 이에 따라 설교집의 내용도 점점 그 깊이를 더해 간다. 에덴의 메아리는 앞으로도 계속 이 강산에 울려 퍼져 새 복음을 전할 것이다.

교정을 보아주신 김운성 목사님과 정환택, 장승렬 두 분 장로님, 그리고 윤상학 박사님에게 감사하고, 설교 녹음테이프를 녹취해 준 최선아 양에게도 고마움을 전한다.

1999년 11월 최 현



# Prologue

## “설교전집을 발간하며”

1973년 11월 17일의 첫 예배 이후로, 이영수 총회장의 설교를 모은 설교집이 1, 2년에 한 권씩 엮여 나왔다. 그의 설교는 4천 년간 감추어진 하나님의 섭리를 밝히고, 앞으로 어떻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인지 드러내고 있다.

성경은 비밀의 책이다. 성경이 하나님께서 당신을 믿는 자들에게 주신 말씀이라면 비밀은 왜 필요한 것일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대적 마귀 때문이다. 하나님은 선지자들을 통해 당신의 섭리를 알려 주셨다. 그 섭리란 궁극적으로 죄의 근원인 마귀를 멸망시키는 과정이다.(요일3:8) 따라서 당연히 마귀도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성경을 본다. 예수님을 시험하러 온 마귀는 성경을 인용하여 질문을 던졌다.(눅44:10-11) 만약 마귀가 성경을 통해 하나님

의 의도를 알게 된다면 하나님의 일이 원만히 이루어지기 어려울 것이다.

하나님은 마귀가 알지 못하도록 성경에 당신의 섭리를 비밀스럽게 감추어 두셨다. 그런데 마귀도 알지 못하도록 하신 그 비밀을 과연 인간이 연구해서 알 수 있을까? 그럴 수 없다는 것은 이미 예수님 시대의 일화로 알 수 있다. 당시의 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 사두개인 등 성경을 잘 안다고 자부하는 자들조차 메시아를 알아보지 못했던 것이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알아볼 수 없는 내용을 굳이 기록하게 하신 것일까? 당연히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필요에 의해 그렇게 하신 것이다. 그것은 그 비밀을 이루어야 할 당사자가 나타날 때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인 것을 알게 하기 위함이다.

예수님은 성경에 기록한 내용들이 당신을 위한 것이라고 하셨다.(요5:39, 눅24:44) 즉, 성경에 예언된 대로 일을 하심으로써 당신이 성경에 기록된 그 주인공임을 밝히신 것이다. 그래서 자주 “때가 되었다.”, “때가 안 되었다.” 하시며 당신이 하셔야 할 일정이 있음을 말씀하신 것이다.(요2:4, 7:8, 30, 8:20, 13:1) 예수님은 탄생부터 죽음과 부활, 승천까지 성경에 예언된 대로 움직이다 가셨다. 그래서 십자가 위에서 “다 이루었다.”고 하신 것이다.(요19:30)

그럼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으니 모든 일이 다 끝난 것일까? 그렇지 않다. 예수님 이후에 해야 할 하나님의 일이 남아 있는 것이다. 예수님은 승천하신 후, 십자가를 지신 대가로 하나님의 우

편 보좌에 앉는 권세를 받으셨다.(행7:55, 시110:1) 또한 예수님은 하나님의 오른손에 있던 일곱 인으로 봉한 책을 받으셨다.(계5:1, 7) 그 책은 누구도 볼 수 없었던 비밀의 책으로, 거기에는 하나님의 계획이 담겨 있었다.(계5:3)

그렇다면 하나님은 그 책을 예수님에게 왜 주셨을까? 그것은 하나님의 계획을 알려 주시기 위함이다. 즉, 그 계획을 이루라는 사명을 주신 것이다. 예수님은 그 내용을 보시고 당신이 이 땅에 계실 때 하신 말씀을 수정해야 할 필요를 느끼셨다. 예수님은 육으로 계실 때, 사도들이 있던 당대에 재림하실 것으로 알고 계셨다.(마24:34) 그러나 하나님의 책에는 마지막 때가 이루어지는 과정이 담겨 있었고, 예수님은 당신이 생각하셨던 것보다 훨씬 복잡한 과정을 거쳐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되셨다. 그래서 그 사실을 알리기 위해 사도 요한을 불러 계시를 주신 것이다.(계1:1)

성경에는 예언된 인물이 네 분 있다. 세례 요한과 예수님, 그리고 두 감람나무가 그들이다. 앞의 두 분은 아브라함으로부터 2천 년 만에 그리고 나머지 두 존재는 4천 년 만에 등장하였다. 계시록은 감람나무를 위한 책이다. 그가 예수님의 뒤를 이어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서 마무리 지어야 할 존재이기 때문이다. 감람나무를 예언한 인물이 사도 요한이라는 점에서 감람나무는 사도들보다 중요한 존재임을 알 수 있다.

예수님은 이 땅에 계셨을 때 감람나무에 대해 알지 못하셨다. 두 감람나무는 이미 주전 520년에 하나님께서 스가랴를 통해 예

언하신 존재로, (속4:14) 예수님은 하나님의 책을 보시고 나서 그들이 당신의 보혈로 역사할 존재인 것을 알게 되셨으며, 그들을 당신의 증인으로 세우겠다고 약속하셨다. (계11:3-4) 그리고 이기는 자가 나오면 감람나무에게 해당하는 언약들을 그에게 주겠다고 약속하셨다. (속3, 4장, 계2:7, 11, 17, 26-28, 3:5, 12, 21)

하나님께서서는 이긴자에게 생명수 샘물을 유업으로 주시고 아들로 삼겠다고 약속하셨다. (계21:6-7) 그것은 이긴자가 받아서 역사할 생명수 샘물이 당신의 아들의 피로 이룬 것이기 때문이다. 즉 이긴자는 하나님의 아들의 대행자이므로 아들로 대우하시는 것이다. 예수님은 생전에 당신을 믿는 자의 배에서 생수가 강같이 흐른다고 하셨는데, 이것이 이긴자가 유업으로 받은 생명수 샘물인 것이다. (요7:38)

생명수 샘물이란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이루어진, 죄를 씻는 생수다. (속13:1, 12:10) 그렇다면 이긴자는 이 생수로 무엇을 하는가? 사람들의 죄를 씻는 일을 한다. 죄를 가지고는 하나님께로 가지 못한다. (롬3:23) 구약시대 하나님의 선지자들조차도 죄를 해결하지 못했기에 음부에 가 있어야 했다. 생명수 샘물이 마련되면서, 주께서 그들을 음부에서 끌어내어 하나님께 드릴 수 있게 된 것이다. (계5:9, 마27:52-53) 그들은 하늘에 있는 제단 아래 있으며, 예수님을 만나서 언제 자신들이 억울하게 순교당한 원수를 갚게 되느냐고 여쭙었다. (계6:9-10) 그러자 예수께서 대답하시길, “너희와 같은 자들의 정해진 수가 차기를 기다려라.” 라고 하셨다. (계6:11)

그렇다면 그 수란 몇인가? 이 수는 바로 14만 4천이다.(계14:1) 14만 4천에는 구약시대 인물들과 신약시대 인물들이 포함되어 있다. 그래서 어떤 이의 이마에는 하나님의 이름이, 또 어떤 이에게는 어린 양의 이름이 있는 것이다. 각자 배출된 시대에 따라 그 시대를 주관하신 분의 이름을 받은 것이다. 이들이 바로 하늘 군병이다.(계19:14) 이들은 마귀를 멸망시키는 전쟁에 참여하게 된다. 그 수는 아직 차지 않았다. 그 수가 찼다면 이미 세상은 종말을 맞이했을 것이다. 그럼 이 수가 언제 차는가? 바로 감람나무가 나타날 때이다. 감람나무가 해야 할 일이 바로 그 수를 마무리 짓는 것이다.

이긴자 감람나무는 생명수 샘물을 유업으로 받아 그 수를 채우는 사명을 받았다. 그는 하늘 군병을 배출시켜 그 이마에 하나님의 인을 친다.(계7:2-3) 그리고 낮으로 이들을 추수하여 하늘 공간에 들인다.(계14:16)

마귀를 멸망시키고 난 후에는 하늘 군병들이 심판하는 권세를 받게 된다.(계20:4) 이들은 마귀가 다스리던 음부에 갇힌 모든 자들을 끌어내어 심판을 한다.(계20:13) 심판의 결과, 천국에 들어갈 자들과 지옥으로 보내어질 자들이 구분된다.(마25:32) 그리고 하늘 군병들은 세세토록 천국을 다스리는 왕이 된다.(계21:3-5) 즉, 천국은 14만 4천 개의 국가로 이루어지는 것이다.

이영수 총회장은 세상적으로는 배운 것이 없다. 그러나 그는 하

나님과 예수님께 직접 가르침을 받았다. 성경에 가려진 부분들에 대해서도 가르침을 받았다. 영화를 본 사람이 그 내용을 쉽게 설명할 수 있듯이, 그는 하나님의 섭리를 이해하기 쉽게 설명한다.

하나님께서서는 이상 중에 가르침을 주시면서, 때가 되기 전에는 입을 봉하라고 하셨다. 그것은 전해 봤자 듣는 사람들이 믿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의 뜻을 밝힐 때가 되었다.

하나님께서 마귀를 멸하기 위한 군대를 완성하시면 이 세상은 더 이상 존재해야 할 이유가 없어진다. 죄로 말미암아 저주받은 세상이기 때문이다. 조만간에 하나님께서는 재앙으로 이 세상을 멸하실 것이다. 따라서 지금 보는 하늘과 땅은 사라지게 된다.(계 21:1) 모든 뜻이 이루어지면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세상을 창조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예언하신 지 26세기 만에, 그리고 예수님이 예언하신 지 20세기 만에 감람나무가 등장하였기에, 기독교인들이 납득하기에는 어려운 점이 많을 것이다. 이것은 예수님에 관한 예언들이 예수님이 등장하시기 몇백 년, 또는 천 몇백 년 전에 있었기에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못했던 것과 같다. 그러나 이것이 진정 하나님의 섭리라면 누구라도 그 결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을 것이다.

노아의 가족이 방주를 지었을 때, 그 나머지 사람들 중 누가 그것이 자신들의 멸망을 가져올 줄 알았겠는가? 노아가 사명을 마쳤을 때 하나님께서는 홍수로 죄악에 빠진 인류를 멸하셨던 것이

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후 인류가 어떻게 될 것인지, 이영수 총회장은 이미 하나님의 가르침을 전하고 있다. 아무쪼록 흘려듣지 말고, 베뢰아 사람들처럼, (행17:11) 이영수 총회장의 말과 성경을 비교 검토하여 하나님의 깊은 뜻을 깨닫고 구원의 방주로 나아오길 기대한다.

설교전집을 준비하면서 이미 발간된 설교집 내용을 재검토하여 개정된 국문법을 적용하고, 뜻을 명확히 하기 위해 일부 첨삭을 하였다. 또 첫 설교집이 나온 지 40년 가까이 되므로, 그동안 성도들의 신앙이 성장함에 따라 말씀도 발전된 부분이 있다. 그런 부분은 일관성 있게 만들기 위해 노력하였다. 이 과정에서 신창기 성회장님의 도움이 컸다. 혹시라도 미흡한 점이나 잘못된 점이 있다면 모든 책임은 편저자에게 있음을 밝히며, 독자의 질책을 바란다.

2011년 교육학박사 윤상학

차례



머리말 ... 06  
*Prologue* 설교전집을 발간하며 ... 09

*Part 01.*

은혜의 광장에서

- 01 새해를 맞으면서 20
- 02 빛과 어둠의 전쟁은 지금도 치열하다 31
- 03 은혜의 다림줄을 잡으라 39
- 04 알파와 오메가의 원리 50
- 05 둘째 아담과 이긴자 55
- 06 영적 이스라엘에 대하여 65



## Part 02.

### 생명을 짓줄을 찾아

- 07 오늘의 신앙(1) 74
- 08 오늘의 신앙(2) 83
- 09 성령의 인침에 대하여 97
- 10 지옥은 어디 있는가? 108
- 11 군대마귀와 무저갱 119
- 12 최후의 심판에 대하여 130
- 13 우리가 가는 길 140

## Part 03.

### 빛 가운데 걸어가면

- 14 다른 보혜사 성령의 기능과 역할 152
- 15 마지막 날에 대하여(1) 161
- 16 마지막 날에 대하여(2) 172
- 17 유대인의 교훈 179
- 18 하나님의 전략과 이긴자 186
- 19 하나님의 자비에 대하여 201



*Part 04.*

이기는 그날까지

- 20 싸우며 가는 이 길 212
- 21 이긴자 감람나무의 위상 224
- 22 하나님의 비밀과 멜기세덱의 대제사장 231
- 23 주의 살과 피는 어떻게 먹고 마시는가?(1) 240
- 24 주의 살과 피는 어떻게 먹고 마시는가?(2) 255
- 25 주의 살과 피는 어떻게 먹고 마시는가?(3) 273

*Part 01.*

# 은혜의 광장에서



1. 새해를 맞으면서 · 2. 빛과 어둠의 전쟁은 지금도 치열하다 · 3. 은혜의 다림줄을 잡아라 · 4. 알파와 오메가의 원리 · 5. 둘째 아담과 이긴자 · 6. 영적 이스라엘에 대하여

## Chapter 01.

# 새해를 맞으면서



### 1) 이웃을 사랑하라

인간은 사회적인 동물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을 혼자서는 살 수 없습니다. 이웃과 더불어 유무상통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을 대할 때 미움도 싹틀 수 있는 것이 세상살이입니다. 그러나 이웃에 대한 미움을 주의 사랑으로 따뜻하게 대할 수 있는 마음의 자세가 확립되어야만 ‘성도의 옳은 행실’인 세마포를 입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네 이웃을 사랑하기를 네 몸과 같이하라.”(마22:39)는 것이 주의 율법이기에 때문입니다.

그런데 인간에게 가장 어려운 게 뭐냐 하면 자기 주위에 있는 사람을 내 몸같이 아끼고 사랑하는 겁니다. 이게 참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자기와 가까울수록 상대방의 흠이 잘 드러나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미워하기도 하고 갈등도 갖게 됩니다. 이런 상황 속

에서 상대방에게 사랑을 베풀 수 있을 때 비로소 온전히 거듭나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기독교의 ‘대강령’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역사에 충성하는 것도 좋지만, 무엇보다도 가까운 이웃끼리 사랑하는 성도가 되셔야 합니다. 이것이 그 나라에 가는 지름길입니다.

영의 세계는 아무나 가는 곳이 아닙니다. 실제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부르심을 받고, 빼내심을 입고, 진실해야 이긴다고 했습니다.(계17:14) 이 이기는 비결이 뭐냐? 사랑하는 겁니다. 미움이 마음속에 싹트면 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 계시록에도 “칼로 죽이는 자는 칼에 죽으리라.”(계13:10)고 했습니다. 정면으로 대항하여 미워하면 집니다. 무조건 사랑해야 합니다. 이것이 마귀를 이기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오른뺨을 치면 왼뺨을 내놓고, 왼뺨을 치면 오른뺨을 내놓아라. 겉옷을 달라고 하면 속옷도 주라.”(마5:39)는 겁니다. 무슨 뜻이냐 하면 양보하라 이겁니다.

우리의 일상생활에서는 다툼과 미움이 생기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것을 이기려면 주님의 말씀을 마음속에 깊이 간직해야 합니다. 그 말씀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미움을 이기는 신앙을 기를 때 성공을 거두게 됩니다. 그리하여 자기 이웃에 대한 미움을 이겨 버릇하면 모든 걸 이길 수 있습니다.

자신을 이겨야 세상을 이기는 겁니다. 자신과의 싸움, 이것은 바로 신앙인들의 가장 소중한 과제입니다. 미움, 시기, 질투, 불평—이게 다 어디서 오느냐? 가까운 이웃에게서 옵니다. 먼데 있는 사람과는 이런 관계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주님의 말씀이 이기는 지름길이 되는 겁니다.

주님이 직접 멜기세덱의 제사장의 직분을 갖고 2천 년 동안 의로운 자, 곧 순교자를 배출시켰는데도 그 수는 불과 얼마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감람나무를 세우신 겁니다.

이제 우리 역사도 성장하여 본격적으로 이루는 단계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저를 따르는 사람이 죽으면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죽음은 곧 영의 세계의 시작입니다. 그러니까 주의 종은 살아 있을 때도 여러분을 이끌어 가지만, 또 죽어서도 여러분에게 영향력을 행사합니다.

주님이 몇 안 되는 제자들과 대화를 나누셨어도 그 말씀은 전 인류에게 해당하는 겁니다. 듣는 사람은 열두 명의 제자들이지만, 말씀 자체는 전 인류에게 해당하는 것입니다. 이긴자의 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긴자는 다른 보혜사 성령이 조종하기 때문에 그 말을 듣는 사람이 열 명이 됐든, 백 명이 됐든, 그 수와는 무관합니다. 일반교회 목사님들은 전하는 말을 듣는 사람들의 수에 따라 비중이 달라지지만, 이긴자는 많은 사람이 그 말을 듣는다고 해서 비중이 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듣는 사람이 몇 명이 됐든, 그 말 자체에 생명력이 있기 때문에 귀한 겁니다. 금년부터는 여러분이 고도로 성장하는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그래야 여러분이 눈을 감으실 때 알곡으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겁니다.

## 2) 이기는 생활

우리는 섭리라는 말을 많이 사용합니다. 섭리란 뭐냐? 그 시대에 전개되는 하나님의 뜻을 말합니다. 시대마다 하나님께서 종들을 세워서 하시고자 하는 뜻을 이루려는 계획이 바로 섭리입니다.

감람나무 역사는 언뜻 들으면 간단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나 알고 보면 대단히 중요한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저도 주님의 지시를 받고 움직이는 초창기에는 잘 몰랐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를 25년 해 오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의도를 어느 정도는 알게 되었습니다. 그럼 여호와의 뜻이 실제로 쉽사리 이루어지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 그 뜻을 가로막는 어둠의 세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어둠의 세력을 어떻게 이겨 나가느냐, 이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마10:16) 마귀는 가로막고 파괴하기 위해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갖은 지혜를 다 동원합니다. 태초에 아담, 하와를 넘어뜨릴 때에도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뱀같이 지혜로우란 말씀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수단 방법을 가리지 말라는 뜻도 되는 겁니다. 비둘기같이 순하기만 하지 말고, 뱀같이 지혜롭게 행동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은 “내가 너희에게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아들이 그 아버지와, 딸이 그 어미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라.”(마10:35)고 말씀하셨습니다. 가장 가까운 식구들 사이에 다

틈이 생긴다는 겁니다. 집안 식구끼리 등을 돌릴 정도라면 친구나 동료들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어렵습니까? 이때 너희들은 뱀같이 지혜를 발휘하라, 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눈에 보이지 않는 전쟁입니다.

그 전쟁에서 소중한 게 뭐냐? 이기는 생활입니다. 그럼 무엇이 이기는 생활이냐? 미운 상대방에게 사랑을 베푸는 것이 이기는 생활입니다. 미운 상대를 미워하면 지는 겁니다. 마귀를 이기는 방법을 알아야 합니다.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육적으로 역사하여 마구 쳐 죽였습니다. 이걸 이기는 것이 못됩니다. 모세는 므리바 물가에서 결정적인 실수를 했습니다. 하나님이 반석에게 명하여 물을 내라고 지시 하셨는데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물을 내겠다.”고 자기를 앞세워 반석을 두 번 쳐서 물을 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네가 므리바 물가에서 나에게 영광을 돌리지 않았기 때문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통고했습니다.(민27:14) 모세는 “제가 그 땅에 들어가 묻히게 해 주십시오.”(신3:25) 하고 하나님께 간구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안 된다.”(신3:26)고 잘라 말씀하셨습니다.

모세는 처음 부르심을 받았을 때, 하나님이 애굽의 바로(왕)에게 가라니까 “내가 누구인데 바로에게 갑니까?”(출3:11) 하고 거절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권능을 보여주셨는데도 “나는 말을 못합니다.”(출4:10) 하고 다시 거절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입을 누가 지었느냐? 내가 아니냐? 순종해.”(출4:11) 그래도 순종하지 않고 끝내 못



하겠다고 하니까, 결국 형 아론을 대변자로 보내게 되었습니다.(출 4:14) 그래서 모세는 능력을 베풀고 아론은 애굽의 바로를 설득하였습니다.

나라의 최고 지도자는 하나라야지, 둘이 북적대면 나라꼴이 안 됩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 시내산에 올라가 40일 동안 자리를 비우게 되자, 이스라엘 백성은 아론을 꺾어서 결국은 금송아지를 만들어 절하는 소동을 부렸던 겁니다. 그 결과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눈 밖에 나고 말았습니다.

어려움을 겪을 때마다 양떼들은 원망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당장 고생스러우니까. 가나안 땅에 누가 가 보기를 했습니까? 젖과 꿀이 흐르는 좋은 곳이라니까 따라나섰는데, 고달픈 유목민 생활을 하게 되니 좋아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니 자연히 원망, 불평을 하게 됩니다. 그중에도 참기 어려운 것이 갈증입니다. 마실 물이 없었던 겁니다. “우리가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께서 능력을 행하여 우리에게 축복해 주시지 않았느냐? 하나님께 기도하자.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은혜를 베풀어주실 것이다.” 하고 설득하여 백성들의 원망, 불평을 잠재워야 하는데, 모세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백성들이 무슨 행패를 부릴지 알 수 없어 두려웠던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취할 태도가 아닙니다. 모세는 영적인 문제를 깊이 알지 못해 하나님께 섭섭함을 드렸습니다.

### 3) 특공대의 배출

오늘날 제가 여러분을 이끌어 가면서 엄청난 어려움을 겪어도 견디는 것은 신의 섭리를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긴자의 권한은 엄청난 겁니다. 그런데 그 권한을 사단이 방해하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미약하게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보기에는 미약한 것 같아도 사실은 엄청난 겁니다. 주님은 한 번 은혜를 받은 사람이 떨어져 어둠의 세력에 속할 때에는 칠 배나 악한 세력이 들어간다고 말씀하셨습니다.(마13:45) 인류 역사상 전도관은 생수의 성령을 받은 최초의 종교 단체입니다. 그 단체가 어둠의 세력에 먹힌 바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시작할 때의 하나님의 여건보다 수보할 때의 하나님의 여건은 엄청 불리해집니다. 일곱 배나 불리한 것입니다. 그렇게 불리한 여건 속에서 제2의 감람나무 역사를 오늘날까지 해 오고 있는 겁니다.

오늘날 여러분은 주의 종을 따라서 하나님을 섬기고 계십니다.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이긴자의 손길에 의해 자라고 있는 겁니다. 그런 과정에서 주의 종은 고통도 겪습니다. 그것이 무서워서 편안하게 이끌어 가려고 하면 알곡이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오늘날 이긴자를 통해서 여러분의 속사람이 하나하나 익어 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특공대가 배출되고 있는 겁니다.

2천 년 동안 주님이 이 일을 담당해 오셨습니다. 열심히 믿는 사람에게 순교를 당하게 하여 하나하나 특공대를 배출시켰는데, 그게 쉽지 않았습니다. 한 증거의 불과 같은 성령을 가지고는 무척

어려운 겁니다. 자유 진영의 국가에서는 순교할 기회도 좀처럼 없습니다. 신앙의 자유가 허용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죽음을 보지 않고 세마포를 입게 하는 역사가 그렇게 간단한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의 군병은 하나님이 쓰시는 무기입니다. 전쟁에 이기려면 극비의 무기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무기를 만들어 달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마귀와 직접 전쟁을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대신하여 주님이 전쟁을 하게 됩니다.(계19:11-14) 그러나 주님이 이 땅에 계실 때에는 하늘나라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다는 알지 못했습니다. 전에도 말했지만, 일곱 인으로 봉한 책을 떼시고 하나님이 예정한 뜻을 속속들이 아신 겁니다.(계5:5참조) 우리가 하나님의 특공대를 배출하는 역사를 만났으니 얼마나 다행이고, 한편 그 사명이 얼마나 중차대한 겁니까!

오늘날 이긴자는 주님으로부터 전무후무한 영적인 권한을 맡아 가지고 움직이는 겁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느냐? 이긴자가 똑똑하거나 착해서 그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 필요한 군병을 배출시키려고 이긴자에게 권세를 맡겨 주신 겁니다. 그 권세가 없이는 하나님이 필요로 하시는 군병을 배출시키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그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하늘 군병을 배출시키는 원동력은 십자가의 보혈입니다. 이걸 마귀가 몰랐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관원들이 알았더라면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고전2:8) 마귀가 속  
았던 겁니다. 사도 바울은 영적으로 상당히 깊이 들어간 사람입니  
다. 십자가의 보혈은 하나님께 엄청난 힘이 된 겁니다. 십자가의 역  
사로 말미암아 마귀가 큰 타격을 받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장차 하시고자 하는 뜻은 엄청난 겁니다. 하나님이  
태초부터, 그러니까 인간을 짓기 전부터 괴롭혀 온 적을 상대하여  
싸우기 위해 인간을 필요로 하시는 겁니다. 이걸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일반교회에서는 이걸 모릅니다. 그냥 예수를 믿으면 구원  
을 받는다는 거지, 하나님께 어떤 아쉬움이 있다는 것을 모르고  
있습니다. 알 길이 없습니다. 당사자가 아니니까. 그러나 우리는 오  
늘날 그 아쉬움을 덜어 드려야 하는 역사에 동참했으므로 지상의  
실무자에게 그 내막을 설명해 주시는 겁니다.

사람이 죽을 때 시체가 썩는 것은 마귀의 역사입니다. 그걸 썩  
지 않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빛과 어둠이 서  
로 싸우게 되는 겁니다. 이때 마귀의 역사를 생수로 썩지 않게 차  
단시킵니다. 이건 뭐냐? 빛과 어둠의 싸움을 말하는 겁니다. 생수  
가 그래서 귀한 겁니다. 다른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생수를 써 본 사람은 압니다.

사람이 죽어서도 필요한 것이 생수입니다. 죽어 버린 시신에게  
세상의 의약품이 무슨 도움이 됩니까? 굳은 시체를 어떻게 부드러  
게 만들 겁니까? 명든 자국을 어떻게 지울 겁니까? 그러나 생수는  
다릅니다. 사람이 죽었을 때 더 소중한 겁니다.

우리는 생수의 가치를 잘 알아야 합니다. 저를 알아 달라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제가 하나님의 역사를 하고 싶어서 합니까? 주께서 시켜서 오늘날까지 해 나가는 겁니다. 아무도 이것을 가로막지 못합니다.(계11:5 참조) 나를 감옥에 가둬도 가로막을 수 없습니다. 제가 지정한 시간에 여러분이 가정에서 물을 떠 놓으면 저의 기도로 생수가 되었습니다. 여러분이 눈으로 보지 않았습니까? 제가 안찰을 하면 그 사람에게 필요한 생수가 그 순간 하늘에서 옵니다. 그리하여 저를 통해 그 생수가 나가는 겁니다. 제 것이 나갑니까? 바로 주의 것이 여러분에게 나가는 겁니다. “너를 대하는 자가 나를 대하는 것이다.” 하고 주님이 저에게 말씀하신 이유가 그겁니다. 저를 통해서 주의 것이 나가기 때문입니다. 이걸 사이비적인 말이 아닙니다.

어쩌다가 내가 이런 직분을 맡았는지 나는 모릅니다. 마음에 크게 부담스러울 뿐입니다. 훌륭한 목회자들이 많은데, 그분들을 통해서도 하늘 군병이 배출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동서고금에 생수 축복을 하는 곳은 앞선 역사와 우리 역사밖에 없습니다. 앞선 역사를 제가 이어받아 여러분을 이끌어 가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감람나무 역사가 붕괴된 게 아니고, 다시 일어나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 여호와께서 얼마 안 되는 우리를 통해 하나에서 열까지 이래라저래라 하고 간섭하시는 것을 볼 때, 저는 하나님께서 옛날이나 지금이나 명예를 매우 소중히 여기신다는 것을 실감하게 됩니다. 이 시대가 악하여 어디서 병 고쳤다 하

면 신기하다고 떠들썩합니다. 저는 병을 고쳐도 일체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 역사에서 제일 소중한 게 뭐냐? 한 생명 한 생명이 이루어져서 세마포를 입는 겁니다. 그게 핵심입니다.

이제 기원 후 2천 년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어렵더라도 금년 한 해에 힘을 모아 제2부속 건물을 완성시키면 하나님께도 그만큼 영광이 돌아가겠지만, 세상 사람들도 관심을 더 갖게 됩니다.

스가랴서에 ‘주발’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내가 보니 순금등대가 있는데 그 꼭대기에 주발 같은 것이 있고.”(슌4:2) 이곳 알곡성전을 에워싼 산이 주발봉입니다. 우연의 일치인지는 모르겠으나, 성경에 감람나무 역사를 말씀하실 때 감람나무로부터 나온 금기름이 주발에 담기고 순금등대의 등잔으로 흘러들어가는 장면을 보여주셨는데, 우리 역사가 바로 주발봉 아래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여호와 예정하신 역사라는 것을 깊이 새기시고, 정성을 다해 하나님께 인정받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 Chapter 02.

# 빛과 어둠의 전쟁은 지금도 치열하다



태초에 인간을 지으실 때부터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훼방하는 세력이 있었다는 것을 성서는 조금 표시하고 있지만, 내용적으로 들어가 보면 거기에는 빛과 어둠이 서로 주도권을 잡으려는 싸움이 치열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권위를 위주로 해서 썼기 때문에 하나님을 훼방하는 세력에 대한 깊은 내용을 표시하지 않았다 뿐이지, 가로막는 세력이 대단하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런 내용을 모르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만사형통한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성경 자체가 하나님을 잘 믿고 따르게 하는 내용들로 일관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신과 신의 전쟁에 대해 어느 정도 알고 있는 우리들은 하나님의 역사가 그렇게 단순하지마는 않다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을 섬기고 있습

니다.

빛과 어둠의 싸움을 밝힌 것은 기독교 역사상 주의 종의 종이 처음입니다. 신들의 전쟁을 감히 누가 알아서 논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을 인간이 논한다는 것부터가 어불성설일 수밖에 없는 불가사의한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택한 백성, 즉 이스라엘 민족을 보더라도 이들과 이방인들 사이에 얼마나 전쟁이 치열했습니까? 이들 사이에 죽고 사는 전쟁이 끊임없이 이어져 왔습니다.

다니엘이 선지자로 등장하여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어 갈 때 하나님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시고 천사를 보내어 다니엘을 도와주시려고 했는데, 악령이 그 천사를 가로막았습니다.(단10:13) 그리고 스가랴 선지자 시대에 대제사장 여호수아를 사단이 더럽혔습니다.(슥3:4) 앞선 역사에서 교역자와 교인들이 시체를 놓고 찬송을 열심히 불러서 송장이 아름답게 변했는데, 믿지 않는 사람이 와서 울거나 만지면 시체가 다시 시커멓게 변하는 것을 우리는 많이 보았습니다. 이것은 뭘 말하는 겁니까? 뺏고 뺏기는 싸움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뺏고 뺏기는 싸움은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아도 끊임없이 이어집니다. 악령과 성령은 이렇게 치열한 전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놀라운 사실을 일반교회에서는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그들은 전지전능한 하나님이 무조건 뜻대로 하시는 줄 압니다. 그래서 믿기만 하면 된다고 합니다. 그러나 인류의 시작부터가 그렇지 않다는 것을 주의 종은 오늘날 단계적으로 여러분에게 가르치



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2천 년 전에 그리스도가 이 땅에 직접 오셨습니다. 잠시 천사보다 못한 존재로 이 땅에 오셔서(히2:9) 십자가를 지신 겁니다. 그때에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빛이 어두운 세상에 왔으되, 어두움이 깨닫지 못한다.”(요1:5)고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심지어 열두 제자들 중에서 똑똑하고 믿음직스러웠던 가롯 유다가 주님을 팔아넘기기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면 주님을 팔아넘긴 자는 가롯 유다가 아닙니다. 공중 권세를 잡은 마귀가 가롯 유다 속에 들어가 일을 꾸몄던 겁니다.(요13:27, 마27:3 참조)

여기서도 우리는 빛과 어둠의 치열한 전쟁을 단적으로 보게 되는 겁니다. 이걸 우리는 ‘그런가 보다’ 하고 넘겨 버리는데, 사실은 간단한 게 아닙니다. 언제 어느 때 누가 어떻게 악령에게 조종을 받을지 모르는 겁니다. 마귀는 결코 만만한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이스라엘 백성을 눈엣가시처럼 여기는 바알 신을 가장 증오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바알 신을 멸망시키기 위해 전략을 세우셨습니다. 그리하여 이스라엘 민족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여 바알 신을 섬기는 민족을 쳐부수게 됩니다. 그러나 이 전략이 차질을 빚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민족만큼은 짐승까지 한 마리도 살리지 말고 다 죽이라고 당부하셨지만, 제대로 시행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여 이스라엘 백성을 기르시고 모세를 지도자로 삼으신 것은 마귀를 까부수려는 하나님의 깊은 전략

에서 비롯된 겁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저 하나님을 믿어 잘 살기만을 바라고, 여의치 않으면 원망, 불평을 터뜨렸던 겁니다.

전쟁터에서 적군들이 호시탐탐 노리다가 언제 쳐들어올지 모르는데, 전방을 지키는 군인들이 애국심도 없이 만날 투덜대기만 한다면 그 전쟁은 100% 지는 겁니다. ‘목숨이 사라지더라도 내가 적군을 무찔러야 나라가 바로 서고, 후방에 있는 내 부모, 내 자식들이 살아남는다.’는 정신으로 싸워도 이길까 말까 한데, 자기 안위만 앞세운다면 그 전쟁은 싸우나 마나 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의 뜻을 헤아릴 줄 몰랐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제대로 알았던들 그들은 어떤 고난 속에서도 ‘이것이 우리 조상들이 섬겼던 하나님의 뜻이다. 그 뜻을 이루는 것이 우리가 사는 길이다.’ 하고 합심 단결하여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원주민을 쓸어버리고 신당을 허물고 그곳에 하나님을 섬기는 제단을 지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을 겁니다. 그렇게 했다면 세계 역사는 바뀌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못하여 오늘날까지 가나안 땅에는 분쟁이 그치지 않습니다.

다니엘은 거룩한 곳에 미운 물건이 선다는 말을 했습니다.(단 11:31) 거룩한 에덴동산을 아담, 하와가 더럽혔습니다. 솔로몬 성전이 우상을 섬기는 제단으로 바뀌었습니다.(겔8:3) 하나님을 섬기던 단상이 다른 신을 섬기는 단상으로 변한다면 거룩한 곳에 미운 물건이 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지금도 이런 처지에 놓여 있

습니다.

여러분, 입장을 한 번 바꿔 놓고 생각해 보십시오. 가나안 땅에서 원주민의 섬김을 받던 바알 신이 볼 때에는, 자기가 제사 받던 자리에 여호와와 백성들이 쳐들어와 자기 백성을 다 죽이고 여호와를 섬기는 제물을 놓고 예배를 드린다면 거룩한 곳에 가증한 물건이 선다고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던 거룩한 제단에 로마 군대가 쳐들어와서 다른 신에게 제물을 드린다면 가증한 물건이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한 겁니다. 그걸 오늘날 우리 눈으로 보고 있습니다. 모세 율법을 숭상하고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지 않는 유대교인들,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기독교인들, 마호메트를 따라 알라신을 섬기는 이슬람교도가 서로 예루살렘을 자기 성지라고 주장합니다.

마호메트는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라의 여종 하갈 사이에 태어난 이스마엘의 후손입니다. 그 교도들은 자기들이 예루살렘의 주인이라고 우기는 사람들입니다. 그리하여 예루살렘의 중심부에 이슬람 교회가 떡 들어앉아 있습니다. 기독교는 지금 한 발짝 밀려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 때부터 바알의 신당을 헐고 쥐새끼 한 마리 남기지 말고 싹쓸이하여 하나님을 섬기는 거룩한 곳으로 만들라고 하셨는데, 현재도 다른 신을 섬기는 무리가 공존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신과 신의 전쟁은 끊임없이 계속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서울제단이 용두동에 들어섰습니다. 왕이 농사가 잘되게 해 달라고 제사를 드리던 동산에 우리 제단이 들어앉은 겁니다. 용대가리를 깔고 앉은 것입니다. 교회를 지을 수 있는 부지가 많은데, 하필이면 그런 장소에 제단을 세우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신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이곳은 처음부터 교회가 들어설 수 없는 장소였습니다. 그런데 이곳을 하나님께서 이상 중에 보여주시고 당신에게 영광을 돌리는 제단을 짓게 하신 겁니다. 교회를 지을 수 없는데 하나님께서 짓게끔 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담당 공무원의 눈을 가리신 겁니다.

알곡성전 자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종교 단체가 눈독을 들였지만 안 되었고, 우리 차지가 된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겁니다. 입구가 하나로 되어 타인이 거하지 못하게 산으로 에워싸고, 대한민국에서 가장 좋은 물이 솟아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수 공장이 이곳에 있었던 겁니다.

우리 역사는 하나도 거저 되는 게 없습니다. 모두가 보이지 않는 전쟁의 연속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건축된다는 것 자체가 마귀에게 크게 불리한 일입니다. 그러니 가만둘 리가 없습니다. 어떻게 해서라도 괴롭히는 겁니다. 수많은 시련과 어려움 속에서 우리 역사가 오늘날 이만큼이라도 이루어진 것은 결코 우연한 일이 아닙니다. 위에서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밑으로는 여러분이 합심 협력하여 주의 종을 따라 주셨기 때문입니다.

일반교회에서는 박 장로가 사라지면 감람나무 역사가 망한 줄 알았을 겁니다. 그토록 짓밟혔던 이영수라는 자가 감람나무의 명맥을 이어 나갈 줄은 상상도 못했을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깜짝 놀라는 겁니다. “누가 하는 거냐?”, “옛날에 이려고저려고 신문에 떠들썩했던 아무개가 한대.”, “그 사람 사라진 거 아냐?” 이렇게 얘기가 오고 가는 겁니다. ‘아, 이게 보통 역사가 아니구나. 뭔가 있긴 있다. 그렇지 않고는 이렇게 할 수가 없다.’ 이렇게들 생각하게 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가는 겁니다. 옛날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을 때 이방인에게 개방했습니다. “화목제를 지내고 이방인들도 와서 구경하도록 하여라.” 해서, 소 2만 2천 마리에 양 12만 마리를 잡고 14일 동안 성대한 헌당식을 올렸습니다.(왕상8:63) 그래서 이방인들이 와서 성전을 보고 탄복했습니다. 하나님은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찬양하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어느 시인은 “이 성전에 와서 문지기라도 했으면 좋겠다.”(시84:10)고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우리 역사를 비방하던 사람들도 이곳에 와서 한 바퀴 돌아보고 “참 좋다. 여기 와서 살고 싶다.”고 말합니다. 이것을 하나님은 좋아하시는 겁니다. 반대로 “뭐가 이렇게 지저분해.” 이런 말이 나온다면 누구보다도 여호와께서 싫어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이곳을 아름답게 꾸미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이 핍박과 조롱을 받으면서도 오늘날 주의 종을 따라오면서 이렇게 이루어 놓았습니다. 가진 것 없는 사

람들이 모여서 뜻과 마음을 묶어, 보이지 않는 영의 싸움을 하면서 이뤄 놓은 역사입니다. 여러분의 땀이 배지 않은 곳이 어디 있습니까? 이게 모두 여러분의 것입니다. 주의 종 자신부터가 하나님의 역사가 발전하는 것을 교인된 심정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우리는 감람나무 역사로 인해 실망하셨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주님에게 기쁨을 드려야 합니다. 이것을 마귀가 가만히 보고만 있을 리가 없습니다. 앞선 역사를 꺾어 감람나무를 박살낸 줄 알고 의기양양했던 마귀가 예기치 않던 일이 벌어지니 심기가 편할 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갖은 방법으로 괴롭힙니다. 이것을 깊이 명심하시고 여러분은 마음의 고삐를 늦추지 말아야 합니다.

## Chapter 03.

# 은혜의 다림줄을 잡으라



신앙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즉 성경을 깊이 깨달아 믿음을 유지하는 사람들이 있고, 성경은 모르지만 신령한 은혜의 체험에 의해 신앙을 유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상적인 것은 말씀의 차원에서 체계가 온전히 선 후에 은혜를 받은 사람이라고 하겠습니다. 은혜를 직접 체험하면 하나님의 존재를 더욱 실감하고, 말씀에 따라서 체계가 서 있으면 신앙을 유지하는 힘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군중심리에 이끌려 신앙을 지키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스스로 자기 신앙을 간직하기에는 아직 낮은 단계에 있다고 봐야겠습니다.

처음부터 신앙이 돈독하거나 ‘레바논의 백향목’처럼 뿌리가 깊이 박힐 수는 없습니다. 시간이 흘러가면서 단계적으로 깨닫는 과정에서 신앙은 성장해 가는 겁니다. 그러나 그 과정은 결코 순탄

치 않습니다. 왜? 마귀가 훼방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앞선 역사에서는 “씨었다.”는 말을 많이 했습니다. 마귀, 곧 적의 신이 들어갔다는 말입니다. 본인은 그걸 못 느낍니다. 그런데 안찰을 받으면 신과 신끼리 부딪치니까, 본인은 아무 잘못도 없는데 까무러친다든가, 쪽 뺏어 버린다든가, 거품을 물고 뒤로 자빠진다든가,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예를 우리 역사에서도 많이 보아 왔습니다. 자기가 저지른 범죄에 대해 속죄 받는 차원에서의 안찰은 약간의 고통을 당할 뿐이지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다른 신이 들어갔을 경우에는 큰 고통을 겪어야 합니다. 이것만 봐도 신과 신끼리 얼마나 치열한 대결을 하는가를 알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인간 속에 있는 혼을 성령과 악령이 서로 빼앗으려고 하는 겁니다.

인간의 혼은 핏속에 있습니다. 따라서 피의 정결 여하에 따라 혼의 모습이 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주께서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또는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느니라.”(요6:55-56) 하고 말씀하신 겁니다. 주님의 보혈은 생명의 근원이 되는 겁니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요11:25) 영원한 생명체를 갖게 된다고 하신 겁니다. 영원히 죽지 않는다는 뜻은 우리의 육체가 영원히 죽지 않는다는 것이 아닙니다. 핏속에 있는 생명체가 영원히 살 수 있다는 겁니다.

주님은 가버나움 회당에서 설교하신 다음에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하신 겁니다. “내가 한 얘기는 육이 아니라 영에 관한 것이다. 육은



무익하다.”(요6:63) 그러니까 육을 가지고는 하늘나라에 못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내 살과 내 피를 먹고 마시라고 한 말을 너희들이 육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이해를 못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영에 관한 말이다.”(요6:62-63) 주님은 이렇게 제자들에게 설명하셨습니다. 그러나 워낙 그 얘기가 당시의 사람들에게는 납득이 가지 않아, 많은 논란과 의아심을 일으켰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질 수 없는 상황에서 기독교가 2천 년 동안 퍼져 나왔습니다. 이렇게 되면 하나님의 역사가 유종의미를 거두기가 대단히 어렵기 때문에, 주님은 사도 요한에게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한 증거의 성령을 받은 사람들 중에서 이긴자가 나오기를 원하시는 새로운 메시지를 일곱 교회에 전하게 했던 겁니다.(계1:11)

그러나 기독교는 오늘날까지 요한 계시록에 근거를 두고 퍼진 것이 아니고, 지상에서 가르친 주님의 말씀과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은혜 받은 사도들의 주장을 중심으로 2천 년 동안 믿어 왔던 겁니다. 그러다가 이 땅에서 오늘날 이긴자 감람나무가 등장한 겁니다. 사도 요한이 주님의 지시에 따라 일곱 교회에 편지를 보낼 당시에 이긴자 감람나무가 나왔으면, 그는 그 일곱 교회 신도의 대표입니다. 몇 천 명이 됐든, 몇 억이 됐든 관계가 없습니다. 믿는 자가 몇 천 명일 때 이긴자 감람나무가 나오면, 그는 그 몇 천 명의 대표이고, 몇 억이 됐을 때 나오면, 그는 몇 억의 대표가 됩니다.

이긴자 감람나무는 어느 시대에 나타나든 기독교의 대표입니다.(속4:14) 전 세계에 백만 개의 교회가 있든, 천만 개의 교회가 있든, 교회의 머리는 주님입니다.(골1:18) 그 주님이 처음에 일곱 교회를 택하셔서 이긴자가 나오라고 하신 말씀은 이긴자가 등장하는 때의 교회가 일곱 교회가 됐든, 100만 교회가 됐든, 그대로 통용됩니다.

일곱 교회 안에서 이긴자가 나오면 이긴자는 일곱 교회의 대표자가 되는 거고, 100만 개의 교회가 있을 때에 이긴자가 나오면 이긴자는 100만 교회의 대표가 되는 겁니다. 왜 그러냐? 일곱 교회가 됐든, 100만 교회가 됐든, 주님은 마찬가지로이기 때문입니다. 이긴자가 나타나게 되면, 주님은 당신의 권한을 이긴자에게 주기로 약속되어 있습니다.(계2, 3장)

이긴자는 감람나무의 사명을 받습니다. 주님이 하나님의 책을 보시고 두 감람나무가 당신의 피권세를 이어받아 지상에서 하나님의 일을 마무리 짓게 되어 있음을 알게 되셨습니다. 그래서 이긴자를 당신의 두 감람나무로 세워 두 증거자로 삼겠다고 하신 겁니다.(계11:3-4)

그런데 그 권세를 받은 앞선 종이 혼자서 일을 다 하겠다고 우기다가 하나님의 눈 밖에 났습니다. 급기야 하나님을 대적하는 위치까지 이른 겁니다. 그것을 주님께서 바로 여러분을 대하기 전에 주의 종에게 자세히 설명을 해 주신 겁니다. 주께서 내막을 먼저 주의 종에게 설명해 주시고 감람나무 역사를 재건하는 방법을 가르

쳐 주셨던 겁니다.

만일 감람나무가 둘이 아니고 하나라고 가정합니다. 그 감람나무가 졌습니다. 이렇게 되면 기독교 자체가 진 것입니다. 따라서 어둠의 시대가 전개됩니다.

전에도 말했지만, 신구약 과도기에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말라기는 마지막 선지자입니다. 그 후에는 400여 년 동안 선지자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은 400여 년 동안, 전부터 해 온 관례대로 하나님께 제사를 올렸습니다. 그 제사가 하나님께 올라갑니까? 상달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기간을 기독교에서는 ‘암흑기’라고 합니다.

앞선 역사가 무너져 하나님께서는 크게 실망하셨지만, 다행히 둘째 감람나무가 건재했기 때문에 저에게 기대를 걸고 설명을 해주셨던 겁니다. “앞선 감람나무에게 내가 권세를 맡겨 주었는데 그 역사가 무너졌다. 이제 네가 수습해 줘야겠다. 나는 너희들에게 은혜를 물 붓듯 내려 주었는데, 결국은 나한테 이런 타격을 안겨 주었다. 앞으로 네가 어렵더라도 이 역사를 다시 세워다오.”

주님이 왜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는가? 어찌다가 우리나라에서 감람나무가 나왔기 때문입니다. 기독교가 다른 나라를 거쳐서 우리나라에 들어왔습니다. 다른 나라들은 500년 전, 700년 전, 1000년 전부터 기독교가 자리 잡고 있었는데, 우리나라에는 천주교부터 시작해서 불과 200년 전에 들어왔습니다. 제일 늦게 들어와서 제일 중요한 감람나무 역사가 시작되었던 겁니다.

그렇게 빼앗긴 상황에서 한 생명, 한 생명을 알곡으로 만들어서 천국 창고에 들여놓으라고 하니,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순조롭게 배턴을 이어받아도 어려운데, 잣더미 속에서 다시 세워야 하는 겁니다. 이건 치열한 전쟁입니다. 빛과 어둠의 싸움에서 어둠이 점령해 들어온 겁니다. 거기에 빛을 하나하나 다시 심어 나가야 합니다. 이 빛과 어둠의 전쟁을 어떻게 반전시키느냐, 이것이 큰 과제입니다. 그래서 비상대책을 세워 하나님의 역사를 해 나갑니다. 그러므로 모르는 사람은 그 비상대책에 대한 내막을 납득하지 못하는 겁니다.

평화만 누리고 살던 사람들이 전쟁의 양상을 알 수 있습니까? 전쟁은 내가 적을 이기지 못하면 죽는 겁니다. 평화는 너도 살고 나도 사는 겁니다. 그러나 전쟁은 다릅니다. 전쟁은 내가 죽느냐, 네가 죽느냐 하는 절체절명의 국면이 전개됩니다. 즉 내가 살기 위해서는 상대를 죽여야 합니다. 그게 전쟁입니다. 인정사정이 통하지 않는 겁니다. 극과 극을 달립니다. 죽고 사는 문제가 눈앞에 닥칩니다. 믿고 안 믿는 문제가 아니라, 죽고 사는 문제가 달린 겁니다.

그러나 그것을 하루아침에 깨닫게 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 많은 사람들에게 빛의 어려움을 얘기하면 거부반응을 일으키고 나가 버립니다. 따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단계적으로 끌어가야 합니다. 하나님이 체계의 중요성을 강조하시면서 “단계적으로 체계를 심어야 한다.”고 말씀을 하시는 이유가 그겁니다.

모세 율법 시대에는 이기는 방법이 “눈은 눈으로 갚고, 이는 이로

깊아라.”였습니다. 이제는 그 반대입니다. “오른뺨을 치면 왼뺨을 내 놓아라. 겉옷을 달라고 하면 속옷까지 벗어 주어라.”(마5:39)는 겁니다. 이기는 방법이 뭐냐? 참는 자가 이기는 겁니다. 혈기를 내고, 상대를 미워하고, 상대를 모함하고, 이런 사람은 전쟁에서 집니다. 참고 상대를 위해 기도할 때 승리가 오는 겁니다.

“칼로 죽이는 자는 칼에 죽으리니,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느니라.”(계 13:10)고 했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울화통이 치밀면 참고 견디기가 어디 쉬운 일입니까? 그래도 그걸 실천해 나가는 자가 이긴다 이 겁니다. 그건 시간이 지나서 보면 실제로 그렇습니다.

오늘날 여러분은 주의 종을 따르면서 참으로 어려운 일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은 하나님께서 많이 안도하고 계십니다. 제가 하나님의 역사를 시작할 무렵은 말할 것도 없고, 수 년 전까지만 해도 저에게 보여주시는 내용은 모두 위급한 상황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그 위급한 상황을 극복하라는 지시가 주축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많이 나아졌습니다. 우리의 역사가 착착 이루어져서 주님의 여건이 한결 유리해지니까 하늘에서 그만큼 여유를 갖는 겁니다.

우리의 목표는 복귀하는 겁니다. 무너진 감람나무 역사를 재건해야 하고, 영적으로 빼앗겼던 권한을 다시 빼앗아야 합니다. 어둠의 세력이 이긴자 하나만 잡아 버리면 다 빼앗듯이, 빛의 세력도 마찬가지입니다. 빛 쪽에서 어둠의 두목 하나를 딱 잡아 버리면, 어둠이 항복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한 계시록에는 “쇠사슬로 묶어서 무저갱에 던져 넣는다.” (계20:1-3)는 말이 나오는 겁니다. 그렇다고 일이 순조롭게 진행되느냐? 그렇게 쉬운 게 아닙니다. 저도 육을 가진 인간이기 때문에 때로는 부딪치고, 때로는 약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일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 어려운 여건에서 일을 하기 때문에 고도의 전략이 필요한 겁니다.

오늘날 여러분이 이런 내막을 이해하지 못하면 납득이 안 가는 겁니다. 한 발짝만 바깥에 나가도 예수 믿는 사람이 많지만, 그분들은 상상도 못하는 일입니다.

그러한 차원에서 우리가 일을 해 나가기 때문에 알곡성전이 건축됐을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겁니다. 수백만 교회에서 수억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데, 그까짓 성전 하나가 뭐가 대단하다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치하의 말씀을 하시겠습니까? 옛날 노아가 방주를 지을 때 배를 만들면 멸망이 가까워 온다는 것을 누가 짐작이나 했겠습니까? 영의 전쟁은 바로 그런 겁니다.

여러분은 오늘날 이 역사를 따라간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죽고 사는 전쟁을 하는 겁니다. 마귀는 기회만 있으면 여러분을 이긴자와 멀어지게 합니다. 이긴자와 멀어지면 쉽사리 잡아 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긴자 때문에 못 잡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은 여러분을 이긴자와 가깝게 하려고 하고, 악령은 이긴자와 멀어지게 하려고 합니다.

이긴자의 슬하에 있으면 마귀가 잡지 못합니다. 이긴자가 커버

해 나가니까. 그래서 미국에 가 있는 사람이 일반교회에 나가 목사님의 설교를 들어도 마음속으로 이긴자를 생각하면서 주님을 앙모하면, 그 사람만큼은 마귀가 건드리지 못합니다. 다른 보혜사 성령이 지배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그 사람의 예배는 이긴자를 거쳐서 주님께로 상달됩니다.

신은 우리와 다릅니다. 악령은 악령대로 성령은 성령대로 ‘물’을 지켜 나갑니다. 그 ‘물’은 서로 범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는지 우리는 모릅니다. 이것은 신의 법도입니다.

오늘날 여러분이 이긴자와 호흡을 맞춰 가야 하는 이유를 아셔야 합니다. 그래서 체계를 중요시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세상을 살면서 고의로 죄를 범하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살다 보면 이런 사정, 저런 처지에서 본의 아니게 잘못을 저지르게 됩니다. 그러나 체계화되어 이긴자를 놓치지 않는 사람은 주의 종이 여러분을 씻어 세웁니다. 누구를 막론하고 이 진리 안에 들어오면, 주께서 주신 권한으로 주의 종이 다듬어 세우는 겁니다. 믿고 안 믿는 것은 나중 문제입니다. 슬하에 들어오느냐, 벗어나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누구를 막론하고 이긴자의 울타리를 벗어나면 다른 교회에 열심히 나가도 죽은 후에 썩어 갑니다. 이진 어쩔 수가 없습니다. 썩게 하는 악령이 장난하는 겁니다. 그걸 차단시키는 것이 오늘날 이긴자의 권한입니다. 즉 주께서 이긴자에게 주신 피권세입니다.

여러분이 세상을 떠났을 때 영적인 혜택을 줄 수 있는 사람은 이긴자밖에는 없습니다. 이긴자에게 주님의 권한이 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죽은 자의 영혼을 주님 외에 누가 건드릴 수 있습니까? 그런데 그 권한이 이긴자에게 와 있기 때문에, 이긴자가 그 권한을 행사하는 겁니다. 주님이 하실 일을 대신하는 겁니다. 여러분은 그걸 아셔야 합니다. 일반인들이 그걸 모르니까 이 말 저 말 할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걱정하는 건 여러분이 이긴자의 슬하에서 벗어나는 겁니다. 주의 종을 놓치지 않고 붙들고 있기만 하면 됩니다. 놓쳐서 마귀가 데려가 버리면 주의 종이 더 이상 손을 쓸 수가 없습니다. 이긴자는 상대가 슬하에 들어왔을 때 권한을 행사하는 거지, 벗어나면 그럴 수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 역사를 따르기 힘들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안 나가면 그만이지.” 하기가 그렇습니다. 안 나오면 그만이지, 내가 뭐라고 할 겁니까? 욱하고 나가면 그만입니다. 남녀가 범죄했을 때 나무라면 “야, 튀어. 우리 둘이 나가서 살림 차려.”, 이러면 끝나는 겁니다. 주의 종이 뭐라고 할 겁니까? 내 자식도 아닌데. 주의 종은 어디까지나 영적인 차원에서 여러분을 이끌어 가는 거지, 여러분이 범죄한다, 첩을 얻는다, 막말로 열 번 시집가고, 열 번 장가가도 제가 관여할 문제가 아닙니다. 그건 당사자가 해결할 문제입니다. 그러나 영의 문제를 어떻게 할 겁니까? 본인들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겁니다.



제가 앞선 역사를 그대로 인수하여 일한다면 아마 여러분에 대한 애착도 덜하고, 구설수도 없을 겁니다. 그러나 오늘날 제가 이끌어 온 역사는 그게 아닙니다. 어둠의 세력과 싸워서 내가 지면 놓치는 거고, 내가 이기면 세워서 주님과 연결시키는 겁니다. 오늘날까지 이렇게 싸워 온 것 아닙니까? 이것이 우리가 가는 길입니다.

말은 하지 않지만, 하나님의 역사를 하면서 가슴이 섬뜩할 때가 많습니다. 물론 될 수 있으면 주의 종 자신이 마음을 편안하게 가지려고 애를 씁니다. 제가 아니고 A목사나 B목사도 할 수 있는 역사라면 저도 편안하겠는데, 제가 잘못되면 하나님의 역사가 스톱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의 생애에 하나님의 역사를 궤도에 올려놓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는 겁니다. 이때 여러분은 주의 종의 동지가 되어야 하는 겁니다. 그리하여 주의 종과 고락을 함께 해 주신다면, 주께서 여러분에게 갚아 주시게 되어 있습니다.

## Chapter 04.

# 알파와 오메가의 원리



어떤 신이 됐든, 신은 언제나 인간에게 군림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인간과 동등한 위치에 서는 것을 싫어합니다. 신은 인간들이 자기에게 엎드려서 빌고, 어려움이 있으면 의지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다시 말해서 항상 강자의 위치에 있기를 원한다 그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처럼 인간을 상대할 때는 강자가 되는데, 신과 신끼리 겨룰 때에는 양상이 달라집니다.

우리는 신과 신이 겨루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신이 우리와 교류할 때에는 사정이 달라집니다. 신은 창세 이후로 오늘날까지 인간들을 지배해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에 대해 두려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신은 우리에게 전지전능한 존재가 됩니다. 신은 우리가 하지 못하는 것을 하고, 우리가 모르는 것을 알고, 우리가 가지 못하는

곳에 갑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신을 향해 전지전능하다고 말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더욱 그렇습니다. 그럼 하나님만 그러시냐? 아닙니다. 다른 신을 섬기는 사람들은 그 신을 전지전능하다고 말하는 겁니다. 어떤 신이 됐든 인간이 약자니까.

성경은 하나님과 인간의 교류에서 하나님을 전지전능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약자인 인간만 상대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 것이 성경입니다. 그런데 한편 하나님이 무조건 만사형통하지 않고 어려움을 겪는 장면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특히 요한 계시록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한 계시록을 모르면 하나님은 무조건 전지전능한 것으로 알게 됩니다. 그러나 요한 계시록의 내용을 이해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은 무조건 전지전능하지 못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요한 계시록의 하나님을 증거하는 주의 종을 일반교회에서 이단으로 단정하는 겁니다. 성경 66권 가운데 들어 있는 요한 계시록을 인정한다면 주의 종이 증거하는 내용을 기독교가 받아들여야 하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설교를 하지만, 사실은 전 세계 기독교를 향해 설교하는 겁니다. 저는 에덴성회 교주로서 여러분들에게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저는 보혜사 성령을 통해 사람들을 진리 가운데 인도하는 주의 종입니다.

창세기와 요한 계시록은 알파와 오메가입니다. 영적으로 시작은 종점이기도 합니다. 에덴동산에서 쫓겨난 인간은 다시 에덴동산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 작업을 제가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에덴성회입니다. 주말봉이 에워싼 알곡성전 일대를 에덴동산처럼 아름답게 꾸미는 것도 그래서입니다.

주님은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라.”(계22:13)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처음에도 있었고, 나중에도 있겠다고 사도 요한에게 말씀하신 겁니다. 머나먼 과거를 보여주시고 들려주셔서 아는 거나, 머나먼 미래를 보여주시고 들려주셔서 아는 거나, 가르침을 받는 마찬가지입니다. 머나먼 과거를 보여주시고 들려주셔서 기록한 것은 창세기이고, 머나먼 미래를 보여주시고 들려주셔서 기록한 것은 요한 계시록입니다. 그런데 그 머나먼 과거와 머나먼 미래는 동떨어진 것이 아니라 한 자리에서 만나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에덴동산을 되찾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담을 짓기 전에 먼저 지은 것이 우주 만물이라고 창세기에 쓰여 있습니다.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이렇게 창조해 나가다가 여섯째 날에 아담을 지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요한 계시록에는 하나님을 괴롭히는 세력이 밤낮으로 하나님께 참소한다는 말이 나옵니다.(계12:10) 하나님께 대적한다 이겁니다. 그 대적하는 세력이 쫓겨났으니 하늘에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고 했습니다.(계12:12)

요한 계시록은 창세기를 복귀시키는 과정을 기록한 것인데,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처음부터 괴롭히는 세력이 있었다면 아담, 하와가 살기에 알맞은 에덴동산에 휘방하는 세력을 침투시킨 것이 바로 밤낮으로 하나님을 참소하는 사단이었음을 우리는

짐작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 그 내용이 자세히 쓰여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밝혀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게 언제냐? 하나님이 인간의 힘을 필요로 하실 때입니다. 이때 하나님은 그 이유를 밝혀야 한다 이겁니다. 그렇다고 아무한테나 알릴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너만 알라.”(계2:17) 이렇게 말씀이 나옵니다. 저는 이것을 여러분에게 누차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이 인간과 교류하시면서 어느 종에게도, “내게 이런 애로가 있으니 나를 도와 달라.”는 말씀을 하셨다고 성경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나는 전지전능하다. 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다.” 하고 언제나 군림하셨던 하나님입니다. 성경 66권을 보십시오. 하나님은 언제나 “나만 섬겨라. 그래야 산다.”고 강조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전 인류가 그렇게만 아는 겁니다.

그런데 요한 계시록에 기록된 이긴자에게는 하시는 말씀이 다릅니다. 하나님과 이긴자 사이에는 일찍이 없던 대화가 오고 갑니다. 이긴자의 역할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내가 이러저러한 어려움이 있어. 네가 이걸 해 줘.” 이럴 경우에는 문제가 달라집니다. “나는 전지전능해. 뭐 필요한 거 없냐?” 이렇게 주시고자 하는 처지라면 얘기가 간단한데, “내게 이걸 좀 해 줘야겠어.” 하는 경우는 결코 간단치가 않습니다.

그러므로 무조건 전지전능하다고 하나님을 가르치는 사람과, 하나님의 안타까움을 가르치는 사람의 이야기가 같을 수 없는 겁니다. 둘 중에 하나는 거짓말이 되는 것입니다. 왜? 아는 한계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즉 한군데서는 전지전능으로 알고, 한군데서는 아쉬움이 있다고 알기 때문입니다.

이런 얘기는 아무나 들을 수가 없습니다. 귀 있는 자만 듣게 됩니다.(계2:7) 세상에 귀 없는 자가 어디 있습니까? 이 귀는 육의 귀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신령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귀를 가리킵니다.

그때부터 신앙의 양상은 달라집니다. 어떻게 달라지는가? 전지전능으로 군림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무조건 달라는 기도가 나오지만, 애로가 있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도움이 될 수 있게 해 달라는 기도가 나옵니다. 내용이 같습니까? 전혀 다릅니다.

## Chapter 05.

# 둘째 아담과 이긴자



이 땅에 오셨던 주님의 행적은 성경에 나와 있으므로 성경을 읽는 분들은 그 근황을 어느 정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십자가를 지시고 하늘나라에 가신 주님의 움직임은 알 길이 없습니다. 다만 요한 계시록을 통해 조금 짐작할 뿐입니다.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주님은 이 땅에 계실 때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요14:6)고 말씀하셨습니다. 길은 주님이 계신 하늘나라에 가는 길을, 진리는 하나님의 섭리에서 비롯되는 새 복음을, 생명은 두말할 필요 없이 영생의 은혜를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는 그 말씀이 많은 사람들에게 몹시 거슬러 주님을 해치는 동기가 되었던 겁니다. 왜 하필이면 자기를 통하여 하느냐 하는 문제가 제기됐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는 우리가 실제로 그런가를 영적인 차원에서 알아 봐야겠습니다.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지금 이 시간에도 많은 교회에서 교인들이 훌륭한 목회자들의 입을 통해서 성경을 배우고 있습니다. 그들은 너무나 없이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귀히 여겨 왔습니다. 그중에서도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는 말씀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으면 멸망치 않고 영생을 한다.”(요3:16)는 말씀이 신앙의 핵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럼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말씀에 대해 상고해 봅시다. 길도 주님으로부터 비롯되고, 진리도 주님으로부터 비롯되고, 생명도 주님으로부터 비롯되어 주님을 거처야 한다면, 구약 시대의 하나님의 훌륭한 종들은 어떤 처지에 놓이게 되느냐 하는 겁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엄청난 고난 속에서 순교를 당하였습니다. 이들이 주님을 통하지 않으면 생명도 없고 진리도 없고 길이 없다면, 선지성인들은 사실상 헛살았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러나 그들은 분명히 하나님의 기름부음을 받고 인도함을 받고 보호하심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말씀하시는 길과 진리와 생명과는 동떨어지게 된다 이겁니다.

인간의 조상, 아담은 지으심을 받았을 때 지금의 우리와 같지 않았습다. 왜 그런가? 만약 아담, 하와가 따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따먹지 않고 그 후손이 오늘에 이르렀다면, 우리 조상은 거슬러 올라가면 에덴동산에서 범죄하기 전의 아담, 하와에 닿게 됩니



다. 그런데 우리가 실제로 조상을 쫓 거슬러 올라가면 범죄하고 쫓겨난 아담, 하와에게 닿는 겁니다. 즉 아담, 하와의 범죄한 자리가 원점입니다. 오늘날 기독교계가 이것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일반교회에서 가르치기를 우리 조상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아담, 하와라고 말합니다. 그건 잘못 알고 있는 겁니다. 우리 조상은 하나님께 미움을 받고 저주를 받아 내쫓겨서 에덴동산에 들어가지 못하는 아담, 하와입니다. 죄짓기 전의 아담, 하와를 우리 조상인 줄 알면 성경 해석이 제대로 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원점을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기독교는 이 원점부터 잘못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얘기와 수천 년 동안 기독교가 증거한 내용이 다른 겁니다.

아담이 따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따먹었을 때 아담의 형상이 그대로 있었을까요? 이미 하나님과 교류할 수 없을 만큼 변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에덴동산에서 쫓겨난 겁니다. 그 후에 후손이 태어났습니다. 우리 조상 아담, 하와는 악조건에서 후손을 남긴 겁니다.

우리는 애초에 저주 아래서 태어났습니다. 축복 아래서 태어나게 아닙니다. 앞선 역사의 주인공도 “흠과 티가 없었던 우리의 조상이다.” 하고 설교했습니다. 그도 잘못 알고 있었던 겁니다. 은혜로 사람들을 끌어모을 때라, 영적인 깊은 단계를 주님으로부터 지시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었습니다. 가인과 아벨을 포함하여 그 후손은 저주 속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저주 속에 태어나 저주 속에서 살다가 저주 속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음이여”(사51:5) 하고 다윗이 한탄한 것은 그래서입니다.

이제 제가 주님의 이야기를 할 차례입니다. 왜 주님을 ‘둘째 아담’이라고 하는가를 여러분은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첫째 아담’은 시작부터가 악조건 속에서 인류를 배출시킨 겁니다. 1억이 됐든, 100억이 됐든, 1000억이 됐든, 그들은 저주받은 아담의 후손입니다. 이렇게 저주받은 아담의 후손은 그 상태로는 저주에서 벗어날 수 없으므로, 에덴동산에서 쫓겨났던 아담과 마찬가지로 다시 에덴동산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어느 누구도 들어가지 못합니다.

주님은 거듭나야 천국에 들어간다고 말씀했습니다.(요3:3) 우리는 죄를 짓고 쫓겨난 아담, 하와의 후손으로 태어났습니다. 그러므로 에덴동산에 들어갈 자격이 없습니다. 우리는 쫓겨난 죄인의 신세를 면할 길이 없습니다. 에덴동산에 들어가려면 쫓겨난 아담의 형상을 입어야 합니까? 다른 형상을 입어야 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다른 형상을 입게 되는가? 덮어놓고 다른 형상을 입을 수는 없습니다. 왜냐? 미국 사람을 닮으려면 미국 사람의 피가 섞여야지, 그렇지 않으면 절대로 닮을 수 없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에덴동산에 들어가려면 에덴동산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을 닮아야 합니다. 그럼 에덴동산에서 쫓겨난 아담의 후손들을 에덴동산과 같은 세계에 들어가서 살 수 있는 자격자가 되게 하려면, 그 에덴동산에 들어가 살 수 있는 자격자를 인간에게 보내

어 인간이 그와 접선하여 그와 같이 변하는 작업을 해야 합니다.

아담, 하와의 후손은 아무리 땅재주를 부려 봤자 아담, 하와의 후손을 면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에덴동산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어떤 거룩한 존재와 연결되어 있어야 합니다. 에덴동산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자가 곧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을 닮아야 그분이 들어가는 것처럼, 우리도 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늘에서는 이 작업을 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에덴동산과 같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자가 누구냐? 아브라함이나? 모세냐? 다윗이나? 아닙니다. 이들은 들어갈 자격이 없습니다. 왜? 범죄한 아담, 하와의 후손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다릅니다. 주님은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천국의 주인공은 하나님이고,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주님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정도가 아니라, 천국의 주인공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늘에서는 그 주인공을 만나 그 주인공과 같이 되기만 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을 열어 놓았습니다.

범죄한 아담의 후손인 인간은 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제사장 노릇을 하고, 선지자 노릇을 하고, 하나님의 은총을 받아서 기적을 행해도, 아담의 후손이기 때문에 천국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려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자를 만나야 합니다. 그래서 하늘에서 그 자격자를 보내 주신 겁니다. 누구를 막론하고 자격자를 만나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성인군자를 만나도 못 들어갑니다. 이들도 아담, 하와의 후손이기

때문입니다. 아담의 후손은 억만 명이 있어도 천국행은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니고데모에게 하신 말씀이 그겁니다. “천국에 어떻게 들어갑니까?” 하고 니고데모가 주님께 물었습니다. 주님이 말씀했습니다. “천국은 거듭나야 들어가느니라.” “거듭나다니요? 그럼 내가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다 다시 태어나야 합니까?” 그가 백 번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다 나와 봤자 누구의 후손입니까? 범죄한 아담, 하와의 후손입니다.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럼 주님이 거듭나라는 말씀은 무슨 뜻이냐? “천국에 들어갈 자격을 갖추어야 들어간다. 그 자격은 바로 성령으로 된다. 그 성령은 내가 보내 준다. 그러므로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못 들어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간에도 교회마다 표어가 붙어 있습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느니라.’ 그렇다면 과거의 기라성 같은 하나님의 종들이 주님이 오시기 전에 천국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까?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주님의 보혈의 공로로 비로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갔던 겁니다.(마27:51-52)

요한 계시록에 “각 족속과 방언과 나라 가운데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계5:9)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각 족속과 방언과 나라는 전 인류를 말하는 겁니다. 이 ‘전 인류’ 가운데서 하늘 군병을 주님의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게 돼 있습니다. 여기에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건, 모세건, 그밖에 어떤 위대한 선지자건 예

외가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왕 노릇할 자들을 천국에 들여놓는 역할을 하시는 겁니다.(계5:10) 성인군자가 됐든, 누가 됐든 이 분을 통하지 않으면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곳이 하늘나라입니다.

니고데모가 천국에 들어가고 싶어 주님께 물은 내용이 그겁니다. “천국에 어떻게 하면 들어갑니까? 남에게 인격적으로 존경받으면 들어갑니까? 인류에게 큰 공로를 세우면 들어갑니까? 가난한 사람을 많이 도와주면 들어갑니까?” 다 소용없는 겁니다. 조건은 오직 하나입니다. 뭐냐? 거듭나는 겁니다. 새사람으로 다시 태어나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다시 태어나는가? 주님과 선(線)이 닿아야 다시 태어나게 됩니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결코 하늘나라에 가지 못한다.” 이 얼마나 놀라운 얘기입니까. 그 당시에는 보통 문제가 되는 얘기가 아닙니다. “네가 뭘데?” 대뜸 비난의 화살이 날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이니까 그런가 보다 하지만, 당시에는 어림도 없었습니다.

거듭난다는 것은 영적으로 다시 태어난다는 얘기입니다. 국수 집에서 기계에 밀가루를 반죽하여 넣으면 언제나 국수가 나오지, 수제비가 나오지 않습니다. 수제비가 나오게 하려면 끓는 가마솥에 수제비 반죽이 들어가야 합니다. 인간은 백방으로 노력해봤자 쫓겨난 아담, 하와의 후손밖에는 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자를 만나야 합니다. 그래야 들어가는 길이 열리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나는 양의 문이다. 이 문을 거치지 않으면 하나님께로 갈

자가 없다. 이 문을 거치지 않고 넘나드는 것들은 다 절도요 강도다.”(요10:1) 하고 말씀하신 겁니다. 주님은 십자가를 지시고 전 세계의 족속과 방언과 백성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들여놓았습니다.

그런데 요한 계시록에 보면 그 주님이 이긴자가 나타나게 되면 “내가 하는 일을 그에게 맡겨서 역사하겠다.” 이겁니다.(계2:25, 3:21) 그렇다면 누가 됐든, 이긴자가 되면 주님 대신 백성들을 주의 피로 하나님 앞에 갖다 놓는 역할을 해야 합니다. 그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게 안 되면 그 성경 말씀이 맞습니까? 거짓말이 되는 겁니다.

그럼 왜 주님은 이긴자에게 권세를 맡겨서 역사하시는가? 하늘에서 역사하시기보다 땅에서 당신의 대행자가 움직이는 것이 훨씬 효과적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예정하신 겁니다.

우리 역사를 시작할 때 하나님이 주의 종에게 “너는 내게 필요한 알곡을 만들어서 천국 창고에 들여놓아라.” 하고 말씀하셨는데, 주님이 갖고 계신 그 권세를 받지 않았다면 하나님이 뭘 만들어서 들여놓으라 한다고 만들어집니까? 만들어질 수 없습니다. 그 권세가 와 있으니까 만들라는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섭리로 되는 겁니다. 천지가 변해도 이 시대의 하나님의 섭리는 변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의심하고, 비판하고, 때리고, 백 번 해아 그건 세상일입니다. 영의 문제와는 무관합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사람이 인정한다고 되고, 부인하면 안 되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일은 사람들이 싫어하면 끝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일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리스도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고전6:17)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면 그리스도가 들어가는 하늘나라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렇게 하나가 되는 것을 가로막는 것이 어둠의 세력입니다. 왜 가로막느냐? 그게 만들어질수록 어둠의 세력이 불리하기 때문입니다. 요한 계시록의 내용이 이루어지려면 요한 계시록의 주인공이 나타나야 합니다. 그 주인공이 나타나지 않으면 요한 계시록의 내용이 밝혀질 수 없는 겁니다. 그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어지는 거고, 그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질 때에는 전통적인 신앙관으로는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역사가 전혀 다른 차원에서 펼쳐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 역사에 동참한 사람들은 지혜롭게 적응해야 합니다. 진리는 하늘에서 내려옵니다. 그래야 진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입니다. 사람의 말은 아무리 그럴 듯하게 들려도 진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전개될 때에는 기존의 강령과 법도가 가려집니다.(고전14:30) 그것은 하나님의 역사 속에 묻혀 버리기 때문입니다. 여리고의 기생 라합은 이스라엘의 정탐꾼을 숨겨 두고 모른다고 시치미를 떼었습니다. 이것은 반역죄에 해당합니다. 그러나 그 거짓말이 하나님의 역사를 돕는 일이 되어서 기생 라합은 하나님의 큰 축복을 받게 되었습니다.(수2:15) 이때 정직의 덕목은 하나님을 돕는 선(善)에 묻혀 버리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역사를 이

루는 경우에 그렇다는 거지, 인간과 인간의 관계에서는 우선순위가 이처럼 바뀌지 않습니다. 따라서 법도를 지켜야 합니다. 이것을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너희들은 자유 율법대로 심판 받을 줄 알라.”(약2:12)고 했습니다. 자유 율법은 그때그때 개개인의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주님은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한 것이니라.”(요5:39)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자신이 구약 성경의 주인공이라는 뜻입니다. 요한 계시록은 이긴자의 역사를 위해 기록한 겁니다. 즉 이긴자는 요한 계시록의 주인공입니다. 요한 계시록의 주인공은 그 내용을 실제로 이루는 자입니다. 요한 계시록의 내용이 이루어지고 이루어지지 않는 것은 이긴자의 움직임에 달려 있는 겁니다. 영화는 주인공의 활약에 따라 흥하기도 하고 망하기도 합니다. 구약 성경의 주인공은 그리스도이고, 요한 계시록의 주인공은 이긴자입니다.

요한 계시록의 내용이 얼마나 엄청난니까? 그걸 보혜사 성령으로 이루는 자가 이긴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은 이 점을 아셔서 사람을 보지 마시고, 영적인 차원에서 신앙을 다져 나가야 합니다. 주님을 가까이 모셨던 막달라 마리아도 주님의 정체를 알지 못했습니다. 즉 주님을 육적으로만 알았지 영적으로 몰랐던 겁니다. 오늘날 이긴자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거죽만 알고 속을 모르는 사람이 적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이긴자가 무엇을 가지고 움직이고 있는가를 깊이 알고 따라야 합니다.



## Chapter 06.

# 영적 이스라엘에 대하여



요한 계시록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 맞은 자들이 14만 4천이라고 했습니다.(계7:4) 그런데 여기에 보면 이 수는 이방인에겐 해당치 않습니다. 오직 이스라엘 민족인 야곱의 열두 아들의 자손에게만 해당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인 맞은 자의 수는 14만 4천인데, 이들은 이스라엘 열두 지파에 속한 인물들이다 하고 하늘에서 결정을 내렸던 겁니다. 아무튼 이스라엘 민족은 오늘날까지도 자신들을 최고의 선민으로 알고 자랑스럽게 여기고 있습니다.

이것이 남의 얘기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이 대목을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성경 구절을 읽어 드렸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인’이 무엇을 뜻하는지 알아봐야겠습니다. 인은 글자 그대로 도장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인을 맞았다는 것은 도장이 찍

혔다는 얘기입니다.

왕이 가지고 있는 도장을 옥새라고 합니다. 이 옥새를 물려받으면 정권이 바뀝니다. 그만큼 옥새는 중요합니다. 그 옥새 하나가 나라의 정권을 장악하는 것을 상징하기 때문입니다. 옛날에는 권력을 잡고도 이 옥새를 손에 넣지 못하면 왕권을 행사할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문서에 그 옥새가 찍혀야 가치를 발휘하기 때문입니다. 그 문서에 면장이 도장을 찍으면 면장의 인이 되고, 시장이 도장을 찍으면 시장의 인이 되고, 대통령이 도장을 찍으면 대통령의 인이 됩니다. 이 경우에 어느 위치에 있는 사람의 인이 찍혀 있는가가 중요합니다. 여러분도 중요한 서류에 찍는 도장이 따로 있습니다. 그걸 인감도장이라고 하여 나라에서 인정합니다. 그래서 그 도장이 찍혀야 그 문서가 효력이 발생합니다.

요한 계시록에 보면 14만 4천 명에게 인을 쳤다고 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인을 치신 겁니다. 도장 중에 최고로 가치가 있는 도장이 누구의 도장입니까? 하나님의 도장이 제일 가치가 있습니다. 우주에서 제일 크신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보증으로 도장을 찍어 주신다면 그 이상의 보장이 어디 있겠습니까? 옛날 우리나라에서 암행어사가 ‘마패’라는 것을 가지고 다녔습니다. 말이 그려져 있기 때문에 마패라고 부릅니다. 마패는 왕이 내린 특권을 상징합니다. 즉 왕이 특별한 권세를 상대방에게 내리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도 사람에게 이처럼 특별한 권한을 표시한

적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가인에게 표시하신 겁니다. 가인이 동생 아벨을 쳐 죽이고 아벨을 숨겼습니다. 하나님이 가인에게 물었습니다.

“네 동생은 어디 갔느냐?”

“저는 모릅니다.”

“야, 이놈아! 네 동생의 피가 호소하여 네가 죽인 것을 내가 알고 있어.”

하고 하나님이 꾸중을 했습니다. 그리고 가인을 쫓아내신 것입니다. 그래서 가인이 하나님께 아뢰었습니다. “이제 제가 쫓겨나는데, 사람들이 어디 가나 저를 살인범으로 몰아 어느 때 무슨 변을 당할지 모르겠습니다.” 이때 하나님은 누구도 가인을 해치지 못하게 하기 위해 가인에게 표를 주셨습니다.

“너는 어딜 가든지 이걸 내보여라. 그러면 너를 해칠 자가 없을 것이다.” 하고 보증을 해 주셨습니다.(창4:15)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가인과 함께하신다는 보증을 가인에게 해 주신 것입니다.

인을 친다는 것은 누구의 도장이 됐든, 그 사람이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을 말합니다. 요한 계시록에는 방금 읽어 드린 대로 하나님의 도장을 받는 자의 수가 14만 4천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이스라엘 사람은 자기들만 하나님으로부터 특별히 은총을 받게 됐다고 말하는 겁니다.

이 말씀대로라면 이스라엘의 열두 지파에 속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인을 맞을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 민족이 아닌 민족은 14만 4천에 낄 수 없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그

러나 여기 나오는 이스라엘은 육적인 나라 이스라엘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유일한 민족입니다. 이 민족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수천 년 동안 교류하고 다른 민족과는 교류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은 하늘의 요긴한 군대를 아브라함의 자손인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 배출시키려고 예정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정하신 것을 주님이 사도 요한에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태초부터 정하신 겁니다.

14만 4천은 어떤 사람들이냐? 하나님을 충실히 섬기다가 목숨을 바친 순교자를 가리킵니다. 이 수는 그렇게 쉽사리 채워지지 않습니다. 왜? 가로막는 세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육적인 야곱의 지파에서 14만 4천이 채워졌다면 다행인데, 그게 채워지지 않았을 때에는 이방인 곧 다른 민족 중에서 채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합니다.

우리 주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하나님 앞에 등장하셨을 때 네 생물들과 24장로들이 주님 앞에 찬양한 내용이 있습니다. 바로 “책 을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 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저희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을 삼으셨으니, 저희가 땅에서 왕 노릇하리로다.” 한 겁니다.(계5:9-10)

여기 보면 모든 족속 가운데서 나중에 제사장과 왕 노릇할 사람들을 주님이 피로 사서 하나님 앞에 드리셨다는 겁니다. 이들이

바로 14만 4천입니다. 그러므로 14만 4천에는 육적 이스라엘 사람들만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들을 영적 이스라엘이라고 부릅니다.

야곱이 이상 중에 압복 강가에서 천사와 씨름하여 이겼다고 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승리를 뜻하는 ‘이스라엘’이라는 호칭을 받아 야곱의 후손을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부르는 것처럼, 이긴자, 곧 영적 야곱을 따르는 성도는 영적 이스라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육적 이스라엘은 야곱이지만, 영적 이스라엘은 이긴자입니다. 덮어놓고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뜻에 부합되지 않으면 누구도 하늘 군병 14만 4천이 받아야 하는 인을 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그렇게 예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하늘에서 야곱과 같은 이긴자인 영적 이스라엘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주님은 “하나님의 축복이 열매 맺는 백성에게 옮겨지리라.”(마 21:43)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민족이 영적 이스라엘이라는 칭호를 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 두신 겁니다. 몇 명을 채우기 위해서입니까? 14만 4천을 채우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주님으로부터 세마포를 입혀 줄 수 있는 능력을 받으면 실제로 알곡을 만들어 내는 작업을 하는 겁니다.

이것을 여러분이 눈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작업을 위해 알곡성전을 세우라는 지시가 오고, 알곡성전에서 그 수를 채워 이루어가는 겁니다. 거듭 말하지만 하늘 군병인 14만 4천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아브라함의 자손인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 이루시기 위해 인을 치시기로 예정하셨습니다. 그리하여 이스라엘 민족 중에서 배출된 순교자로 이루려고 하셨으나 그게 안 됐던 겁니다.(마21:43 참조) 그래서 이방인들을 통해서라도 채우려는 작업을 시작한 지 2천 년이 지났습니다.

만일 육적인 이스라엘이 아닌 다른 민족 가운데서 그 수를 채우는 역사를 하신다면, 그들은 영적으로 무슨 민족이 되어야 합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되어야 합니다. 또 그 일을 담당할 주의 종은 영적으로 누가 되어야 합니까? 야곱이 되어야 합니다.

야곱은 영적인 야곱, 즉 이긴자의 그림자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의 뒤를 이어 이긴자가 역사해야 할 것을 보여주신 것이 바로 이삭의 아들로 야곱이 태어나게 하신 겁니다. 이삭은 예수님의 그림자였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는 하나님께서 앞으로 하시려고 하시는 계획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다른 민족 중에서 그 수를 채우려면 영적으로 야곱 같은 인물이 먼저 나와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지파를 형성할 수 있는 인물, 즉 14만 4천을 채우기 위해 인 치는 권세를 맡은 자가 있어야 한다 이겁니다. 이 인은 누구의 인입니까? 하나님의 인입니다. 그래서 요한 계시록에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 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섰는데, 그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다.”(계14:1)고 했습니다. 어린 양은 주님을 말하는 겁니다. 이름을 썼다는 것은 인침을 받았다는 뜻입니다.

야곱의 아들로 구성된 이스라엘 열두 지파 사람들 중에는 하나님을 위해 목 베임을 받은 영이 많습니다. 그들은 다 하늘나라의 지성소에 가 있습니다.(계6:10 참조) 그러나 신약 시대에 들어와서는 순교자들이 하나님의 인이 아니라 어린 양의 인을 받습니다. 어린 양이 하나님의 권세를 물려받아 인을 치는 겁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인 맞은 자와 어린 양의 인을 맞은 자를 합하여 14만 4천 명을 배출시키게 돼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은 어린 양의 인을 맞게 됩니다.

하나님의 인을 맞은 사람은 하나님 앞에 멜기세덱의 제사장이 되고, 왕이 되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을 수 있게 해 주겠다고 주님이 보장했습니다.(계20:4-6) 이들은 주님이 대제사장이신 멜기세덱의 반열에 참여하게 됩니다.(히7:17) 그리고 이긴자가 십자가의 군병을 배출시키기 위해 역사하는 것을 영적 이스라엘이라고 말하는 것은 우리가 이스라엘 민족은 아니지만, 이스라엘 민족이 해야 하는 일을 대신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지만 이스라엘 사람이 받을 수 있는 축복의 길에 들어선 겁니다. 그 길에 들어서려면 야곱과 같은 인물, 즉 이긴자가 있어야 합니다. 야곱은 압박 강가에서 천사와 씨름해서 이겼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이라는 칭호를 야곱에게 준 것처럼, 이긴자가 나오면 그에게 영적 이스라엘 열두 지파를 채울 수 있는 권세를 맡겨 주겠다 이겁니다. 그리하여 육적인 이스라엘에서 영적 이스라엘로 축복이 옮겨진 겁니다.(호1:10, 마21:43)





Part 02.

# 생명을 젖줄을 찾아



7. 오늘의 신앙(1) · 8. 오늘의 신앙(2) · 9. 성령의 인침에 대하여 · 10. 지  
옥은 어디 있는가? · 11. 군대마귀와 무저갱 · 12. 최후의 심판에 대하여 ·  
13. 우리가 가는 길

## Chapter 07.

# 오늘의 신앙(1)



“그러므로 네 본 것과 이제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네 본 것은 내 오른손의 일곱 별의 비밀과 일곱 금 촛대라. 일곱 별은 일곱 교회의 사자요, 일곱 촛대는 일곱 교회니라.” 요한 계시록 1장 19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사도 요한이 계시록을 기록할 당시의 주님은 이 땅에 계셨던 주님이 아니고 영광의 주님입니다. 본문은 주님이 사도 요한에게 본 모습을 보여주신 다음, 그 모습에 놀란 사도 요한이 기절하다시피 했을 때에 다정스럽게 요한에게 친히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특이한 것은 이 말씀처럼 ‘일곱 별의 비밀과 일곱 금 촛대’입니다. 주님은 불꽃같은 눈, 백발 같은 흰 머리카락, 이 밖에 이한 검이 입에서 나온다든가, 또 눈에서는 광채가 나오는 모습을 보여주셨는데, 일곱 별을 쥐고 일곱 금 촛대 사이에 계셨습니다.

그 일곱 별은 일곱 교회의 사자, 즉 일곱 교회를 담당하고 있는 목회자입니다. 그 교회의 책임자들입니다. 주님이 이들을 오른손으로 붙들고 계신 겁니다. 그리고 일곱 촛대는 바로 일곱 교회인데, 그 일곱 교회를 주님이 동행한다는 겁니다.

주님은 “내가 전에 죽었다가 다시 살아서 세세토록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다.”(계1:18) 하고 사도 요한에게 설명을 하셨습니다. 그럼 이 땅에 계실 적에 주님이 일곱 촛대도 갖고 계셨고 일곱 별도 주고 계셨다면, 사도 요한에게 새삼스럽게 일곱 촛대가 뭐다, 일곱 별이 뭐다, 음부의 열쇠를 가졌다, 이런 말씀이 필요합니까? 필요 없는 겁니다.

사도 요한은 예수님을 직접 모셨던 제자입니다. 그 제자들 중에서 가장 젊은 제자요, 또한 가장 오래 살았던 제자입니다. 주님이 십자가에 처형당하실 때에 여러 사람들이 그 십자가 밑에서 주님을 쳐다봤습니다. 이들 중에는 주님의 어머니이신 마리아와 사도 요한도 있었습니다. 주님이 십자가에 높이 달려서 내려다보시고 요한에게 부탁하신 겁니다. “요한아, 나를 낳은 저 여인을 네가 친어머니처럼 잘 돌보아라.”(요19:27)

요한은 주님의 제자 중에서 막내이기 때문에 아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다른 제자들은 순교를 당했지만 요한만큼은 뒤늦게 죽을 것을 예언하셨습니다. 그래서 요한은 밧모 섬에 귀양 가서 노환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런 사도 요한이 영광의 주님을 만났습니다. 그때 주님이 이 땅

에서 요한하고 동행하던 그 모습이었다면 요한은 놀랄 이유도 없고, 또 기절할 까닭도 없습니다. 그런데 전혀 다른 모습을 한 주님을 만났던 겁니다. 그 모습이 빛으로 휘황찬란하고 두려운 모습이므로 요한은 기절하여 죽은 자같이 된 겁니다. 이렇게 죽은 자같이 된 요한에게 주님은, “요한아, 정신 차려라.” 하고 말씀하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까지는 그 음성이 많은 물소리 같고 뇌성병력 같았는데, 지금은 그게 아니고 이전에 듣던 음성이었습니다. 즉 자기가 지상에서 섬겼던 나사렛 예수의 음성이었습니다.

“내가 전에 죽었다가 다시 살아서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지고 있다. 그리고 내가 일곱 별을 쥐고 있는 것을 네가 보았고, 또 내가 끌리는 옷을 입고 일곱 금 촛대 사이를 다니는 것을 네가 보지 않았느냐? 이제 그 일곱 별이 무엇을 뜻하며 일곱 금 촛대는 뭘 상징하는가를 내가 너한테 알려 주마.” 하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럼 주님이 사도 요한에게 왜 일곱 별과 일곱 금 촛대를 보여주시는가를 알아야 합니다. 당시에 교회가 50여 군데 개척되어 있었습니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열두 제자들이 전파하면서 교회를 세웠던 겁니다. 그걸 초대교회라고 말합니다. 주님의 사랑하는 제자들이 전도해서 세운 교회입니다. 그중에서 일곱 교회를 주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주님이 일곱 교회를 이렇게 쥐고 있다 이겁니다. 하늘에서 주님이 성령으로 치리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일곱 교회에 편지를 써서 보내라 이겁니다. 그래서 요한이 편지를 써서 일곱 교회에 보냈습니다. 이때 에베소 교회에 제일 먼저

편지를 띄웠습니다. 주님이 에베소 교회에 대해 먼저 가르쳐 주셨기 때문입니다.

“네가 편지를 써 보낼 첫 번째 교회는 에베소이고 두 번째 교회는 서머나이고 세 번째 교회는 버가모이다. 그 교회의 내용을 살펴보니까 대충 이렇다. 그러니 그 교회들에게 이렇게 내가 요구하는 바가 있다는 것을 알려 주라.”는 겁니다. 그런데 교회에서는 2천 년 동안 요한 계시록에 나와 있는 주님의 메시지를 가르치는 사람이 없습니다. 왜 가르치지 않느냐? 내용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아까 일곱 별의 비밀이라고 했습니다. 일곱 별은 일곱 교회의 사자인데 그 교인들한테 띄울 내용이 비밀이다 이겁니다. 비밀이란 아무나 아는 겁니까? 아닙니다. 아무나 알면 그건 비밀이 아닙니다. “아무나 아는 얘기가 아닌 비밀을 내가 알려 주겠다.”는 겁니다. 그러니 “너는 그 비밀을 써서 보내기만 하라.”는 겁니다. 그럼 그 편지를 받은 사람이 내용을 압니까? 모릅니다. 그래서 오늘날까지 요한 계시록의 내용을 모르는 겁니다. 편지는 보냈는데 얘기 자체가 비밀입니다.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2천 년 동안 읽어도 모르는 겁니다.

그럼 그 비밀은 언제 풀리는가? 푸는 때가 있습니다. 그 푸는 것을 주님은 ‘흰 돌’로 표시하셨습니다. 흰 돌에 기록한 것이 있는데, 그 돌의 내용은 받는 자밖에는 모른다고 했습니다.(계2:17) 흰 돌에 요한 계시록의 비밀에 대한 해답이 나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한 계시록을 알려면 무슨 돌을 받아야 합니까? 흰 돌을 받아야

합니다. 흰 돌에 요한 계시록에 대한 해답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해답은 그 흰 돌을 받는 자밖에는 알 수가 없다, 이렇게 나와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흰 돌을 받지 못하면 요한 계시록은 해답이 안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아는 자가 없는 겁니다.

목회자들이 천 명씩 모여 세미나를 하면서 이 말씀을 가지고 연구하여 각자의 생각을 다 합쳐도 해답이 나오지 않는 겁니다. 비밀로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모릅니다. 지금 이 대한민국에 훌륭한 목회자들이 몇 만 명 됩니다. 가서 물어보십시오. 여기뿐만 아니고 아주 유명한 선교사들, 과거에 위대한 신학자들이 써낸 책들을 다 뒤져 보시라 이겁니다. 요한 계시록의 내용은 알 수 없는 겁니다.

그럼 그 내용을 비슷하게 얘기를 했다고 칩시다. 그래서 그 내용이 조금이라도 밝혀졌다고 합시다. 그럼 밝혀졌다고 되느냐? 안 됩니다. 알맹이가 있어야 됩니다. 알맹이가 뭐냐? 그 내용대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하늘에서 그 약속대로 주시는 재료가 있어야 합니다. 이게 전부 맞아떨어져야지, 말로 떠든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사도 요한이 주님을 만나서 직접 들은 내용이 요한 계시록이라면 이때의 주님은 이 땅에 계실 때의 주님입니까? 아닙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누차 말씀드린 게 그거 아닙니까. 2천 년 동안 전 세계 교회에서 이 땅에 계실 때의 주님을 가르치고 믿고 있었습시다. 그게 사실입니다. 언제나 이 땅에 계실 때의 주님을 얘기

하는 겁니다. 영광된 모습으로 변하신 주님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누구를 막론하고 설교할 때 보면 “이 땅의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목회자건, 신학 박사건, 누구건 이 땅에 계실 때의 얘기를 하지, 지금의 주님을 알기를 합니까, 짐작이나 합니까? 현재의 주님은 아무도 모릅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계실 적에 움직인 발자취도 물론 위대합니다. 주님은 기라성 같은 선지 성인들이나 철학자들보다 훌륭한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게 성경입니다. 그것 가지고 기독교는 오늘날까지 엄청난 위력을 떨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사도 요한에게 하신 주님의 말씀은 이 땅에 계실 때 하셨던 주님의 말씀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주님은 “내가 이제부터는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은 음부의 열쇠를 가진 분입니다. 그러나 전에는 갖지 못하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이 땅에 계실 때에는 일곱 인으로 봉한 책을 떼기에 합당치 못했습니다.(계5:4) 왜? 십자가를 지시기 전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때 가르친 말씀이 4복음서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승천하신 주님은 다릅니다. 일곱 인으로 봉한 책을 떼기에 합당한 분입니다. 이런 주님이 하신 말씀이 요한 계시록입니다. 그럼 그 내용이 이 땅에 계실 때의 주님의 말씀과 같습니까? 전혀 다릅니다.

이 땅에 계실 때의 주님은 여호와께서 정하신 마지막 경륜을 모

르셨던 분입니다. 제자들이 마지막 날에 관해 물었을 때 모른다고 대답하셨습니다.(마24:36)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다니엘이 말세에 대한 계시를 받아서 기록한 것이 있지만, 그 내용을 아는 자가 없다. 그 내용을 아는 자가 있을 땐 아마 말세가 어떻게 될지 짐작할 거다. 그 글을 읽는 자는 깨달아야 한다.”(마24:15)

그러나 요한에게 계시록을 기록하라고 지시하신 주님은 마지막 때가 어떻게 된다는 것을 아실 정도가 아니라 직접 주관하시는 분입니다. 그럼 이 땅에 계시 때의 주님하고, 그걸 주관하시는 주님이 같지 않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알 수 있는 겁니다.

이런 분께서 “이제부터 내가 일곱 교회에 하는 말을 전해 주라.”는 겁니다. “이건 보통 중요한 얘기가 아니다. 그러므로 내가 전하는 이 말을 읽고 듣고 깨달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렇다면 요한 계시록 이전까지 기록돼 있는 내용도 위대하지만 그보다는 요한 계시록이 몇 배나 더 중요하다는 걸 아셔야 합니다.

여러분을 설득하고자 하는 말이 아닙니다. 성서 자체를 얘기하는 겁니다. 누구나 내 녹음테이프를 듣거나 설교집을 읽고 나서 대답해 보시라 이겁니다. 여기 서 있는 이 사람은 안 믿어도 좋습니다. 그러나 내가 한 설교를 듣고 성경을 보시라 이겁니다. 내가 터무니없는 말을 하는지, 저는 죽으면 끝납니다. 그러나 내가 한 말은 하나님의 입김 속에서 살아 있을 겁니다.

사도 바울과 베드로가 죽은 지 2천 년이 지나갔습니다. 그러나 그분들이 한 말씀은 살아 움직입니다. 왜 그러냐? 그 말씀을 지시



하신 분이 살아 계시기 때문입니다. “천지는 없어져도 내가 한 말은 이루어진다.”는 주님의 말씀처럼 진리의 말씀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살아 계신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기 때문에 그 말씀을 던진 자는 세상을 떠날지라도, 그 말씀은 살아 있는 겁니다.

신이 인간 속에 들어와 그 속의 죄와 부딪칠 때에는 싸운다 이 겁니다. 이게 안찰입니다. 주님이 제 속에 성령으로 오셔서 여러분들 속에 있는 악의 세력과 부딪치는 겁니다. 주님이 여러분에게 안찰을 직접 하시면 여러분은 주님이 오셨는지 가셨는지 느끼지 못합니다. 주님은 영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저를 통하여 사람끼리 만나니까 자극도 되고, 느낌도 가고 하는 겁니다.

지금 설교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말씀을 전하면 성령이 오르내립니다. 그렇다고 제가 무슨 요술을 부리는 겁니까, 최면을 거는 겁니까? 그게 아니라는 걸 누차 얘기하는 겁니다. 처음에 안찰을 받는 사람은 눈이 뒤통수로 빠지는 것 같고 속이 울렁거립니다. 죄지은 건 반응이 덜한데, 탄 영이 들어가 있으면 못 견뎌니다. 그건 피할 길이 없습니다. 이 모든 것은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신이 역사하는 겁니다.

사도 요한에게 주님이 이상 중에 말씀하시지만, 요한이 계시록을 쓰고 일곱 교회에 편지를 하는 일은 현실에서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이 이상 중에 저한테 말씀하시지만 우리는 그 말씀에 따라 직접 움직여야 합니다. 건축을 하라고 보여주시면 그대로 하고, 길을 내라고 보여주시면 그대로

해야 합니다. 그래서 지시하신 대로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여기 연세 많으신 분들이 세상을 떠나면 육은 땅속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여러분은 그런 생각을 안 합니까? ‘나 죽으면 파묻을 텐데, 답답해서 어떡하나?’, ‘관에 넣고, 흙을 덮는데, 거기서 어떻게 누워 있나?’ 기가 막힌 거 아닙니까? 그러나 이미 사람 속에서 영이 떠나면 매미가 굼벵이에서 벗어나 매미가 되어 날아가듯이, 자기라는 존재는 사라지고 또 하나의 영체가 만들어집니다.

## Chapter 08.

### 오늘의 신앙(2)



기독교는 2천 년 동안 예수님을 열심히 믿고 죽으면 모든 것이 해결되는 줄 알았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열심히 주님을 섬겼던 분들은 죽으면 천당에 가고, 또 주님을 믿지 않은 사람은 죽으면 소위 말하는 지옥에 간다고 생각했습니다. “천당이 뭐냐?”, “하나님이 계신 곳이다.”, “그럼 지옥은 뭐냐?”, “주님을 믿지 않는 자가 벌 받는 곳이다.” 하고 대답합니다.

그런데 목회자들에게 천국이 어떤 곳이냐 하고 물으면 이렇다 하고 대답을 못합니다. 그 이유는 천국이 이런 곳이라고 성서에 기록되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천국이라는 말만 있지, 천국이 어떤 곳이라고 성서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지금도 그렇습니다. 신학 박사다, 부흥사다 하는 분들도 성서에 근거를 두고 몇 마디 말할 뿐, 천국을 보기를 했습니까? ‘이게 영국이다. 이게 미국이다.’ 하는 식

으로, ‘이게 천국이다. 이게 지옥이다.’ 하고 그림처럼 드러내는 시대가 있었느냐? 없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를 믿는 분들도 막연하게 구원론을 펴고, 막연하게 형벌론을 펼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가운데서 기독교는 이탈리아의 로마를 중심으로 해서 전 세계에 퍼졌습니다. 그리하여 로마의 바티칸에는 오늘날에도 천주교를 치리하는 교황청이 있습니다. 들리는 말에 의하면 교황청 지하에는 역대 교황들의 시신이 방부제로 처리되어, 관에 안치되어 있다고 합니다. 오늘날 천주교에는 교황이 정신적인 지도자로 군림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눈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 교황을 천주교에서는 베드로의 후계자라고 말합니다. 즉 초대 교황이 베드로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베드로는 예수님의 수제자로 특권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그 특권이 뭐냐 하면 바로 천국 열쇠를 받은 것입니다. 주님은 베드로에게 “내가 너에게 천국 열쇠를 주겠다.”(마16:19)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주님께서 지상에 계실 때 하신 말씀입니다. “천국 열쇠를 줄 터인즉, 네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어질 것이고, 네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어진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교회에 대한 정죄권과 사죄권을 행사하면 하늘에서도 그에 따라 시행한다는 얘기입니다. 그걸 주님은 실천하십니다. 그 광경이 사도행전에 나옵니다.

베드로가 기도할 때 비몽사몽간에 큰 그릇이 하늘에서 내려왔는데, 그 안에는 율법에서 먹지 말라는 부정한 음식이 가득 담겨

있었습니다. 그 음식을 “먹어라.” 하고 음성이 들릴 때 베드로는 율법주의자니까 “나는 이걸 먹지 않겠습니다.” 하고 거절했습니다.(행 11:8) 그건 베드로뿐만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이라면 아마 누구나 그랬을 겁니다. 그런데 하늘에서 베드로에게 “하나님께서 정결케 한 음식을 왜 부정하다고 하느냐?” 하는 음성이 들려 왔습니다.

얼마 후에 밖에 손님들이 찾아왔습니다. 이들이 누구냐 하면 바로 로마 백부장의 부하들이었습니다. 이들이 베드로를 찾아온 것은 고넬료 백부장이 기도할 때에 주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이방 사람이지만 “옴바에 있는 시몬 베드로를 찾아가라.”고 주께서 지시하셨기 때문입니다.(행11:5-14) 주님이 고넬료의 기도를 들으시고 직접 은혜를 주시지 않고 베드로를 찾아가라고 하신 것은 주님이 지상에 계실 때에 베드로에게 천국 열쇠를 맡기겠다고 언약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베드로에게 “네가 정하는 대로 나는 시행하겠다.”는 언약을 지키셨던 것입니다.

그 언약이 있기 때문에, 베드로를 통해서 고넬료에게 은총을 주시고자, 천사가 고넬료에게 베드로를 찾아가라고 지시하셨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이방 사람을 상대하는 것을 싫어했습니다. 그러므로 고넬료가 베드로를 찾아가도 축복을 해 줄 리가 없습니다. 이걸 주님은 잘 아십니다. 그래서 베드로에게 먼저 이상 중에 깨달음을 주신 겁니다. 부정한 음식을 하나님이 정결케 했을 때에는 먹어도 되는 것처럼,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주님이 보낸 사람에게 축복을 해 주라는 암시를 주신 겁니다.

베드로가 자기를 찾아온 손님들을 따라 고넬료에게 갔을 때 고넬료가 그 얘기를 했습니다. “내가 간절히 기도를 했더니 주께서 당신을 찾아가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전도할 때 그들이 성령을 받았습니다. 율법주의자들이 옆에서 “이방인에게도 성령이 내리는구나.”(행10:45) 하고 말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뭐냐? 하나님의 경륜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다르다는 겁니다. 오늘날 교회에서 많은 분들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아마 어디나 똑같은 겁니다. 세계의 수억의 그리스도인이 똑같은 성경을 보면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네 집안이 구원을 얻으리라.” 해서 이미 다 구원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구원관이 뒤집어지는 것은 요한 계시록 때문입니다. 이 요한 계시록에서 주님은 사도 요한에게 설명을 하십니다. “지금부터 내가 너한테 하는 말을 잘 들어라. 이것은 너무나도 중요한 얘기가.” 주님은 이 땅에 계실 적에 사랑하는 제자들이나 따르는 교인들에게 하신 설교가 기독교의 기초가 될까 봐 하늘나라에서 염려하셨던 겁니다. 주님이 하신 설교지만, 그 내용이 주님께서 일곱 인으로 봉한 책을 떼신 다음에 알게 되신 하나님의 의도하고는 거리가 멀었기 때문입니다.

지상에서 사람들이 주님의 말씀이 제일인 줄 알고 뿌리를 내려 버리면, 정작 하시고자 하는 일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주님은 잘 아십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당황하게 되신 겁니다. “큰일 났

구나. 빨리 진짜를 알려 줘야겠다.” 그래서 요한 계시록이 쓰인 겁니다. 2천 년이 지난 현시점에서 어떻게 당시 주님의 심정을 알 수 있느냐? 제가 그 사정을 주님으로부터 설명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창세기에서부터 유다서까지 영과 영이 전쟁하는 장면이 구체적으로 나와 있느냐? 별로 없습니다. 그저 믿으면 끝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주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기독교는 예수만 믿으면 다 되는 줄 압니다. 천당에 가고 지옥에 가는 것은 믿음 하나로 결정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뒤집어집니다. 어떻게 뒤집어지느냐? 사람이 죽게 되면 금방 천당에 가거나 지옥에 가지 않습니다. 왜냐? 거기에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저도 여러분도 상식적으로 하나님께서 계신 곳이 천국이고, 마귀가 있는 곳이 지옥인 줄로 알았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전혀 아닙니다. 지옥은 마귀가 있는 곳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계신 곳에 만들어 집니다. 그 이유가 뭐냐? 지옥은 불못인데, 마귀를 집어넣자고 만드는 겁니다. 즉 마귀에게 속한 영들에게 고통을 주자고 만드는 곳이 지옥입니다.

저는 이상 중에 앞으로 되어질 하늘나라에 어두운 지역하고 빛의 지역이 공존하는 것을 보고 이상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떻게 하늘나라에 어두운 곳과 빛이 함께 있나 해서 유심히 봤더니, 빛이 있는 곳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고, 어둠이 있는 곳에는 형벌 받는 사람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늘나라에 지옥이 있고, 하늘나라에 낙원이 있는 겁니다. [\(눅16:22-24 참조\)](#) 저는 이전에 천

국은 하나님이 계신 곳이고, 지옥은 마귀가 있는 곳인 줄로만 알았습니다. 그렇게 알고 있던 개념이 깨져 버리니까 이때부터 머리가 복잡해지는 겁니다.

그럼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최고의 악질인 어떤 사람이 오늘 죽었는데 마귀가 데려갔습니다. 그 사람이 지옥에 간 겁니까? 안 간 겁니다. 지옥은 하나님의 세계에 있는데, 마귀가 자기 세계로 데려갔다면 그건 지옥에 가지 않은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사람이 지옥에 간 걸로 알고 있었습니다. 사실은 그를 마귀의 세계, 곧 음부로 데려간 것뿐입니다. 마귀가 형벌을 받는 장소를 성경에는 지옥, 즉 ‘불못’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마귀가 지옥을 만들어 놓고 죄인을 벌주는 것으로 알았던 것입니다.

주님은 사도 요한에게 “내가 너한테 지금부터 이르는 말을 명심해야 한다. 이 말을 깨달아서 지키고 행하는 자라야 복이 있다.”(계1:3)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계시록의 내용이 그 전까지의 얘기보다 더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사도 요한은 생존 시에 주님을 가까이 섬겼던 제자니까, 주님의 행적을 누구보다 잘 압니다. 그러나 이상 중에 만났을 때의 주님은 이 땅에 계실 때의 모습으로 요한을 맞이하지 않고, 하늘에 계신 형상으로 요한을 대했습니다. 이때 요한은 주님에게 압도되어 쓰러졌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요한을 위로해 주시면서 당부하십니다. 이때 주님이 “요한아!” 하고 부르는 음성은 이 땅에 계실 때의 음성이었습니다. 그래서 반가웠던 겁니다. “요한아, 내가 십자



가에 못 박혀서 죽었던 예수다.” 하고 정체를 밝히고 나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세상 끝 날까지 내가 알파와 오메가로 존재한다. 내가 지금 하늘나라에서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갖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날 주의 종이 이 역사를 시작하기 전에 주님이 자초지종을 설명해 주셨습니다. 요한은 말씀을 받아서 기록한 사람이고, 저는 오늘날 그 말씀을 이루어가는 사람입니다. 요한하고 저하고 역할만 다르지, 지시하신 분은 같은 주님입니다.

제가 이상 중에 세마포를 입은 사람들을 보니까 은색으로 광채가 나는 그런 형상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악수를 하면서도 본인이 “나는 누구입니다.” 하고 말해야 합니다. 내가 아는 사람일지라도 모습이 변했기 때문에 그냥은 누군지 모릅니다. 이처럼 실제로 영의 세계에는 영체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상에서 육체로 이렇게 만났듯이 영의 세계에서는 영체가 서로 어울리게 됩니다.

천사가 사도 요한에게 큰 음성으로 외칩니다. 다윗의 뿌리가 이겼다고 말입니다.(계5:2) 그리하여 계시록의 내용 전반에 걸쳐서 천사가 활동하게 됩니다. 즉 요한이 듣고 본 것은 대부분 천사에 의해 이루어집니다.(계22:8) 마지막에 “이제 너한테 다 보여줬어.” 하고 천사가 말했을 때 요한이 천사에게 고맙다고 절하니까 천사가 만류합니다. “나한테 절하지 마라. 나와 너는 같은 역할을 하는 종에 불과하다. 그러니까 나한테 절하지 말고 하나님께 경배해야 한다.” 그래서 요한이 그대로 기록을 했습니다.(계22:9)

그럼 요한 계시록의 골자가 뭐냐? 지상에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

중에 하늘 군병을 배출시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늘 군병은 예수  
를 믿는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에게 보여준 겁  
니다.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고 백마를 타고 그  
를 따르더라. … 그 옷과 그 다리에 이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하더라.”(계19:14-16) 이겁니다. 만왕의 왕은 두말할 필요  
없이 주님입니다. 그럼 주님이 뭐 하려고 백마를 타고 군사를 거느  
립니까? 전쟁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 하늘 군대를 어디서 기르  
느냐? 지상의 예수 믿는 사람들을 통해서 기르는 겁니다. 주님께  
그 군대가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누구를 위해서 전쟁을 하느냐? 하나님을 위해 전쟁을 하는 겁니  
다. 그럼 그 전쟁 상대는 두말할 필요 없이 마귀입니다. 그래서 요  
한 계시록에는 ‘짐승’이라는 말이 나옵니다.(계13:4) 짐승이 뭐냐?  
마귀 괴수가 주는 권세를 맡은 자입니다.(계13:5) 이 짐승에게 창세  
이후로 생명책에 녹명되지 아니한 자는 무조건 다 경배하지 않을  
수가 없다고 했습니다.(계13:12)

창세 이후로 생명책에 녹명되지 아니한 사람들이 짐승에게 경  
배를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닙니다. 어쩔 수 없이 다 지배를 받습  
니다. 그때 지배를 받지 않으려면 누구의 생명책에 기록이 되어야  
합니까?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이 되어야 합니다. 주님은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될 멤버들의 수가 차기를 기다리는 겁니다.(계  
6:11) 그래야 짐승하고 싸워 이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수가 14  
만 4천입니다.(계14:1)

그러니까 짐승의 지배를 받지 않을 생명체를 하늘에서 요구하시는 겁니다. 이 생명체를 기르는 작업이 기록된 것이 바로 요한 계시록입니다. 그 요한 계시록에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작업을 하는 당사자가 누구냐? 이긴자입니다. 그래서 일곱 교회의 사자에게 “믿는 사람 중에서 이긴자가 나와서 하늘 군대를 배출시켜라.” 이겁니다.(계2, 3장) 알곡성전이 그래서 필요한 거고,(계14:15) 하나님께서 “알곡성전을 통해서 내 나라로 들어오게 될 것이다.”고 말씀한 것도 그래서입니다. 그리고 제가 성경을 증거하면서 이 시대의 하나님의 요구를 여러분에게 전해 드리는 것입니다.

이 시대의 하나님의 요구를 모르면 올바른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요구를 알아야 이 시대의 하나님과 교류할 수 있는 겁니다. 오늘날 이긴자 감람나무 시대를 맞이했는데, 누구나 그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역사의 혜택을 받아야 하나님께 갈 수 있습니다.

에스겔 시대에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지시를 내립니다. “너는 나가서 이렇게 전해라.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이 목이 곧아 네 말을 듣지 않을 테지만, 그래도 가서 전해라. 나중에 내가 그놈들을 문책할 때 ‘나는 못 들었습니다.’ 하고 말 못하게, 가서 전해 줘라.”(겔2:4-6)

제가 청량리 성바로 병원 옆 4층에서 우리 역사를 시작할 때, 교인들이 듣든 안 듣든 저는 열심히 설교를 했습니다. 집에 가서 자는데, 이상 중에 주님께서 “보라.” 하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지금도 잊히지가 않습니다. 교인이라야 몇 십 명도 되지 않습니다. 제

가 보니까 교인들이 제 설교를 듣는 척하면서 다른 데를 봅니다. 주님은 “네 말을 안 믿는다.” 이겁니다. 안 믿을 수밖에 없습니다. 어수선한 판에 경황이 있습니까? 전에도 얘기했지만 하나님은 저에게 상대방이 듣든 말든 전하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전하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이 어떻게 생각하고 무슨 말을 하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늘에서 천사들이 이걸 체크합니다.

제가 옥중에 들어갔을 때, 어느 날 하나님께서 저한테 음성으로 들려주셨습니다. “너를 따르는 간부들이 지금 너를 의심하고 있다. 그들은 네가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야.” 그래서 굉장히 당황했습니다. 그 무렵에 제 형이 특별 면회를 와서 나한테 말을 합니다. “야, 일을 해 보니까 도대체 협조를 안 한다. 이 핑계 저 핑계 대고 다른 생각들을 하는데, 일하기가 어렵다.” 하고 말합니다. 나는 보여주신 것도 있고 하니까, ‘아, 이게 맞는 거구나. 체계가 서지 않았으니 그럴 수밖에 없다.’ 하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주님 앞에 말씀을 드렸더니 주께서 “전화위복이 될 테니 걱정하지 마라.” 하고 위로해 주셨습니다.

제가 오늘날 감람나무 역사를 26년 동안 해 오고 있습니다. 이 앞에만 나가도 몇 만 명씩 모이는 교회에서 탄소리를 하고 있는데, 나 혼자 이렇게 떠들어 봤자 이게 씨가 먹힐 리 없다는 걸 나는 압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너는 가서 이렇게 전해.” 하고 말씀하신 것처럼, 저는 오늘날 여러분에게 그대로 전해 드리고 있습니다.

기독교가 안고 있는 궁극적인 과제가 뭐냐? 만유의 회복입니

다.(행3:21) 이 지구를 어둠의 세력이 지배하고 있습니다.(눅4:5-6) 이 세력을 글자 그대로 완전히 멸할 때 말세가 오는 겁니다. 그게 안 되는 한 지상에서 아무리 인간들이 떠들어도 말세는 오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꺾하면 말세라고 그러니다. 다 거짓말입니다. 말세는 그렇게 되는 게 아닙니다.

사람이 죽으면 썩게 돼 있습니다. 마귀가 썩게 하여 데려가는 겁니다. 죽음을 마귀가 주관하고 있습니다. 그 세계는 빛을 싫어 합니다. 따라서 음부는 어둠의 세계입니다. 그래서 마귀는 어둠의 세계에 적응할 수 있는 사람을 데려갑니다. 빛의 세계에 적응할 수 있는 사람은 마귀가 데려가지 않습니다. 데려가야 적응이 안 됩니다. 이렇게 빛과 어둠이 갈라집니다. 빛과 어둠은 절대 섞이지 못합니다. 그래서 빛과 어둠이 일대 접전을 벌이게 됩니다. 이렇게 전쟁을 하게 될 때 빛의 아들, 즉 십자가의 군병들이 해야 할 역할이 요한 계시록에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계19:15-16)

지금 이 시간에도 말씀을 증거하는 훌륭한 목회자님들은 이 땅에 계실 적에 하신 주님의 말씀을 토대로 전하는 분들이고, 여기서 있는 이 사람은 지금 하늘나라에 계신 주님이 저한테 하시는 말씀을 주로 여러분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성경 자체는 같습니다. 이게 다 하나님의 말씀이고 주님의 말씀이니까 같은데, 차이가 있다면 다른 분들은 2천 년 전의 주님의 행적을 토대로 주님을 믿는 분들이고, 여기 계신 여러분은 현재 주님이 저한테 하신 말씀을 토대로 주님을 믿고 있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건축을 해 나갑니다. 일반교회에서는 교인들이 모이고 여건이 되어 어디에 교회를 어떻게 지으면 되겠다 해서 설계를 하여 건물을 짓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다릅니다. 어디에 어떻게 지을 생각도 감히 못합니다. 여건이 안 되니까. 돈이 있어야 어디에 짓든가 하지 않겠습니까? 이 용두동 성전을 처음 지었을 때, 단상의 휘장을 저는 생각도 못 했습니다. 지금 일반교회에는 이런 휘장이 없습니다. 어느 교회가 휘장을 합니까? 모세 율법 때나 했지. 이걸 제가 생각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겁니다. 성전 건물은 이렇게 짓고, 내부를 이렇게 하라고 말입니다.

우리 알곡성전도 가평 쪽으로 장소를 정해라 해서, 생전 가 보지도 않던 가평에 가서 땅을 보고 오니까 그날 저녁에 “그곳이 바로 내가 지정한 장소니 건축을 서둘러라.” 해서 제가 형에게 준비를 갖추도록 연락을 하여 시작이 된 것이 알곡성전 건설입니다.

감람나무 역사는 성서적인 사건이 아닙니까? 엄청난 역사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보다시피 시작부터 얼마나 초라합니까? 보증금 40만 원을 빌려서 한 달에 5만 원씩 세를 주고 청량리에서 시작한 겁니다. 그걸 짓밟아 버리기 위해서 40명, 50명씩 관장들이 무더기로 몰려와서 나를 죽이려고 날뛰는 가운데 시작한 게 우리 역사입니다. 너무나 초라한 겁니다. 한마디로 아이들 장난도 아니고 이게 뭐니까? 저는 당사자로서 ‘도대체 하나님의 역사가 꼭 이래야 되나?’ 하고 생각하곤 했습니다.

제가 옥중에 들어가서도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꼭 이렇게

해야만 됩니까? 앞선 감람나무도 두 번씩이나 이곳에 들어오고, 나도 여기 들어와 앉아 있으니 어찌된 겁니까?” 나는 하나님께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주를 지으신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 뭐 이러냐는 겁니다. 그때 하늘에서 위안을 주셨습니다. “참아라. 앞으로 시간이 지나면 전화위복이 된다.”

제가 안찰을 합니다. 누가 와서 안찰을 받든 나는 신경을 쓰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돌아다니면서 무슨 짓을 했는지, 어떤 범죄를 했는지, 나는 모릅니다. 또 알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사생활을 내가 무엇 때문에 간섭합니까? 그건 여러분의 자유입니다. 그 결과가 무엇인지, 저는 여러분에게 원리만 가르쳐 드리면 되는 겁니다. 나머지는 여러분이 알아서 하실 일입니다.

오늘날 제가 여러분에게 설교한 내용이 앞뒤가 맞지 않으면 여러분을 끌어가질 못합니다. 만일 제 설교에 정확성이 없으면 저는 도중하차해야 합니다. 이긴자에게 특권을 주셨기 때문에 오늘날 일이 되어 가는 겁니다. 이것 여러분이 아셔야 합니다.

기독교는 죽음을 해결하는 종교입니다. 장로님이나 권사님이 돌아가시면 잘 피어 화사하게 구원받는 모습을 보여야 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하고 시커멓게 변하고, 썩어 가고, 냄새가 난다면, 그거 은혜 받은 겁니까? 못 받은 겁니다. 훌륭한 목회자다, 장로다 하는 사람들이 초상집에 와서 기도를 하고 축복한다고 난리치고 했는데도 시체가 썩어 나간다면, 그거 효과가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다. 이건 상식적으로도 알 수 있는 겁니다. 일평생 예수를 믿

었다고 해도 자기 죄를 씻음 받지 못했다는 증거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별로 믿지도 않았던 사람의 시체에 생수를 바르는데 순식간에 변하느냐? 그게 사람의 힘입니까? 신의 힘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힘이나 능으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속4:6)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고,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는 권세가 베드로에게 주어졌는데, 이긴자는 그와 비교가 안 되는 성서적인 인물입니다. 이걸 체계적으로 알아야 합니다.

이걸 모르기 때문에 두려운 줄 모르고 살아 있는 동안에는 별 소리를 다 하는 겁니다. 죽음을 맞이해야 그때 알게 됩니다. 여러분이 정 못 믿으시면 앞으로 주의 종이 생수고 뭐고 딱 끊어 버립니다. 그때 어떻게 되나 보십시오. 시체가 썩어서 두세 시간도 함께 있지 못합니다. 제가 가진 것이 무슨 권한인가를 알아야 합니다. 우리 양떼들은 주의 종의 손길이 두세 번만 가도 영의 세계에서 버림받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얼마 전에 세상을 떠들썩하게 하던 모 수녀가 세상을 떠났을 때 전신을 묶어 놓은 걸 텔레비전에서 보셨을 겁니다. 방부제로 처리를 합니다. 그냥 놔두면 세 시간을 못 넘습니다. 금세 흐물흐물해집니다. 세계가 존경하는 사람입니다. 내가 남의 얘기를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닙니다. 답답해서 하는 말입니다. 하도 유명한 분이라 사람들이 이미 고인이 됐는데도 그 발에 가서 입을 맞추습니다. 존경의 표시로. 모르기 때문에 그만큼 존경의 대상이 되는 겁니다. 죽음을 주장하는 것이 마귀라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 Chapter 09.

# 성령의 인침에 대하여



성경에는 하나님의 신이 아닌 다른 신도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럼 왜 이렇게 신들의 이름이 많이 나오느냐? 인간이 지으심을 받기 전부터 신들이 우주에 많이 존재했기 때문입니다. 인간을 지으신 신의 이름은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그럼 다른 신을 섬기는 곳은 어떠냐? 그곳에서도 어떤 신이 됐든 자기가 주인이다, 만물을 창조했다, 혹은 땅을 주관한다, 이런 식으로 군림하려고 합니다. 그리하여 인간과 교류하는 표적을 남기려고 합니다. 즉 “너는 나를 섬기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한다.”는 표적을 남기려고 하는데, 이러한 증거를 우리는 보증이라고 말합니다.

사회에서도 “이 사람에 대해 내가 모든 책임을 지겠습니다.” 할 때 ‘보증 선다’고 말합니다. 누가 어떤 회사에 취직했을 때 그가 사고를 저지르거나 회사에 손해를 끼치게 되면 이것을 배상하여 회사에

손해가 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 보증인을 세우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도 보이지 않고, 주님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공경하고 주님을 믿고 있습니다. 이럴 때에 “너희 눈에는 내가 보이지 않고, 너희 귀에는 내 목소리가 들리지 않고, 너희 피부에는 내가 닿지 않을지라도, 내가 너에게 은혜를 베푸는 증거를 보여주겠다.” 해서 보증의 역할을 하는 것이 성령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하나님과 주님이 나와 함께하신다고 믿을 수 있게 하는 보증의 역할을 해 주시는 겁니다.

그럼 믿는 사람에게 보증으로 성령을 주실 적에 그 내용이 뭔가를 알아야 합니다. 내가 어떤 사람의 보증을 서려면 그가 잘못을 저질렀을 경우에 여기까지는 내가 책임지겠다든가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성령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을 인정하는 표적을 줍니다. 이 표적을 성서에서는 “인 친다.”고 합니다.

회사에서 내가 돈을 받았을 때 그 증거로 도장을 찍으면, 내가 책임진다는 보증이 됩니다. 이걸 인 친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김 서방에게 인을 쳤다, 박 서방에게 인을 쳤다고 하면 보증한다는 말씀이 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의 은총입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하늘나라에 가면 증거로 인을 내놓아야 합니다. 그 증거를 내놓지 못하면 인정을 받을 수 없습니다.

성경에는 이런 말이 나옵니다. “인침을 받은 자의 수를 들으니 열두 지파에 일만 이천 명씩 14만 4천이더라.”(계7:4) 하는 말이 그겁니다. 또 “그 이마에 하나님의 인을 맞지 아니한 자들만 해하라 하더라.”(계9:4)

는 말도 나옵니다. 인을 맞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를 끼치고, 인을 맞은 사람들은 손대면 안 된다는 겁니다.

성령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가장 귀한 보증수표입니다. 성령을 받았다는 것 자체가 징표입니다. 비행기를 타고 미국에 가려면 좌석권이 있어야 합니다. 그럼 그 좌석권대로 타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쫓겨날 수밖에 없습니다. 성령은 각자가 앞으로 하늘나라에 가서 앉을 좌석권과 같습니다. 영의 세계에 가면 이렇게 인침을 받은 것이 드러납니다. 기차로 부산에 갈 사람은 부산행 기차표가 있어야 하고, 대구에 갈 사람은 대구행 기차표가 있어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하늘나라에 가려면 표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인 치는 표적의 그림자로 하나님이 “너는 내 백성이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야.” 하고 표적을 남기신 것을 할례라고 했던 겁니다. 할례를 해라, 표적을 남겨라, 이겁니다. 그럼 “너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겠다.”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표적을 중요시합니다. 그래서 신약 시대에 들어와 표적을 나타내는 것이 성령의 은총입니다.

성령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주님을 우리들에게 연결시키는 표적이 됩니다. 그것은 차표나 비행기 표나 아니면 배표와 같은 겁니다. 사람이 여행을 가려면 그 표가 있어야 하는 것처럼, 하늘나라에 가려고 해도 하늘나라의 티켓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이 세상을 떠나게 되면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징표가 있습니다. 그래서 영의 세계에 가면 그 징표에 의해 여러분의 위치가 구분될

니다. 오늘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다른 보혜사 성령을 설명하기 위해서입니다.

오순절 날 마가의 다락방에 임한 성령은 예수를 믿는 분들에게 이긴자 감람나무가 나타나기 직전까지 세계적으로 내렸던 징표입니다. 그래서 언제나 색깔이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미국에 가는 비행기 표를 가진 사람은 미국밖에 못 갑니다. 일본이나 중국에는 못 갑니다. 이것처럼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임한 성령을 받은 사람은 한 명이 됐든, 백억이 됐든 가는 길이 똑같습니다. 징표가 같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요즘 한 단계 깊이 들어가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구약 시대의 하나님의 종들은 핍박을 받으면서 하나님을 증거하다가 순교했습니다. 그 종들을 따르는 백성들도 목 베임을 당하여 순교했습니다.(계20:4) 그런 고난의 대가로 하늘에서 멜기세덱의 반열에 참여할 수 있는 표시를 받은 겁니다.

이와 같이 구약 시대 사람들이 엄청난 고통과 어려움을 겪어야만 하늘나라에 가는 표를 받게 되는 것을 하나님은 항상 안타까워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번잡한 일을 번개하여 많은 백성들을 하늘나라에 바로 가게 하는 방법을 강구해야겠다고 진작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그 계획을 실천하신 것이 십자가의 사건입니다. 하나님이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서 산 제물이 되게 하신 겁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엄청난 고생 끝에 죽음을 당해야만 하늘나라에 바로 들어갈

수 있는 것을, 한 사람의 희생으로 누구나 들어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 놓는 작업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들을 지상에 보내어 십자가를 지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대속으로 말미암아 고통을 받지 않고도 하나님의 나라에 바로 갈 수 있는 길이 열린 겁니다. 이 길을 열어 놓은 분이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길ियो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늘나라에 갈 수가 없다.”(요14:6) 구약 시대에 하나님의 종들이 어려운 가운데 많은 공을 세웠으나, 그들도 예수가 대속의 제물이 되지 않으면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길이 열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때는 듣는 사람들이 무슨 말인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주님이 “내가 가는 곳에 너희는 올 수 없다.”고 말씀했을 때 베드로가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하고 물었더니, “내가 가는 곳에 지금은 너희들이 오지 못한다. 그러나 내가 가서 너희가 있을 곳을 예비한 후에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데려가려고 한다.”(요13:36, 14:3)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하늘나라로 올라가셨습니다.

주님은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내가 하늘나라로 가면 너희들에게 보낼 성령이 있다. 그것은 다른 보혜사 성령이다. 그 성령이 너희들을 진리 가운데로 인도할 터이니 내가 떠나는 것이 너희들에게 유익하다.”(요 16:7)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후 주님은 십자가를 지시고 하늘나라로 올라가셨습니다.

주님이 십자가를 지고 죽임을 당하시자 열두 제자들, 그러니까 수제자 베드로까지도 주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지 않고 다 떨어졌습니다. 그리하여 갈릴리 앞바다에 가서 기다리라는 주님의 말씀을 귓등으로 흘려버리고 무덤으로 찾아갔습니다. 주님을 따르던 사람들이 갈릴리에 다 모이면, 그들이 보는 데서 “내가 살았다.”고 한마디 던지고 하늘로 올라가시려고 했는데, 아무도 모이지 않았던 겁니다. 그렇다고 주님이 그대로 하늘에 올라가 버리면 지구상에서 예수를 믿는 사람이 하나도 없을 터이므로 ‘안 되겠구나’ 해서 주님이 하늘에 올라가지 않고 여러 차례 제자들과 또 따르던 사람들에게 나타나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부활을 증거하셨습니다.

그리하여 죽은 줄 알았던 주님이 부활했다 해서 모인 자들이 500명가량 되었습니다. 나중에 감람산에서 사도들만 모인 가운데 주님이 구름을 지나 하늘나라로 올라가신 겁니다. 이렇게 승천을 하실 때에 사람들이 신기해서 쳐다보니까 흰 옷 입은 두 천사가 “이렇게 하늘로 올라가신 예수님은 그대로 다시 오실 것이다.” 하고 말했습니다.(행1:11)

그런데 생수의 성령을 내려보내려면 이 성령을 받아서 전해 주는 이긴자가 나타나야 합니다.(요7:38-39, 계21:6-7) 이것은 진작 하나님이 정하신 뜻입니다. 그런데 이긴자 감람나무가 나타나지 않는다고 주님은 무작정 기다릴 수 없어, 구약 시대에 하나님의 종들을 통해 역사하신 성령의 은혜를 오순절에 내려보내셨던 겁니다.

지금 저는 하늘나라의 얘기를 하는 겁니다. 원리가 안 맞는다고

생각하면 여기 올 필요가 없습니다. 딴 데 가서 믿으시면 됩니다.

구약 시대의 성령의 은혜와 같은 은혜가 내리다 보니, 신약 시대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예수를 믿는 방법이 구약 시대의 방법을 따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표적과 보증 자체가 구약 시대의 것이기 때문에 가는 길이 같은 겁니다. 그래서 믿고 따르는 사람들에게 힘을 주어서 순교를 당하도록 만듭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늘나라에 바로 데려갈 수가 없습니다.

이들이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고 증거하여 기독교가 널리 퍼졌습니다. 한편 주님은 사도 요한을 불러올려 지시하십니다. “오순절에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을 받은 자들에게 빨리 알려 줘라. 너희들 가운데서 이긴자가 나와야겠다. 이긴자가 나오게 되면 내가 그를 통하여 너희들에게 약속한 은혜를 줄 수 있다.”는 겁니다. 즉 생명과 일과 생수와 새로운 말씀을 주시겠다는 겁니다.(계2:7, 21:7, 요16:13)

그럼 주님이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약속한 성령을 내려 주셔서 당시에 제자들이나 믿는 사람들이 약속한 은혜를 받았다면, 주께서 또 요한을 통해, “내가 너희들에게 약속한 생수를 받아 역사할 이긴자가 나와야 한다.”고 말씀하실 필요가 있습니까? 없는 겁니다.

여러분 중에는 “당신은 어떻게 2천 년 전 것을 그렇게 소상히 아는 거요?” 하고 반문할 사람도 있을 겁니다. 유명한 신학 박사들에게 가서 물어보십시오. 누구도 모릅니다. 2천 년 전의 주님의 사정을 어떻게 압니까? 그건 제가 여러분을 대하기 전에 주님이 저에게 가르쳐 주신 겁니다. 제가 혈혈단신으로 있을 때, “2천 년 전에 내가

이랬고, 그래서 내가 이긴자가 나타나기를 기다렸다.”고 주님이 저한테 직접 설명하신 겁니다.

2천 년 전에 주님이 제자들에게 한 약속을 이제 와서 한민족인 우리에게 보내 주신 겁니다. 그럼 그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생수의 성령을 받은 겁니다. 생수는 누구의 피의 대가입니까? 주님이 흘린 피의 대가입니다. 그러니까 그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 은혜를 짓밟아 버리면 누구의 피를 짓밟아 버리는 것이 되는 겁니까? 주님의 피를 짓밟아 버리게 되는 겁니다. 생수의 성령이 임하게 되면, 우리를 대신하여 주님이 피를 흘려 산 제물이 되셨기 때문에, 죽음을 보지 않고 순교자들처럼 바로 하늘나라에 갈 수 있는 길이 열립니다.

여러분이 세상을 떠났을 때 시체가 아름답게 변하는 것은 생수의 성령의 조화입니다. 그것이 생수를 받은 보증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늘나라에 가는 입장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 계시록에 비유로 “그 이마에 어린 양과 하나님의 인을 받았다.”(계14:1)고 쓰여 있는 겁니다. 이게 다 비유입니다. 여러분이 돌아가시면 각자 받은 표가 있습니다.

이 성령은 여러분이 믿는 주님을 대신하여 보증으로 여러분에게 인정해 주는 것입니다. 안찰이 뭐냐? 여러분이 하나님의 표적을 받는 겁니다. 그리하여 그 은혜를 간직하면 그냥 하늘나라로 가게 됩니다. 이것을 가리켜 성령으로 인 쳤다고 말하는 겁니다. 요한 계시록에 인 치기까지 바람을 일으키지 못하게 하도록 천사



에게 지시하는 말이 나옵니다.(계7:3) 그러니까 하나님이 표적을 주시는 겁니다.

오늘날 여러분이 그런가 보다 하고 주의 종을 따르고 있지만, 죽음 앞에서는 누구나 숙연해지는 겁니다. 여러분 중에 누가 세상을 떠났다고 하면, “알았어. 가서 생수로 씻어.” 하고 주의 종이 지시합니다. 미국에 있든, 일본에 있든, 어디에 있든 상관없습니다. 어느 곳이라도 여기서 조종합니다.

믿고 안 믿는 건 자유입니다. 옛날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났다가 해서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하고 알아본 사람이 있습니까? 결박하고 침 뱉고 십자가에 못 박아서 죽여 버렸습니다. 하물며 이긴자라고 알아주겠습니까? 이긴자를 알아주는 것은 영의 세계가 이루어질 때의 얘기입니다. 그러나 오늘 새벽 예배 때에도 얘기했지만, 돌아가신 분들은 알게 됩니다. 죽는 순간부터, “야, 이긴자의 축복이 이렇게 엄청난 거구나!” 하고 그때 느끼게 됩니다. 지성소로 가든, 음부로 가든, 표가 있으니까 다 나타나는 겁니다.

지금까지는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임한 성령을 주님이 약속하신 성령인 줄 알았습니다. 저도 그렇게 알고 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저도 주님의 설명을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렇다고 그게 성령이 아니냐 하면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구약 시대에 선지자들에게 주시던 성령의 은혜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십자가를 지신 피권세로 말미암은 은혜는 아닙니다.

이 생수의 성령은 이긴자가 나오지 않으면 내리지 못합니다. “이

기는 자에게는 감추었던 만나와 흰 돌을 줄 터인즉,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은 자밖에는 알 자가 없다.”(계2:17) 이긴자가 아니면 알 수 없는 겁니다. 신학자들이 이걸 짐작이나 합니까? 알 길이 없는 겁니다.

오늘날 여러분이 세상을 떠났을 때 시체가 아름답게 변화되고, 다른 교회에서 목사, 장로들이 시커멓게 썩어 가는 까닭을 알아야 합니다. 지상에서 애쓰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도 돌아가셨을 때 제가 생수 축복을 해 주지 않고, “네가 알아서 해.” 하면 썩어 갑니다. 은혜의 진액이 끊기기 때문입니다. 제가 주님으로부터 받은 축복을 전해 주어야 여러분들이 순교자처럼 아름답게 변화되어 가는 겁니다. 그게 인 치는 권세입니다. 따라서 그 권세를 가진 자가 은총을 줄 수도 있고, 거둘 수도 있는 겁니다. 세상에서 왕의 권세 앞에 누구나 절절맙니다. 그러나 이 인 치는 영적인 권세와는 감히 비교도 안 되는 겁니다.

“다른 보혜사 성령이 임하시게 되면,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책망하리라.”(요16:8) 이 권세는 눈에 보이지 않아도 대단한 겁니다. 그 이상의 권한이 어디 있겠습니까? 육적인 권한입니까? 영의 권세입니다. 다른 보혜사 성령의 놀라운 역사입니다.

이긴자는 요한 계시록의 주인공입니다. 주님이 그에게 모든 권세를 맡겨 주게 돼 있습니다.(계2:26) 그렇지 않으면 오늘날 우리 역사가 되지도 않습니다. 이것을 체계적으로 깨닫지 못하면 이긴자가 귀한 걸 모르는 겁니다. 여러분은 원리적으로 알아야 합니다.

생수의 성령은 앞선 역사에서 주님이 처음으로 주셨던 은혜입니다. 그러니 주님께서 얼마나 기대를 하고 계셨겠습니까? 그런데 그 은혜가 백지화되다시피 하니 하늘에서는 난감한 겁니다. 그 은혜를 받고 명령되게 움직인 자들이 지금 많이 죽어 가고 있습니다. 영의 세계에 가면 다 나타납니다.

옛날 이사야가 예언한 대로,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의 산을 넘나드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사52:7) 주님이 산에서 설교하실 광경을 내다보고 이사야가 예언한 겁니다. 주님이 이 예언의 말씀대로 산에서 설교를 하셨습니다. 주님의 설교를 듣고자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 때 하나님이 그 발을 아름답게 보셨습니다.

오늘날 하나님이 지정해 주셔서 이렇게 이루어진 이 알곡성전, 이곳에 예배드리러 오는 여러분의 발걸음은 더욱 아름다운 겁니다. 여러분은 주의 보혈의 은총 속에서 찬양을 드리는 분들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구원받아 가는 표가 나지 않습니까? 사람이 죽으면 아름답게 변합니다. 이런 모든 것은 보혜사 성령이 하시는 겁니다.

## Chapter 10.

# 지옥은 어디 있는가?



역사적으로 기독교 신자들은 예수를 믿으면 천당에 간다는 소망을 갖고 신앙을 지키고 있습니다. 특히 주님의 부활을 믿고 막연하나마 영의 세계에서 다시 살기를 바라는 겁니다. 그러나 영의 세계를 눈으로 본 것도 아니고 손으로 만진 것도 아닙니다. 다만 많은 사람들이 우선 성령의 은혜를 받아 영의 존재를 느껴왔던 겁니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는 다행스럽게도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 안에 동참하여 새로운 복음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움직임을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지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큰 은총을 받으면서 주님의 지시를 하나하나 이루어 나갈 때에 고달픔도 따르게 마련이지만, 한편 보람도 느끼게 됩니다.

옛날 선지 성인들도 하나님의 지시에 따라 움직일 때 생명의 위협을 느끼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내세에 소망을 두었기 때문에 참

고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때로는 죽음도 기꺼이 맞이하여 순교자의 대열에 참여하기도 했습니다. 이때 성령은 목숨을 바치게끔 마음에 감동을 주고 용기를 주었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의 은총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목 베임을 받았습니다.

순교자들이 하늘나라에 가서 영적인 총사령관인 주님을 대할 때에 “대주재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언제 심판하여 우리 피를 신원해 주시겠습니까?”(계6:10) 하고 아뢰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좀 참아라. 너희들과 같은 자들의 그 수가 차야 된다.”(계6:11)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수는 말할 필요도 없이 인 맞은 14만 4천을 뜻하는 겁니다.(계 7:4)

주께서는 승리하여 일곱 인으로 봉한 책을 떼신 다음에 십자가의 군병, 14만 4천의 필요성을 아시게 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목숨을 버리기까지 충성한 생명체들을 주님이 하나님으로부터 인수하여 그들과 대화를 나누실 때 “너희들과 같은 수가 차기를 기다려라.” 하고 말씀하셨던 겁니다. 그들 중에는 주님이 이 땅에 오실 것을 예언한 선지자들과 믿음이 독실하여 순교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하늘나라에 가서, 파란만장한 하나님의 역사 속에 주의 피로 구속을 얻어 그곳에 참여하게 되는 감회는 참으로 엄청난 겁니다.

한편 멸망을 받는 광경은 이와 정반대입니다. 흔히 ‘지옥, 지옥’ 하지만 이 지옥은 악령을 벌하는 곳인데, 그 세계를 모를 때에는 저부터도 이 지옥이 마귀가 다스리는 곳인 줄 알았습니다. 유명한

화가들이 그린 성화에도 그렇게 그려져 있고, 대문호의 시나 소설에도 그렇게 묘사되어 있습니다.

사후 세계는 우리에게 큰 관심의 대상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삶과 죽음을 다룬 예술 작품에 누구나 흥미를 갖는 겁니다. 인간은 죽음 앞에서는 용사도 겁쟁이도 없고, 선한 자도 악한 자도 없습니다. 죽은 자는 말이 없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우리 눈에 비친 얘기입니다. 그런데 죽음 자체는 인간이 생각하는 것과는 다릅니다. 어떤 사람이 머리가 터져서 죽은 것을 보면 우리는 ‘아이고, 되게 비참하게 죽었구나.’ 하고 눈살을 찌푸립니다. 그러나 신은 인간에게 그렇게 가혹하지 않습니다. 인간이 죽으면 고통이 없습니다. 오히려 편안합니다. 잠이 스르르 드는 것처럼, 당사자는 그렇게 최후를 마치게 됩니다.

그런데 죽은 다음이 문제입니다. 죽은 다음에는 누구나 영의 세계에 가게 되어 있습니다. 영의 세계는 그것이 천국이 됐든, 지옥이 됐든, 우리가 갖고 있는 감각의 몇 백 배의 느낌을 줍니다. 그러나 그걸 모르고 많은 사람들이 자기 멋대로 살고 있습니다.

오늘날 주의 종이 영의 세계에 대한 가르침을 받고 나서 비로소 천국이 무엇이고, 음부가 무엇이고, 지옥이 무엇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죽으면 빛의 세계와 어둠의 세계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계신 곳은 빛만 있습니다. 빛이 어둠을 이기면 어둠의 세계를 하나님이 지배하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마귀가 하나님의 슬하에 들어오게 되는 겁니다. 이때 빛이 어

둠을 삼킨 바가 됩니다. 전에는 어둠이 빛을 삼키고 있었지만,<sup>(요1:5 참조)</sup> 빛, 곧 주께서 어둠을 이겼기 때문에<sup>(요16:33)</sup> 빛이 어둠을 물리친 겁니다.

빛을 주관하는 신과 어둠을 주관하는 신이 갈라져 있기 때문에, 빛에 속하는 사람들과 어둠에 속하는 사람들이 전쟁을 해서 빛이 이기는 장면이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하여 빛의 세력이 어둠의 세력을 실제로 완전히 물리치면, 하나님께서 양쪽을 다 지배하게 됩니다. 빛의 세계에 속한 사람들은 구속을 얻게 될 사람들이고, 어둠의 세계에 속한 사람들은 형벌을 받게 될 사람들입니다.

지금은 음부와 천국이 갈라져 있는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면 빛의 세계와 어둠의 세계, 즉 천국과 음부도 하나님이 통치하시니까 같이 있게 됩니다.<sup>(눅16:22-23참조)</sup> 어둠의 세계에 속하는 사람들은 어둠에 적응하게 되어 빛의 세계에서는 살 수 없습니다. 또 빛의 세계에 속하는 사람들은 빛에 적응하게 되어 어둠의 세계에서 살 수 없습니다. 그러나 만유를 회복하시면 하나님께서 빛과 어둠을 동시에 주관하시게 되니까 빛의 세계와 어둠의 세계가 같이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그 세계가 얼마나 어마어마하겠습니까? 빛의 세계에 사는 사람들이 어둠의 세계를 보고, 어둠의 세계에서 고통을 받고 있는 자들이 빛의 세계의 복락을 바라보게 되는 겁니다.<sup>(눅16:22-24 참조)</sup> 이때 고통과 기쁨은 완전히 갈라지게 됩니다.

지상에서 우리는 고통도 당하고 기쁨도 맛보면서 살아갑니다. 영의 세계는 그렇지 않습니다. 기쁨을 맛보는 사람은 기쁨만 느끼게 되고, 고통을 당하는 사람은 고통만 느끼게 됩니다. 그리하여 기쁨을 느끼는 사람은 고통을 당하는 사람을 바라보면서 자기의 행복을 만끽하고, 고통을 당하는 자들은 기쁨을 누리는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고통을 당하니깐 그 고통이 훨씬 더 큼니다. 그러니까 극과 극을 달립니다. 고통을 당하는 사람들은 말도 못하게 고통스럽고, 기쁨을 누리는 사람들은 영원한 복락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이처럼 영의 세계는 빛에 속한 사람들과 어둠에 속한 자들이 함께 존재합니다. 그러니 심판대 앞에서 어둠의 세계로 가는 판결을 받게 되면 얼마나 기가 막히겠습니까? 반대로 빛의 세계에 가는 판결을 받게 되면 그 기쁨은 상상을 초월하는 겁니다. 이처럼 빛과 어둠의 세계를 갈라놓는 것을 ‘최후의 심판’이라고 합니다.

여러분이 저를 따르다가 세상을 떠나면 성령과 악령이 시체를 놓고 싸웁니다. 그래서 주의 종이 생수로 축복하여 아름답게 피어 가게 합니다. 여러분이 돌아가시면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돌아가신 다음에도 주의 종은 그 생명체에 대해 신경을 써야 하는 겁니다.

아담, 하와가 범죄한 후로 세상은 어둠에 속해 있습니다. 이 어둠의 세상에서 생명체들을 빛으로 인도하기 위해 주의 종 하나가 몸부림을 치고 있습니다. 그 빛이 저를 거치지 않아도 올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주의 종을 따르다가 떨어지면 다른 교회에



가도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지금은 그런 시대가 아닙니다. 그래서 주의 종은 걱정이 떠나지 않습니다.

우리 역사에 동참한 여러분이 저를 만나면 그 순간부터 여러분의 생명체가 주님 앞에 갈 때까지 제가 여러분을 영적으로 관리해야 합니다. 한 생명이라도, 십자가의 군병을 만들어 달라는 주님의 요구에 따라 움직이는 역사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수가 적은 게 아닙니다. 만들기가 결코 쉽지 않습니다. 몇 백만 명이 저에게 와도 만들어지지 않으면 소용이 없는 겁니다. 한두 사람이 와도 그들이 만들어지면 그게 가치가 있는 겁니다.

모세가 애굽의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할 때 20세 이상의 장정만 60만 명이었습니다. 여러분, 60만 명이면 적은 수가 아닙니다. 우리나라는 육해공군과 해병대까지 합쳐서 60만이라고 합니다. 엄청난 수입입니다. 그러나 정작 가나안 땅에 들어간 자격자는 그중에 단 두 명이었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만 들어갔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목표로 하신 것이 이루어지기가 얼마나 힘들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길러 내는 것은 보통 힘든 것이 아닙니다. 저는 당사자로서 여러분과 25년 동안을 쫓 이렇게 살아왔습니다. 여러분 중에 누가 세상을 떠났을 때 ‘아, 이 사람을 내가 길러 냈구나!’ 하기까지 여간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엄청나게 어렵습니다. 에덴성회에 모인 양떼의 수가 얼마다 하는 것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제가 위에서 주시는 은혜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군병을 배출시켜야 하는 겁니

다.

그래서 제가 연세 많은 장로님들이나 권사님들에게 항상 당부하는 겁니다. “이제부터 마음의 준비를 하십시오. 그래야 돌아가셨을 때 그 나라에 가게 해 드릴 수 있습니다.” 당사자 혼자서는 안 됩니다. 제가 뒷수습을 해야 합니다.

과거에 예수님이 이렇게 하셨다, 사도들이 이랬다, 그건 그 시대의 얘기입니다. 지금은 감람나무 시대입니다. 제가 무엇 때문에 평생을 고생하면서 삽니까? 다른 것이 없습니다. 오로지 주의 뜻을 이루어 드리려는 일편단심에서입니다. 주의 뜻을 이루어 드리면 저는 저대로 영의 세계에서 그에 걸맞은 대접을 받게 됩니다. 저는 이것을 바라고 있습니다. 이걸 쟁취해야 하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끌어 가는 나와 따르는 여러분 사이에 호흡이 맞아야 합니다.

생수 축복을 하고 안찰을 하지만, 솔직히 말해서 제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위에서 시키시니까 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저를 잘 압니다. 무슨 체를 하는 사람도 아니고, 있는 그대로 살아갑니다. 제가 설교를 하면 이슬이 옵니다. 하나님께 제가 “주십시오.” 하고 기도해서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감람나무이기 때문에 하늘에서는 의무적으로 주시는 겁니다. 생수 축복을 할 때, “이 물이 생수가 되게 해 주십시오!” 이렇다고 생수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축복하면 하늘에서 해 주시게 돼 있는 겁니다. 이 때 천사들이 움직입니다.

악령들이 날뛰며 방해 공작을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천사들이 바쁘게 움직입니다. 그럼 그때 주께서 내려다보시고 지시하십니다. 저는 그걸 압니다. 저에게 신호가 오기 때문입니다. 느낌이 오고 이상 중에 나타납니다. 그러면 저는 저대로 거기에 따라 움직입니다. 이진 순전히 전쟁입니다. 일평생 그런 겁니다.

주의 종을 괴롭히려고 마귀가 쳐들어오면, 곧 천사의 보고가 올라갑니다. “주의 종이 이렇게 코너에 몰렸습니다.”, “원인이 뭐냐?”, “이러저러해서 그렇습니다.” 하면 주님이 곧 조치를 취하십니다. 그럼 그게 저한테 옵니다. 오늘날 하나님의 역사가 이렇게 움직여지는 겁니다.

A라는 사람이 돌아가셨다면 주의 종이 생수통 앞에서 “저를 이렇게 따르던 사람이니 여기 대한 은총을 내려 주십시오!” 하면 성령의 은혜가 짝 들어갑니다. 그것이 번개보다 백만 배 빠르게 움직이는 겁니다. 알고 보면 무서운 겁니다.

여러분, 밖에 나가 하늘을 보십시오. 그럼 하늘이 파랗습니다. 이상 중에 보면 파란 하늘에 구멍이 납니다. 이때 하늘에서 무지개 색으로 빛이 내려와 알곡성전 입구에 와 닿으면서 말씀이 내려오는 겁니다. “내 나라로 들어올 백성들이 이 성전 안에서 익어야 한다.” 여러분에게 누차 말씀드렸습니다.

이처럼 살아 움직이는 역사 속에 우리가 믿음을 키워 나가지만, 워낙 어둠의 세력이 강하여 이긴자의 움직임을 가로막아 여러분에게 가는 혜택이 제약을 받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열 개 중에 한

두 개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만큼 힘든 겁니다. 전쟁이란 바로 이런 겁니다.

오늘날 사랑하는 여러분을 한 생명, 한 생명, 차곡차곡 영의 세계에 들여보내야 하는 것이 이긴자의 역할이므로, 하나님께서 알곡성전을 지시하시고 감람나무 역사를 다시 일으키시는 겁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것을 중간에서 직접 체험하여 느끼고 있습니다.

오늘날 주의 종이 처음에 하나님의 지시를 받고 나와서 여러분을 오늘날까지 이끌어 가면서 감람나무 역사를 체계화시키고 있습니다. 하늘에서는 이처럼 그 체계를 심는 것을 대단히 중요시합니다. 체계가 서야 하나님이 저에게 지시하신 내용을, 여러분이 받아들이는 것을 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체계가 서지 않으면 하나님이 아무리 저에게 지시하셔도 여러분이 제 말을 듣지 않습니다. 그래서 “강권하지 마라.” 하시는 겁니다. 저는 그저 전하기만 합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이 이렇다고 말입니다. 그래도 오늘날 우리 역사가 되어 나갑니다. 하나님이 이걸 다 보십니다.

요즘 우리 역사가 많이 정리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저에게 자주 보여주시지 않습니다. 그만큼 하늘에서 염려를 덜 하시는 겁니다. 한참 염려하실 땐 사흘돌이로 보여주셨습니다. 제가 약해질까 봐 용기를 주셨습니다. 요즘은 어느 정도 기반이 닦여, 큰 거나 비취 주십니다.

제가 항상 걱정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너를 따르는 양떼 중에서 이런 자들은 못마땅한 존재들이니까 멀리해라.” 하고 보여주시는 겁니다. 이럴 때가 주의 종은 제일 괴롭습니다. 그런 경우가 여러 차례 있었습니다. 이럴 경우에 대체로 “제가 담당할 테니까 제게 맡겨 주십시오!” 하고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저를 따르던 많은 분들이 나이가 들어갑니다. 저희 어머니부터 시작해서 여생이 얼마 남지 않은 분이 많습니다. 세상을 떠날 때 모든 게 끝이라면 간단합니다. 그런데 그게 아닙니다. 죽음이 바로 시작입니다. 육이 세상을 떠나면서부터 영의 세계가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컴퓨터에 수십만 가지를 기억하는 장치가 있어서 별일 다 합니다. 핸드폰 하나 들고 다니면서 전 세계와 통화합니다. 디지털인지 뭔지 해서, 그거 누르면 별 게 다 나옵니다. 사람이 만든 것도 그런데, 하나님이 지으신 영의 세계는 엄청납니다.

여러분이 세상을 떠나시면 그 세계를 보게 됩니다. 세마포를 입고 가시는 분들은 주님을 만나게 되고, 또 거기에 이미 가 있는 순교자들과도 얘기를 나누게 됩니다. 그들은 화려한 형상을 입고 있는 생명체들입니다.

여러분이 살아 계시는 동안에는 남편이 제일이고, 아내가 제일이고, 자식이 제일입니다. 그런데 영의 세계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루어진 정도에 따라 남편이 가는 곳이 따로 있고, 아내가 가는 곳이 따로 있습니다. 믿는 남편과 믿지 않는 아내가 같이 갈 수는 없

는 겁니다. 영이 이루어지는 정도에 따라서 새로운 가족이 형성됩니다. 영의 세계는 지상에서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그런 가족 관계보다 몇 백 배 가까운 겁니다.

멜기세덱의 반열에 참여하는 자들은 참으로 복이 있습니다. 주님과 가깝다고 해서 이들을 ‘아내’라고 합니다. 지상에서 부부가 제일 가깝지 않습니까? 어린 양의 아내는 마누라를 뜻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가까운 곳에서 사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주님과 가까이 사는 생명체라면 얼마나 큰 복입니까? 그걸 반열이라고 합니다. 이들은 어린 양의 생명책에 이름이 녹명된 자들입니다.(계 21:27)

## Chapter 11.

# 군대마귀와 무저갱



“예수께서 네 이름이 무엇이냐 물으시니, 가로되 군대라 하니, 이는 많은 귀신들이 들렸음이라. 무저갱으로 들어가라 하지 마시기를 간구하더니, 마침 거기 많은 돼지 떼가 산에서 먹고 있는지라, 귀신들이 그 돼지에게로 들어가게 허락하심을 간구하니, 이에 허락하신 대로 귀신들이 그 사람에게서 나와 돼지에게로 들어가니, 그 떼가 비탈로 내리달려서 호수에 들어가 몰사하니라.” 누가복음 8장 30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는 영의 세계의 한 단면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알아야겠습니다. 이 말씀은 많은 분들이 증거하는 말씀 중의 하나입니다.

한 사람에게 어떻게 많은 귀신이 들어갈 수 있습니까? 인간은 영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여러 모로 얘기를 해 봤자 실감이 나지 않습니다. 지금 여러분에게 읽어 드린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은 주로 능력을 행하여 사람들을 끌어모으신 후에 조용히 말씀을 전

하셨습니다. 그래서 측근들이 주로 말씀을 많이 들었습니다. 오늘 날처럼 한 번 설교를 하면 녹음테이프로 다시 들을 수 있는 시대가 아니므로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그분에게서 워낙 능력이 크게 나타나니까 많은 사람들은 찬사를 아끼지 않았던 겁니다.

주께서 어느 고을을 지나가실 때에 미친 사람이 하나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주님하고 마주쳤을 때 주님은 그에게 악령이 들어가 장난하는 것을 아시고 “너는 그 사람 속에서 나오너라!” 하고 꾸짖었습니다.

최후의 만찬에서 주님이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마 26:21) 하고 말씀하셨을 때 주님의 옆에 있던 사도 요한이 귓속말로 “누가 주님을 파는 자입니까?” 하고 물었더니 “내가 떡을 떼어서 주는 자가 바로 그니라.” 이렇게 주님이 귓속말로 알려 주시고 떡을 떼어 가롯 유다에게 주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할 일을 하여라.” 이때 우리가 듣기에는 주님이 가롯 유다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생각되지만, 사실은 주님이 가롯 유다에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 가롯 유다를 조종하는 마귀에게 말씀하신 겁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주님은 미치광이에게 들어간 악령에게 “너 그 사람 속에서 나가라!” 하고 꾸짖었습니다. 그러자 그 마귀는 소리를 질렀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 하고 마귀가 그 미치광이의 입을 통해서 말하는 겁니다. “네 이름이 무엇이냐?” 하고 주님이 마귀에게 물었습니다. 이때 일반 사람 같으면 “나는 김 아무개입니다.”, “박 아



무개입니다.” 하고 자기 이름을 덜 텐데, 이 미치광이는 자기 이름을 대지 않고 성경에 기록한 대로 ‘군대’라고 대답했습니다. 이게 사람의 이름입니까? 사람의 이름이 아닙니다.

그럼 주님이 그 미치광이와 대화하신 겁니까, 마귀와 대화하신 겁니까? 그 미치광이 속에 들어간 마귀에게 물은 겁니다. 그러자 마귀는 미치광이의 입을 통해 대답했습니다. “나는 군대라.” 그러자 이 군대마귀는 평범한 귀신이 아닙니다. 전쟁에서 나온 귀신입니다. 이 군대마귀는 상대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알고 “당신이나 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우리를 해치지 마십시오.” 하고 주님에게 통사정을 합니다.

군대마귀, 즉 많은 귀신이 한 사람 속에 들어간 겁니다. 이 마귀는 신이니까 나사렛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압니다. 마귀는 무저갱에 들어가는 것을 제일 무서워합니다. 그래서 제발 무저갱으로 들어가지 않게 해 달라고 통사정을 했습니다. 이 ‘군대’는 마귀를 위해 싸우는 줄개들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전쟁하는 줄병들입니다.

이들은 무저갱이 자기들의 종점인 것을 잘 압니다. 그런데 이 군대마귀는 하나님의 아들이 자기들을 무저갱에 처넣을 수 있는 권세가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통사정을 하는 겁니다. 마귀의 세계는 격차가 엄청납니다. 이 군대마귀는 장기의 ‘줄’과 같아 제일 먼저 잡힙니다. 줄개이기 때문입니다. 이 무리가 한 사람한테 집단으로 들어간 겁니다.

비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누군가에게 열 명의 군대마귀가 들

어갔다고 칩시다. 그런데 주의 종이 안찰하여 그 군대마귀들을 쫓아냈다면, 이놈들은 도망가서 다른 데로 들어가야 합니다. 그러므로 자기들이 들어갈 장소를 빨리 찾아야 합니다. 이 경우에 군대마귀들은 다시 한꺼번에 들어갈 한 사람이 있다면 그리로 다 들어가겠는데, 그가 완강히 거부하면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런데 백 명의 사람 중에 열 사람에게 하나씩 들어갈 수 있다면, 마귀는 열 사람에게 각자 들어가 버립니다. 그러나 백 명 중에 아흔 아홉 명은 들어갈 자리가 없고 한 명만 들어갈 자리가 있다면, 이 열 마리는 그 한 사람에게 집단적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때 이 사람의 광기는 한 마리가 들어왔을 때와는 전혀 다릅니다. 즉 광기가 열 곱절 더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미쳐도 되게 미치게 됩니다. 워낙 수가 많이 들어가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안찰을 받으실 때, 눈에는 안 보여도 이 악령의 세력이 강하여 한꺼번에 작살낼 경우에는 그 싸움이 치열합니다. 강하게 지지고 묶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까무러치는 겁니다. 만일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여러분 중에 거역하는 사람이 있다고 칩시다. 주의 종이 안찰하여 그 사람 속에 있는 세 마리의 악령을 쫓아냈다 이겁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들은 다 체계가 서서 괜찮은데, 여러분 중에 세 명이 시원찮다고 합시다. 이 경우에 세 마리의 마귀는 나가서 그 시원치 않은 세 명에게 들어가 버립니다. 이렇게 되면 마귀가 쫓겨난 사람은 괜찮은데, 그 세 사람은 전에 거역한 사람의 삼분의 일을 각각 맡아서 역사하게 됩니다.

이게 악령의 장난입니다. 자기에게 악령이 들어와 있는 것을 본인은 모르고, 마귀가 시키는 대로 움직이는 겁니다. 기가 막히는 겁니다. 저는 그걸 이상 중에 여러 차례 봐서 잘 압니다. 주님이 보여주시는 겁니다.

이 군대마귀가 “무저갱에 들어가게 하지 말아 주십시오!” 했다면, 무저갱은 어디에 있는 걸까요? 여러분, 마귀는 하나님의 적입니다. 하나님의 적이 가장 싫어하는 장소라면 마귀 편에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편에 있는 겁니다. 이것부터 아셔야 합니다. 그래야 무저갱이 뭔가를 알게 됩니다. 무저갱을 설명하고자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근원을 얘기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요한 계시록만 가지고 얘기를 하면 저한테 또 비판적인 말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저는 주님을 앞세워야 합니다. 그래야 세상 사람들이 낄소리를 못합니다.

이건 마귀가 주님에게 하는 말입니다. 사람과 사람끼리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주님이 악령과 대화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마귀가 하나님의 아들과 나누는 대화입니다. 영적인 얘기입니다. 군대마귀가 하나님의 아들에게 “무저갱으로 들어가는 것을 면케 해 주십시오” 하고 간구했다면, 군대마귀는 가장 두려워하는 장소가 어디라는 것이 입증이 됩니다. 그것이 무저갱이라는 것이 입증되었습니다. 그럼 이 무저갱은 하나님의 적을 가두어 두든, 묶어 두든, 처넣든 간에 그들에게 두려운 장소입니다.

그럼 그 무저갱은 누구 때문에 존재하는 장소입니까? 마귀 때

문에 있는 장소입니다. 세상에서 죄지은 사람이 가장 두려워하는 장소가 어디입니까? 형무소입니다. 그곳에 들어간 다음에 사형을 받든, 무기 징역을 받든 결정 납니다.

마귀는 하나님의 아들에게 “우리를 무저갱에 처넣지 말아 주십시오.” 하고 간청합니다. 그러니까 무저갱이 마귀에게 공포의 대상이라는 것을 스스로 밝힌 겁니다. 마귀가 이렇게 말할 때 많은 돼지 떼가 산에서 먹고 있어, 주님은 군대마귀를 그 돼지 떼에게 들어가게 했습니다. 참으로 재수가 없는 돼지들입니다.

주님이 무화과나무 옆을 지나가시다가 출출하여 “무화과나무 열매나 좀 따먹어야겠다.” 하고 보니까 열매가 열리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지나가는 말씀으로 “이제부터 영원토록 너는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마21:19)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무화과나무는 이튿날 말라죽어 버렸습니다. 주님에게는 천사들이 동행합니다. 주께서 못마땅하게 여기시니까 그 천사들이 처치해 버린 겁니다. 그래서 말라죽었습니다. 무서운 얘기입니다.

군대마귀가 주님에게 무저갱에 보내지 말아 달라고 애걸할 때 하필이면 돼지들이 눈에 띈 겁니다. 만일 돼지가 아니고 염소였으면 염소가 작살났을 겁니다. 군대마귀가 미치광이에게서 쫓겨나면 거할 장소가 있어야 할 게 아닙니까? 그래서 돼지 떼에게 들어간 겁니다. 이때 군대마귀는 기분이 좋을 리가 없습니다. 사람에게 들어가는 게 돼지 떼에게 들어가니 환장할 노릇입니다. 게다가 한꺼번에 들어가 있다가 흩어져서 각각 들어가니까 핏대가 날

대로 난 겁니다. 그래서 돼지 떼에게 들어가 발광을 일으켜 호수로 들어가서 빠져 죽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돼지 떼가 물귀신이 되어 버린 겁니다. 마귀들이 이렇게 장난을 칩니다.

여러분은 주의 종을 통해서 마귀에 대해 자주 들으니까 어느 정도 실감이 나겠지만, 마귀는 눈에 보이지 않아도 실제로 그렇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전에 우리 제단에 나오던 어떤 학생이, TV에서 보니까 무당이 돼서 나왔습니다. 어느 날 그 학생의 머리 매무새가 눈에 거슬리기 시작하고 고치라고 했더니, 그게 마음에 걸렸던지 다음부터 제단에 안 나왔습니다. 아무튼 주의 종은 말도 함부로 못합니다. 그러더니 그만 무당이 되어 버렸습니다. 저한테 와서 간혹 안찰을 받을 때에는 악령이 들어가지 못하고 있다가, 나오지 않으니까 무당 신이 들어가 버린 겁니다. 그만큼 마귀는 정확하게 틈을 탐니다. 내가 그 학생의 집안이 무당 신을 섬기는 줄 알았더라면 철저히 단속했을 텐데, 그걸 몰랐습니다.

산과 들에서 열매와 뿌리를 먹던 돼지가 갑자기 호수로 뛰어가 빠져 죽을 경우에 마귀가 장난하는 겁니다. 이때 돼지는 어쩔 수가 없습니다. 발이 저절로 갑니다. 제 땀에는 안 가려고 해도 저절로 뛰어가서 빠져 죽는 겁니다. 동물의 왕국 같은 데 보면 쥐 떼가 집단 자살하는 광경이 나옵니다. 과학자들이 아무리 연구해도 그 원인을 모르답니다. 그게 다 신의 장난입니다.

앞에서 한 사람 속에 많은 악령이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보았

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하고 여러분은 생각할 겁니다. 여러분 속에는 혼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령이 됐든 악령이 됐든 그 신은 우리가 상상을 초월하는 엄청난 수가 작용합니다. 여러분의 핏속에는 수백만, 수천만 가지의 형상이 있습니다. 그 형상이 뭐냐? 여러분의 조상이 어둠 속에서 일생을 살아온 흔적이 후손들에게 연결되면서 핏속에 그 형상들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리하여 그 수백만, 수천만 가지의 형상 속에 신이 각각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마귀는 그 사람 속에 들어가려고 들면 천 마리, 만 마리도 들어갈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분명히 미치광이 한 사람 속에 많은 군대마귀가 들어갔습니다. 그 사람 속에서 나온 마귀들이 돼지 떼한테 들어가자 그 돼지 떼들이 가기 싫어도 뛰어가서 뉘쳐 버리는 장면이 지금 나왔습니다. 성경에 나온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 역사의 실질적인 면을 얘기해 보자 이겁니다.

안찰이 뭐가? 만약에 조상으로부터 대대손손이 내려오는 원죄와 유전죄가 셀 수도 없는 갖가지의 형상으로 여러분의 핏속에 들어 있다면, 그 많은 수만큼 여러분 속에 악령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안찰을 받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안찰을 받는 순간에 백만 개의 형상 중에서 90만 개가 다 녹아 없어져 버리고 10만 개가 남았다면, 아무리 마귀가 그 사람에게 들어가 강하게 점령하려고 해도 얼마나 들어갈 수 있습니까? 10만 개밖에 못 들어갑니다. 지금 제가 마귀의 거처에 대해 설명 드리는 겁니다.

마귀는 자기가 거할 집이 없이는 못 들어갑니다.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한 번 의롭게 된 자가 더럽혀진 다음에는 더 악한 귀신 일곱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니라.” (마12:45)

그렇다면 성령이 그 사람에게 들어가려면 핏속의 그 많은 형상들이 그대로 있어야 합니까? 없어야 합니다. 그래서 악령이 들어갈 수 있는 형상이 적을수록 성령이 들어가기가 유리해지는 겁니다. 성령이 그 사람에게 많이 거하면 그만큼 빛이 강해지고, 악령이 그 사람에게 많이 거하면 그만큼 어둠이 짙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대로 여러분 속에 빛이 밝아지기를 바라는 거고, 마귀는 마귀대로 여러분 속에 어둠이 짙어지기를 바라는 겁니다. 따라서 싸움이 자동적으로 일어나게 됩니다. 이렇게 성령과 악령은 끊임없이 싸우는 겁니다.

한 사람 속에서 쫓겨난 마귀는 다른 사람에게 들어가려 하므로, 이루어진 사람이 많아질수록 그 이루어진 사람 속에 있던 악령이 나가서 다른 사람 속에 들어가게 되니, 그 다른 사람은 악령이 늘어납니다. 그 사람이 더 악해집니다. 하나님의 조건이 유리해질수록, 즉 많은 사람이 거룩해질수록 세상과 짝한 사람은 더욱 악하게 됩니다. 악한 사람이 더욱 많은 악령을 받아들리게 되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성령의 역사가 강해져서 의로운 사람이 많이 배출될수록 지구상에는 악한 사람이 많이 생겨나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 눈에는 안 보여도, 그게 바로 악령의 장난입니다.

주의 종이 어떤 사람에게 처음으로 안찰을 합니다. 그런데 본인은 몰라도 조상으로부터 연결된 갖가지 험상궂은 형상이 혈액 속에 있다면, 그것을 퇴치시키고자 3초, 4초 동안 생수가 주입됩니다. 우리에게는 3초, 4초는 별거 아니라도, 영의 시간으로는 엄청난 겁니다. 영들은 번개보다 더 빠르게 움직이기 때문입니다. 이때 엄청난 싸움이 일어납니다. 그 영들은 아까 얘기한 대로 우리의 핏속에 있으므로 피를 돌게 하는 심장에 변화가 오게 되니까 어지럽고 울렁거리기도 하고 눈이 뒤통수로 빠지는 것 같은 여러 가지 작용이 일어나게 됩니다.

주의 종도 육을 가졌으니까 신과 신의 충돌로 해서 손이 시퍼렇게 죽어 들어갑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이루어지면 그만큼 쉽습니다. 이미 축복 받은 사람 백 명에게 안찰하는 것보다 처음 온 사람 열 명에게 안찰하는 것이 더 피곤합니다. 주의 종이 안찰을 할 때 성령이 쉽게 연결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연결이 잘 안 되고 계속 부딪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때에는 주의 종이 굉장히 피곤합니다. 하늘에서 벌써 아십니다. 주의 종은 손만 갖다 대지만 성령은 신이기 때문에 그걸 즉시즉시 파악합니다. 그것이 안찰입니다.

생수를 송장에 바르면 굳었던 게 피어나고, 찌그러졌던 얼굴이 펴지고, 혈색이 달라지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악령과 성령이 보이지 않는 싸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걸 우리가 육적으로는 도저히 상상이 안 가는 놀라운 얘기들입니다.

그럼 이제 한 사람 속에는 많은 영들이, 성령이 됐든, 악령이 됐



든,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이제 알았습니다. 만약에 주의 종을 따르다가 떨어졌다고 칩시다. 처음에는 괜찮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마귀가 봅니다. 이걸 데리고 역사를 좀 해야겠다고 할 때에는 총력을 기울여서 그 사람에게 들어갑니다. 그러면 폭발적인 역사꾸러기가 되어 버립니다. 그에게 엄청난 양의 마귀가 들어가 장난질을 하는 겁니다. 영의 역사는 이렇게 무서운 겁니다. 사도 중 하나인 가롯 유다에게 주님을 은 30냥에 팔게 할 정도로 마귀가 장난했다면 어마어마한 겁니다. “네 할 일을 하여라.” 그리하여 주님은 적의 손에 잡혀갑니다. 그가 제 정신을 차렸을 때는 이미 늦었습니다. 그는 후회하고 괴로워서 자살을 합니다.(마27:5) 마귀는 이렇게 무서운 겁니다.

마귀가 들어갈 수 있는 최고의 여건은 뭐냐? 원망, 불평입니다. 원망, 불평 속에서 마귀가 들어갈 길이 열립니다. 그리하여 일단 들어가면 그 사람을 뒤집기 시작합니다. 섭섭하고 의심하고 원망이 생기면 마귀에게 틈탈 기회를 제공하게 되는 겁니다.

마귀에게 고통을 주는 지옥이 하나님의 세계에 있고, 구속받은 사람이 들어간 장소도 하나님의 세계에 있다면, 서로 보게 됩니다. 그래서 고통당하는 자는 영화를 누리는 자를 평생 보면서 고통 받고, 영화를 누리는 자는 고통당하는 자를 평생 보면서 행복을 느끼고 하나님께 더욱 감사하게 됩니다. “나도 저렇게 될 뻔했는데, 오늘날 이렇게 건짐을 받았구나.” 하고 감격의 눈물을 흘리게 되는 겁니다.

## Chapter 12.

# 최후의 심판에 대하여



영과 육의 갈림길에서 육이 죽으면 영의 세계가 시작됩니다. 그러나 육이 살아 있는 동안에는 영의 세계가 너무나 아득한 느낌을 줍니다. 성경에는 인간이 살아 있는 동안에 체험하는 하나님의 신비한 역사에 대해 기록되어 있지만, 죽은 다음에 전개되는 세계에 대하여는 대부분 가려져 있습니다. 아담, 하와가 따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따먹고 쫓겨나 살아가는 세계에서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죽어서 다시 맞는 세계는 육의 세계가 아니고 새 생명의 세계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를 육의 세계라고 본다면, 영계는 영의 세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영계에서의 생명체와 지구에서의 생명체는 비교가 안 되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낮고 천한 인간들과 교류하여 조금이나마 신령한 체험을 하게 하십니다. 그런데

이런 신령한 체험은 크게 제한될 수밖에 없습니다. 가로막는 세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세력이 가로막은 나머지를 우리가 느끼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것은 위에서 보내 주신 것 중 빙산의 일각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만일 가로막던 세력이 제거된다면 하나님의 권능이 완전히 드러나게 됩니다. 이것이 영의 세계, 곧 여호와의 세계입니다. 이때 하나님은 명실공히 전지전능하여 엄청난 권능을 발휘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하실 때 다른 세력이 강력히 가로막을 경우에는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엄청난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하나님만 아는 사람들에게는 이런 얘기가 믿어지지 않는 겁니다. “그게 무슨 소리냐?” 이렇게 반문할 수밖에 없습니다. 빛이 어둠과 싸울 때 인간들에게 하나님이 큰 도움을 요구하시는 게 아닙니다. 조금만 도와 달라 이겁니다. 이때 빛은 어둠을 완전히 몰아내게 됩니다.

하나님은 아담의 자손에게 장수하는 복을 내리셨습니다. 그리하여 800년, 900년을 사는 것은 보통이었습니다. 므두셀라는 969세를 살았습니다. 이들을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말합니다.(창6:2) 그러나 아브라함 시대에 와서는 인간의 수명이 크게 줄었습니다. 그리하여 아브라함은 175세까지 살고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는 127세까지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음란하여 하나님이 인간의 수명을 단축했기 때문입니다.(창6:3) 그러나 인간이 얼마나 오래 사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얼마나

충실하게 사느냐가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등지고 사는 사람에게  
는 멸망이 기다리고 있을 뿐입니다. 오래 살면 뭐 합니까? 가치 있  
게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죽은 다음에 영의 세계가 기다리고 있다는 것  
을 서서히 알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는 사람들이,  
‘그렇다면 사람이 죽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닌 모양이다. 뭔가 있  
기는 있나 보다.’고 어렴풋이나마 짐작한 겁니다. 그중에서도 우리  
의 관심을 끄는 것은 다니엘서에 나오는 심판하는 장면입니다.(단  
7:9-10) 즉 하나님께서 보좌를 베푸셨는데 그 앞에는 수많은 사람  
들이 책들에 기록된 대로 잘하고 못한 것을 구분하여 심판하는  
광경을 이상 중에 다니엘이 보고 기록한 겁니다.

그리하여 다니엘의 이상을 받아들이는 측과 받아들이지 않는  
측으로 갈라져 논란이 일어났습니다. 즉 사두개파에서는 사람이  
죽으면 그만이라고 주장하고, 바리새파에서는 사람이 죽으면 부  
활해서 새 생명으로 태어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니까 두 파가  
갈라진 겁니다. 그러나 어느 한쪽도 명확하게 단정하지는 못했습  
니다.

그러다가 주님이 복음을 전하면서 영의 문제를 밝히기 시작했  
습니다. 천국이라는 말씀을 들고 나오신 겁니다. “천국은 여호와 하  
나님이 계시는 곳이다. 그 천국에 가려면 나를 거쳐야 한다. 사람이 죽게  
되면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다스리는 세계로 가게 된다.”  
(요10:9) 하고 알기 쉽게 조금씩 밝혔습니다.

오늘 우리가 잠시나마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은 심판입니다. 세상에서 재판하는 사람을 우리는 판사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성경에는 심판할 수 있는 권세를 가진 사람을 제사장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세상에서 이 사람은 죄인이다 하고 기소하는 사람을 검사라고 말합니다. 검사가 기소를 해야 판사가 그 기소장에 의해 선고를 합니다.

영의 세계에서 “이 사람은 이런 범죄를 했습니다.” 하고 기소하는 자가 누구냐 하면 천사입니다. 천사가 기소를 하면 그 기소장에 따라 심판하는 왕들이 재판을 하게 됩니다.(계20:4)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움직였는가를 상세하게 기록하여 기소하는 것이 천사들입니다. 그 기소한 내용이 책들에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심판하는 사람들이 입는 옷은 세마포로 되어 있습니다.(계19:8)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요,”(마5:3) 이 때부터 주님은 천국에 대한 얘기를 계속 터뜨린 겁니다. 그러나 주님은 사람들이 잘 이해하지 못하므로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에 하나님의 아들이 오시면 비유로 말씀하신다는 예언 그대로였습니다. “이는 선지자로 말씀하신 바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고 창세부터 감춰진 것들을 드러내리라 함을 이루려 하심이니라.”(마13:35)고 했습니다.

주님 이후에 심판에 관해 더욱 깊이 밝힌 사도가 바울입니다. 그는 주님이 언급한 영의 세계를 나뉠대로 깊이 드러냈습니다.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 소리에 순식간에 변화한다.”(고전

15:52)는 둥, 혹은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주를 영접한다.”(살전4:17)는 둥, “그리스도가 부활해서 영의 세계에 가 계시듯이 우리도 그리스도를 거쳐서 영의 세계로 가게 된다.”(빌3:10-11) 등등 여러 가지 설명을 했습니다.

한편 또 한 사람의 사도가 그리스도에게 부르심을 받아 일곱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는 소임을 받게 됩니다. 그가 요한입니다. 그러나 기독교계에서는 오늘날까지 사후 세계를 그림처럼 드러낸 적이 없었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천당에 간다.”고 막연히 얘기하는 데 그쳤습니다. 주님은 “천국은 침노를 당하니, 침노하는 자가 뺏는다.”(마11:12)고 말씀하셨고,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춰진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하여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서 그 밭을 샀느니라.”(마13:44)하고 말씀하셨지만 천국이 어디에 있고, 어떻게 생겼다고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사도 요한이 주님으로부터 지시받은 내용을 요한 계시록에 적어 2천 년 동안 전해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계시록을 들여다보고, 이진 이렇고 저진 저렇다고 속속들이 알 수 있느냐? 알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날까지도 영의 문제를 본격적으로 논하지 못했던 겁니다.

그러다가 이진자라는 존재가 요한 계시록의 내용을 낱낱이 터뜨리는 시대가 되다 보니, 주께서는 감추었던 영의 세계, 즉 빛과 어둠의 세계를 자세히 보여주시게 된 겁니다. 다니엘이 봉함한 것을 주님이 하늘에 올라가 떼시고 이진자에게 설명해 주신 겁니다.

전 세계 인류가 예수를 믿으면서 궁금하게 여겼고, 지금도 호기심에 가득 차 있습니다. 평생 예수를 믿으면서도 ‘내가 죽으면 어떻게 되는 건가’ 하고 비상한 관심을 갖게 되지만, 천국과 지옥이 어디 있는지도 모릅니다.

주님이 부활 승천하여 떠신 일곱 인으로 봉한 책은 극비의 전략 문서입니다. 주님이 그 문서를 하나님으로부터 물려받아 펴 보고 하나님의 작전 계획을 알게 되신 겁니다. 이때 주님은 하나님이 예정하신 계획에 따라 하나님의 종들을 택하셔야 합니다. 그 종들이 바로 두 감람나무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감람나무를 택하기 위해 사람들을 살피신 겁니다.

요한 계시록의 첫머리에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으로부터 주사,” 하고 나와 있습니다. 요한 계시록은 주님이 사도 요한에게 보여주고 들려준 계시인데, 그 내용은 하나님이 주님에게 주신 책에 있는 것입니다. ‘이 예언의 말씀’에 창세기에서부터 유다서까지의 말씀은 전혀 해당치 않는 겁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하고 얘기가 시작됩니다. 주님이 일곱 인으로 봉한 책을 떴 다음 지시하시는 겁니다. 매우 어려운 얘기입니다.

이 어려운 얘기를 오늘날 주의 종이 물 쏟듯 전하는 것은 그 내용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영화에 대해 한 번 생각해 보십시오. 보지 않은 박사가 더 잘 압니까, 본 어린이가 더 잘 압니까? 본 어린이가 더 잘 압니다. 그런데, 어린이가 하는 얘기니까 가짜

야, 박사가 하는 얘기니까 진짜야, 해 봤자 맞지 않습니다. 요한 계시록에 나오는 장면을 보지 못하고 연구하는 학자들이 만 명 모였다고 칩시다. 이들이 아무리 중구난방으로 떠들어도, 본 사람은 한마디로 끝내 버립니다. 왈가왈부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오늘날 주의 종이 여러분에게 영적인 깊은 말씀을 어렵지 않게 25년 동안 가르친 이유를 이제 아실 겁니다.

여러분, 아름다운 금강산에 올라가 본 사람은 다른 산에 올라가면 운치를 느끼지 못한다고 합니다.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렵고 힘든 내용을 통달하게 되면 나머지는 쉽게 알 수 있습니다. ‘모세가 이렇게 했다’는 구절이 나오면 금방 압니다. 연구할 필요가 없습니다. ‘아, 모세가 이렇게 느꼈구나.’, ‘다니엘이 이렇게 봤구나.’, ‘요한이 주님을 이렇게 대했구나.’ 이걸 다 압니다. 하나님을 뵈은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한 선지자들의 글을 어렵게 느끼지 않습니다.

영의 세계를 보지 못한 사람이 요한 계시록의 내용을 백 번 들여다보고 연구해 보십시오. 답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 최후의 심판을 본 자가 아니면 어떻게 소상히 알 수 있습니까? 한번은 이상 중에 세계 각국 성가대를 주님이 호명하는 장면을 보았는데, 끝으로 “이스라엘 민족과 같은 민족의 성가대가 나옵니다.” 하고 소개하는 순간, 우리 에덴성회 성가대원들이 짝 나왔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육적 야곱에 의해 구성되어 있고, 요한 계시록에 나타나 있는 영적 이스라엘은 영적 야곱, 즉 이긴자에 의해 구성되



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과 같은 민족”이라는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내린 축복이 열매 맺는 백성에게 옮겨진 것을 뜻합니다.(마21:43 참조)

아브라함이 이삭을 하나님께 드린 모리아 산에 세운 솔로몬 성전(대하3:1)은 이스라엘 백성의 범죄로 말미암아 무너지고, 주님 당시의 예루살렘 성전은 주님의 저주를 받아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다 깨졌습니다.”(마24:2) 그 후 기독교가 세계적으로 퍼져 나갔고, 오늘날 하나님께서 지시한 땅에 우리가 성전을 건축했습니다. 솔로몬이 하나님의 지시에 따라 성전을 지었기 때문에 모리아 산이 성산(聖山)이 된 거지, 산이 좋아서 성산이 된 것이 아닙니다. 영적인 의미에서 가나안 땅은 하나님의 백성이 살기 때문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되는 겁니다. 오늘날 이곳에 여호와께서 지시하신 거룩한 성전이 서 있기 때문에 이 주발봉도 성산이 되는 겁니다.

가나안은 이스라엘 백성이 쳐들어가기 전에는 우상을 섬기는 저주받은 땅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이 살면 축복의 땅이 됩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네가 선 곳은 거룩하니 신을 벗어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거룩한 곳에서는 신을 신지 않습니다. 신은 더러운 데를 다니자고 신는 거지, 방에 들어갈 때에는 신을 벗고 들어갑니다. 여호수아에게 여호와의 군대장관은 “신을 벗어라. 네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하니라.”(수5:15)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청량리에서 우리 역사를 시작할 때 하나님이 제가 선 단을 보여주시고 하늘에서 영광의 빛이 비치면서 말씀하셨습니다. “네

가서 있는 곳이 거룩하니라. 그것은 바로 내 섭리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얼마 전까지만 해도 다른 사람의 땅이었지만, 제가 사서 하나님의 지시에 따라 성전을 지으면 하나님의 땅으로 변하여 거룩해지는 겁니다.

거듭 말하지만,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의 산을 넘나드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우고.”(사52:7) 하고 이사야는 예언했습니다. 어찌 주님의 발뿐이겠습니까? 주님이 복음을 전할 때 주님의 말씀을 듣고 자 산을 넘나드는 사람들의 발도 아름다운 겁니다. 그리고 오늘날 알곡성전 경내를 넘나드는 여러분의 발걸음도 아름다운 겁니다. 하나님의 축복 받은 거룩한 장소를 오르내리기 때문입니다. 이 자리에서 여러분이 듣는 설교는 여호와의 섭리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듣고 또 움직이는 여러분의 발걸음이 아름다운 겁니다. 여러분이 잘나서가 아닙니다.

여러분, 텔레비전에서 다들 보셨을 겁니다. 역대 대통령을 지낸 분들이 재판장 앞에 설 때 얼마나 가엽습니까? 두 분이 다 나라를 호령하던 분들 아닙니까? 법정에서 서면 재판장이 하늘입니다. 그 사람 말 한마디로 죽고 삽니다. 그런데 영의 세계의 심판은 육의 세계의 재판과는 비교도 안 됩니다. 별벌 땀니다. 하나님이 이런 심판을 베풀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런 심판이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주의 종이 축복한 생수를 시체에 바르면 천사들이 체크하여 그대로 책들에 기록됩니다. 다른 보혜사 성령이 임하게 되면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결정을 내리게 돼 있습니다.(요16:7-8) 심판이 따로 필요 없습니다. 다른 시대 사람들은 다 재판을 받아야 합니다. 왜냐? 천사가 기소해 놓았기 때문입니다. 이긴자의 시대에 축복 받은 사람들은 이긴자가 결정을 지어서 보내 버립니다. 그래서 심판이 필요 없는 겁니다. 영의 세계에 가면 심판관들이 이들을 다루지 못합니다.(요5:24) 이것은 결코 동화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주께서 이긴자에게 주신 권한으로 비롯되는 겁니다.

주님이 세례 요한을 심판하는 것을 보십시오. “여자가 낳은 자 중에서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없었지만,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저보다 크니라.”(마11:11)고 하셨습니다. 또 주님이 강도를 심판하시는 것을 보십시오. 한 강도가 “우리는 죄인이므로 이렇게 형벌을 받는 것이 당연하지만, 당신이 하신 일은 모두가 옳았습니다. 당신의 나라에서 저를 기억해 주소서.” 하니 주님이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게 되리라.”(눅23:43)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결정을 내린 겁니다.

다른 보혜사 성령이 임하시게 되면 세상 임금이 이미 심판을 받는다고 했습니다.(요16:11)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사단에 대한 심판이 시작되고(막3:11, 눅4:41) 마지막 심판에서 사단을 완전히 진멸하게 되어 있습니다.(계20:15)

## Chapter 13.

# 우리가 가는 길



우리가 나무를 심어 보면 어린 나무가 단단한 뿌리를 내리기까지에는 여러 가지의 시련을 극복해야 합니다. 비바람이 불어도 쓰러지지 않고, 또 추위와 가뭄을 견뎌 내는 고비를 넘긴 다음에 알찬 열매를 맺게 됩니다. 어떤 나무는 약하여 조금만 여건이 불리하면 죽어 버리는가 하면, 어떤 나무는 강하여 여러 가지 악조건 속에서도 살아남습니다.

신앙도 비슷합니다. 어떤 사람은 몸과 마음이 편안해야 신앙을 지키고, 어떤 사람은 파란만장한 속에서도 신앙을 지킵니다. 저는 이 역사를 여러분에게 전하고, 여러분은 이 역사에 적응하는 처지에 있습니다. 가르치는 저나 받아들이는 여러분이나 때로는 부딪치기도 하여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어느 시대나 하

나님의 역사는 순탄치 않지만, 일찍이 오늘날처럼 어려운 시대는 없었습니다.

인간은 어머니의 모태에서 태어나 죽을 때까지 살기 위해 발버둥을 치게 마련입니다. 이것은 가진 사람이나 못 가진 사람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가진 사람은 더 갖기 위해, 못 가진 사람은 가난을 벗어나기 위해 무던히 애씁니다. “종신토록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창3:17)는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입니다.

오늘날 감람나무 역사가 다시 살아나기 위해 넘어야 할 장벽들이 많습니다. 주의 종은 이미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저는 하나님으로부터 감람나무 역사에 대한 지시를 받고 ‘큰 일 났구나!’ 하고 걱정이 태산 같았습니다. 내용부터가 많은 사람들에게 낯설어 적응하기가 어렵다고 생각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역사를 가르쳐 주시는 분께서도 “체계가 서야 네 말을 알아듣게 된다. 네가 하는 말을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릴 우려가 있기 때문에 단계적으로 말해야 한다.” 하고 당부하셨습니다.

이 감람나무 역사 자체가 워낙 생소한 것입니다. 성경에 나와 있어도 일찍이 제대로 논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듣는 사람들에게 거부감을 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일반교회처럼 믿기 쉬운 예수를 전하면 사람은 많이 모을 수 있으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늘 군병은 배출될 수 없습니다. 감람나무 체계 속에서 알곡을 만드는 역사를 강조하게 되면, 많은 사람들에게 외면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날까지 순서대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같은

얘기도 몇 년 전에는 이렇게 하고, 또 중간에는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는 또 이렇게 하여 점점 깊은 말씀을 보태 왔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듣는 여러분에게 거부감을 주지 않기 위해서였습니다.

주님도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마7:6)고 했습니다. 돼지에게 진주를 쥐봤자 돼지는 반갑지 않습니다. 돼지는 먹을 것이 반가운 겁니다.

주님은 십자가를 지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을 때, 세 사람의 제자를 따로 데리고 기도하러 산에 가서 권능으로 세 제자를 잠들게 했습니다. 그러자 그 세 제자들은 비몽사몽간에 똑같은 장면을 봤습니다. 그것은 주님이 변화된 모습이었습니다. 그때 빛이 하늘에서 비치면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마17:5)는 음성이 들려오고, 한쪽에는 평상시에 그 세 제자들의 우상이었던 모세가 서 있고, 다른 한쪽에는 신성시했던 엘리야가 서 있었습니다. 세 사람의 제자들이 똑같이 본 겁니다. 이때 모세와 엘리야는 주님에게 각듯이 존경을 표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 광경을 본 다음에 이들은 비로소 주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게 되었습니다. 정신을 차리고 보니 모세와 엘리야는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이들은 다른 제자들과 따르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이런 증거를 받았다.” 하고 말하고 싶었으나 주님이 만류하셨습니다. “너희가 지금 본 것을 아무에게도 얘기하지 마라. 내가 죽고 나서 지금 본 것을 전해 줘라.” 하고 말입니다.

주님은 하실 일이 너무나 중차대하니까 천사를 시켜 사도 바울을 하늘로 불러올렸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육체는 지상에 있었지만, 영은 사도 요한처럼 이상 중에 천사의 안내를 받아서 하늘 나라에 갔습니다. 주님은 바울이 할례를 폐지시키는 어려운 일을 해야 했기 때문에 직접 그에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할례를 폐지시키는 것은 당시에 매우 획기적인 일이었으므로 적당히 다룰 수가 없었습니다.

주님은 사도 바울에게 소상히 설명하시고 나서, “입을 봉하라.”고 당부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입을 다물었습니다. 왜냐? 당시에 바울의 위치는 매우 미약했기 때문입니다. 그를 하나님의 종으로 인정해 주는 사람이 별로 없었습니다. 이것을 주님은 잘 아시기 때문에 선블리 발설하면 도리어 역효과가 나므로 입을 봉하라고 당부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아무 소리도 못하고 일을 했는데, 14년 후에야 “내가 한 사람을 아노니 그 사람이 셋째 하늘에 갔었다.”(고후12:2)고 돌려서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이 셋째 하늘이라는 말은 바울이 느낄 때 하늘을 세 번 거쳤다는 뜻입니다. 이걸 앞선 역사의 주인공도 몰랐기 때문에 “마음의 천국, 천년왕국, 영원한 하늘나라.”로 체계화하여 ‘삼층천’이라고 설명했지만, 그것은 잘못된 얘기입니다. 사도 바울은 실제로 궁창을 두 번 벗어나서 세 번째 하늘 나라에 갔습니다. 그래서 삼층천이라고 말했습니다.

바울이 이 말을 하면서도 “내가 갔었다.”고 말하지 않은 것은 파

문이 일어날 것을 알았기 때문이었습니다. “내가 한 사람을 아노니, 그가 삼층천에 갔었는데, 그 세계는 도저히 말로 형용할 수가 없다. 그는 자기가 죽었는지 살았는지 모를 정도였다.” 이렇게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젓 먹는 자에게 단단한 음식을 주면, 그건 음식이 아니라 독약이 됩니다. 주의 종이 이 역사를 이끌어 갈 때 처음 나온 사람에게는 가벼운 얘기를 하고, 체계가 선 사람에게는 깊은 말씀을 구분지어 하는 것도 이 때문입니다.

제2부속 건물이 끝나게 되면 주님으로부터 새로운 지시가 올 겁니다. 자고로 하나님의 역사 치고 주님의 지시가 아닌 것을 하여 성공한 예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시는 것이 뭐냐? 하나님이 지시하지 않은 것을 하나님을 위한답시고 하는 겁니다. 이 경우에는 거의 다 망합니다.

오늘날 우리 역사는 감람나무다, 이긴자다 하기 때문에 사이버라는 욕을 먹습니다. 그걸 저는 잘 압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걸 원하십니다. 오늘의 하나님의 섭리가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걸 멀리하면 부흥이 잘되고, 그걸 멀리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고수하면 부흥이 안 되는 것도 잘 압니다. 사람들에게 인기가 올라가고 하나님께 버림을 받을 거냐, 사람들에게 인기가 없어도 하나님에게 인정을 받을 거냐? 저는 어느 한쪽을 택해야 합니다.

오늘날 우리 역사는 고달픕니다. 왜냐? 무너진 앞선 역사를 재



건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명함을 가지고 다시 일으키는 겁니다. 세상에 이것처럼 미련하고 어리석은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도 우리는 그걸 해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그걸 하라는 겁니다. 하늘에서 이 일이 어려운 것을 잘 알고 계십니다. 그래도 하라니 어떡합니까?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의 종을 세울 때, “너로 말미암지 않고는 나에게 올라가 없다. 그것은 내 섭리가 너와 함께함이라.”고 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들었을 때, 저는 반은 믿어지고 반은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인가?’ 이렇게 생각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다가 몇 년 후에 “시작해라.” 해서 시작한 게 우리 역사인데, 당시 인구가 40억이었습니다. 오늘날 세계 인구가 57억입니다. 그중에 하나님을 부르는 신자들이 10억은 됩니다. 한국에는 천만이 넘는다고 합니다. 그중에 여러분의 수는 그야말로 새 밭의 톱니다. 그나마 체계가 서기 전에는 들어도 무슨 소린지 모릅니다. 깊은 말이 나올수록 비방거리가 되는 겁니다.

기독교의 핵심은 주의 보혈입니다. 일반교회에서도 이렇게 말은 합니다. 그러나 그 내용을 자세히 설명하면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왜냐? 믿으면 다 되는 줄 알기 때문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무슨 말을 할 겁니까? 속담에 ‘말이 아니면 하지 말고, 길이 아니면 가지 말라.’고 했습니다.

지금 우리는 묵묵히 우리의 할 일을 해 나갑니다. 무엇을 해 나

가는가? 주님이 주의 종에게 지시하신 것을 해 나갑니다. 외형적으로 단체가 크다고 마귀를 이기는 게 아닙니다. 마귀는 핵심을 찔러야 이길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그 작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에덴성회는 밖으로 이렇다 하고 선전하는 종교 단체가 아닙니다. 10만, 100만이 에덴성회에 와도, 마귀에게 치명적인 타격을 입힐 수 있는 하늘 군병이 길러지지 않으면 필요 없는 거고, 몇 사람이라도 마귀에게 치명적인 타격을 입힐 수 있는 하늘 군병이 길러지면 귀중한 겁니다. 여러분들은 이것을 알고 저를 따르셔야 합니다. 일반교회는 교인이 늘지 않으면 문제가 되지만, 여기는 다릅니다.

“마지막 때에 믿는 자를 보겠느냐?” (눅18:8), “너희는 좁은 길로 가라.” (마7:13)고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주의 종이 앞선 역사를 그대로 이어받아서 수십만 명의 교인을 거느리고 일해도 믿을까 말까 한데, 겨우 몇 천 명의 교인을 데리고, 그것도 벽돌을 한 장씩 쌓아 집 짓는 격인 우리 역사에서 주의 종이 외치는 소리를 누가 믿겠습니까? 믿을 수가 없는 겁니다. 믿지 않는 사람을 욕할 것이 못됩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깊이 알게 하는 학습이 필요한 겁니다.

안찰이란 주의 피가 제 손끝을 통해 나가는 겁니다. 제 것이 나가는 게 아니고, 위에서 와서 저를 통해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너를 거치지 않으면 내게 올 자가 없다.”는 겁니다. 이걸 어떻게 체계가 서지 않은 사람들이 이해할 거며, 믿을 겁니까? 황당무제한 얘기라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이나 겨우 이해가 가는 겁니다.

일반교회에서는 알 길이 없는 겁니다.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요14:17)는 주님의 말씀 그대로입니다.

여러분 중에는 앞선 역사에서 은혜 받은 분이 많습니다. 그러나 그 은혜가 어떻게 인간에게 영향을 행사하는가를 원리적으로 자세히 듣지 못했고, 또 앞선 역사의 주인공도 설명할 수 없었습니다. 은혜를 내려 많은 사람을 모으는 것이 그의 역할이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주의 종이 그 베일을 벗겨 가는 중입니다. 받은 은혜야 같습니다. 이슬도 받고, 향취도 맡고. 그런데 그것이 무슨 은혜이며, 어떻게 해서 오는가를 잘 몰랐던 겁니다. 그게 결코 간단한 얘기가 아닙니다. 그래서 저도 하루아침에 얘기를 다 안 합니다. 조심스럽게 입을 엽니다. 부작용이 일어날 소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주의 종은 25년 동안 말씀을 전하고 축복도 하면서 여러분을 이끌어 왔습니다. 여러분은 ‘그런가 보다’ 하고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의 지시를 받았다고 해서 제가 신이 됩니까? 옛날에 하나님은 모세에게 “내가 너를 바로 앞에서 신이 되게 해 주마.”(출4:16) 할 정도로 대우해 주셔서 받은 신의 역할을 할 만큼 위력이 대단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역사는 그렇지 못합니다. 주의 종이 무진장 고생을 하면서 허덕이고 있는 겁니다.

기독교의 핵심이 이렇다 하고 외치면 세상에 먹혀드느냐? 턱도 없는 소리입니다. 안 됩니다. 그렇게 잘 먹힌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꾸준히, 차근차근 이뤄 나가야 합니다. 지금까지 주의

종이 그런 방법을 취했기 때문에 이만큼이라도 버텨 온 겁니다. 모든 양떼들은 주의 종이 숨을 죽이라 하면 죽어야 하고, 꺾기하라고 하면 그때 꺾기를 해야 합니다. 자기를 앞세우면 하늘로부터 잘립니다. 사울은 제사장도 아닌데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날뛰다가 결국 잘리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두려운 겁니다. 그걸 알아야 합니다.

지금 우리는 제2부속 건물을 건축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10여 년을 주의 종이 계속 건축을 해 나갑니다. 주의 지시를 충실히 따라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전 공사를 위해 노심초사해 왔습니다. 감람나무 역사는 애들 장난이 아닙니다.

옛날 노아는 남이 홍보고 조롱해도 꾸준히 배만 지었습니다. 것처럼 바보스러운 것이 어디 있습니까? 노아는 밖에 나가서 “여러분, 배를 짓는 데 협조해 주십시오. 여러분도 홍수가 나면 같이 탑시다.” 이런 말을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지시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덟 식구로 배를 지어라.” 이게 하나님의 지시였습니다. 하나님은 노아의 가족 이외의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는 안중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노아는 배만 열심히 만들었습니다. 배를 다 만들자 문제가 달라진 겁니다. 하나님이 보십니다. “배가 다 됐구나.” 노아가 하나님께 “배가 다 됐으니 조치를 취해 주십시오.” 이래서 홍수를 내린 게 아닙니다. 배가 다 되면 다음 일을 하나님이 스스로 하십니다.

이것은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지시를 다 이행하면

지체 없이 하나님의 손길이 나타납니다. 우리는 그때까지 노아처럼 묵묵히 지시하신 것을 수행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손길이 나타나야지, 사람이 백 번 떠들어야 소용없습니다. 하늘에서 움직이지 않으면 우리는 한 걸음도 앞으로 나갈 수 없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여러분은 오늘날 주의 종과 함께 한 배를 타셨습니다. 이 배는 갖은 풍랑 속에서도 여러분과 제가 힘을 합쳐서 목적지에 도달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요즘 여러 모로 어려움을 많이 겪고 계신 것을 잘 압니다. 이럴 때일수록 정신무장을 단단히 하여 기도 생활을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Part 03.*

# 빛 가운데 걸어가면



14. 다른 보혜사 성령의 기능과 역할 · 15. 마지막 날에 대하여(1) · 16. 마지막 날에 대하여(2) · 17. 유대인의 교훈 · 18. 하나님의 전략과 이긴자 · 19. 하나님의 자비에 대하여

## Chapter 14.

# 다른 보혜사 성령의 기능과 역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신다고 해도 인간이 느낄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인간과 교류하실 때에는 우리에게 느낌과 감동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인간의 감각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소리를 들을 때에도 아주 낮은 소리는 우리에게 들리지 않습니다. 우리가 들을 수 있도록 주파수를 활용하는 것이 통신 장치입니다. 그 통신 장치가 소리를 변조합니다. 오늘날 통신이 크게 발달하여 일상 생활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텔레비전이나 라디오 같은 것도 방송국에서 음성 전파와 영상 전파를 내보내 주면 수신기를 통해 받아들이는데, 그 신호를 우리가 눈으로 보고 귀로 들을 수 있게끔 변조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수신기를 통하여 우리는 안방에서 영상을 보고 음성을 듣는 겁니다. 이것처럼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오고 가는 음성이나 영상을



보고 듣게 하는 영이 있습니다. 그 영을 성령이라고 합니다. 성령이 움직이는 속도는 엄청 빠릅니다.

지난 주일날도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이 하나님의 신, 즉 성령을 인간에게 보내실 때 아무 예고도 없이 보내면 하나님의 신인지 마귀의 신인지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마귀의 신을 받고도 은혜로 알고 좋아하게 됩니다. 이런 혼동을 피하기 위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약속을 하십니다. “내가 이런 모습으로 너희들에게 성령을 보내겠다. 그 모습이 아니면 내 신이 아닌 줄 알아라.” 이렇게 정확하게 구분하십니다.

성령과 악령은 평소에도 싸우지만, 앞으로 큰 전쟁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일방적으로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은 만사형통인 줄 알았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사실상 하나님의 뜻이 좌절되는 경우가 있습니다.(창6:6, 삼상15:11 참조) 그래서 문제가 됩니다.

여러분에게 제가 생수의 성령에 대해 조심스럽게 전하고 있습니다. 왜냐? 생수의 성령은 오늘날 2천 년 만에 처음 밝혀지는 대단히 어려운 얘기이기 때문입니다. 기독교는 2천 년 동안을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임한 불같은 성령에 의존해서 오늘날까지 퍼져 왔습니다. 지금도 이 바깥에 한 걸음만 나가도 많은 교회에서 목회자가 말씀을 전하지만, 생수의 성령이 뭔지 알지 못합니다. 그리하여 오순절 날 마가의 다락방에 불같이 임한 성령이 약속하신 은혜인 줄 알고 있습니다. 앞선 역사에서도 그렇게 알았습니다. 그

만큼 어려운 겁니다.

세례 요한이 주님에게 물세례를 줄 적에 예수님의 머리 위에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했습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성령이 없었습니까? 있었다는 것은 두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구약 시대에도 선지자들에게 성령이 함께했습니다. 모세가 시내산에서 40주야를 있다가 내려왔을 때 사람들이 그의 얼굴빛을 보고 두려워하여 모세가 한동안 수건으로 얼굴을 가렸다고 했습니다.(출34:35) 이때 모세는 성령을 충만히 받고 있었던 겁니다. 이런 독특한 성령이 구약 시대에 선지자들을 통해서 계속 함께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도 분명히 성령이 하나님의 종들을 통해서 능력을 행하셨던 겁니다. 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능력을 주어, 나가서 병도 고치고 귀신도 쫓아내게 하셨습니다.(막3:15)

그러니까 주님은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도 사랑하는 양떼들을 통하여 성령의 능력을 행하셨습니다. 이런 주님께서 “내가 사실은 너희와 헤어질 때가 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죽는다, 그 소리입니다. “내가 죽게 되면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 너희를 만나러 간다. 내가 처음 전도할 때 갈릴리에서 시작하지 않았느냐? 내가 다시 살아나 그 갈릴리 앞바다로 갈 테니 그곳에 모여라.”(마26:32) 하고 지시하셨습니다. 주님은 “이 시대가 악하여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지 아닌지를 시험하기 위해 기적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내가 보여줄 기적은 요나의 기적밖에 없다. 요나가 물고기 배 속에서 사흘 만에 살아났다. 이와 마찬가지로

나도 죽은 후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이것이 내가 메시아임을 입증하는 것이다.”(마12:39-40)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주님의 말씀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리하여 갈릴리로 간 사람이 없었습니다. 가장 가까웠던 막달라 마리아까지도 향유를 들고 무덤으로 찾아갔습니다.(막16:1-2) 그렇다면 주님이 다시 사신다는 말을 믿었습니까? 믿지 않았던 겁니다.

주께서 “내가 죽는다.”고 말씀하니까 제자들은 근심이 태산 같았습니다. 이들은 주께서 로마의 지배를 물리치고 이스라엘을 독립시킬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정권을 잡게 되면 한 자리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입에서 “이제 내가 죽게 된다.”는 청천벽력 같은 말씀이 떨어지니까 제자들은 크게 당황한 겁니다.

주께서 제자들에게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마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내 말을 믿어라. 내가 너희와 헤어져야 너희에게 유익하다. 내가 너희들을 떠나지 않으면 너희들에게 다른 보혜사 성령이 오지 않는다.”(요16:7)

지금까지 주님이 행하시고 제자들이 행하고 선지자들이 행한 성령이 아닌 다른 성령이 온다 그 말입니다. 만약에 십자가를 지신 다음에도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임했던 성령이 내린다면 “내가 십자가를 지고 너희들을 떠나야 다른 보혜사 성령이 오게 되므로 너희들에게 유익하다.”는 말씀이 맞습니까? 안 맞습니다. 2천 년 동안 기독교의 수많은 훌륭한 분들이 다 오순절 날 마가의 다락방에 내린 불과 같은 성령의 축복 속에서 활동한 분들입니다. 그것이 약

속하신 성령의 역사가 아니라는 것을 주께서 저에게 알려 주셨기 때문에 저도 알게 되었습니다.

주님이 약속하신 것은 생수가 강같이 흘러넘친다는 생수의 성령입니다.(요7:38) 2천 년 동안 세계적으로 예수를 믿은 사람은 수 백억입니다. 그들은 “내가 떠나야 너희에게 유익하다. 그래야 다른 보혜사 성령이 너희에게 오게 된다.”는 그 다른 보혜사 성령은 맛도 못 본 사람들입니다.

그럼 보십시오. 주님의 제자들은 나가서 병도 고쳤고 귀신도 쫓아냈습니다. 그래서 자랑스럽게 여기는 제자들을 보고 주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들이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친 것도 좋지만,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되는 것을 더 기뻐하라.”(눅10:20)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성경에 있는 겁니다. 목사님들이나 선교사님들이 다 증거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런 성령의 능력을 행한 제자들에게 주님이 “내가 십자가를 지지 않으면 너희에게 다른 보혜사 성령이 임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셨다면, 그 보혜사 성령은 여태까지 구약 시대에 있었던 성령과 같습니까? 다릅니다.

그런데 오순절 날 마가의 다락방에서 120문도가 주님이 약속하신 다른 보혜사 성령을 받았다면 문제는 간단합니다. 기독교가 오늘날까지 다른 보혜사 성령의 역사 속에서 발전해 내려왔을 터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사실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성령은 성령인데, 주님이 약속하신 성령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그 설명을 주님이 저한테 하신 겁니다. 주님이 설명해 주시지 않았으면 저 같은

것이 어떻게 감히 성령에 대한 것을 이렇다 저렇다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분이 말씀해 주시지 않으면 상상도 못할 일입니다. “때가 되면 밝혀라.” 해서 지금 밝히는 겁니다.

초등학교 1학년 학생에게 중학교 교과서를 가르치면 알아들을 수 있습니까? 초등학교를 거쳐서 중학교에 가야 영어도 가르쳐 주고 수학 방정식도 풀게 되는 겁니다.

그럼 다른 보혜사 성령이 오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이에 대해 주님은 미리 말씀하셨습니다. 즉 다른 보혜사 성령이 오시게 되면 첫째로 너희를 진리 가운데로 이끌어 들인다는 겁니다.(요16:13) 둘째로 다른 보혜사 성령에 대해 세상은 모른다 이겁니다.(요14:17) 세상 사람들은 다른 보혜사 성령에 대해 들어 보지도 못했고 받지도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받는 너희들은 깨닫게 된다 이겁니다. 셋째로 다른 보혜사 성령이 오게 되면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한다는 겁니다.(요16:8)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신 것은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런데 십자가를 지신 혜택을 베푸는 성령을 받지 못하면 진정한 속죄가 예정대로 됩니까? 안 됩니다. 안 되면 구약 시대의 성령과 같은 역할밖에 하지 못합니다. 왜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을 받은 수많은 기독교 신자들이 구약 시대의 선지자들처럼 순교를 당해야 하고, 오늘날까지 주님은 왜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순교를 하게 했는가를 알아야 합니다.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임한 성령이, 주님이 십자가를 지신 보혈의 은총을 베풀기 위한

다른 보혜사 성령이라면 순교를 당하지 않아도 되는데,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임한 성령은 주님이 약속하신 성령이 아니고, 구약 시대에 쓰였던 성령과 같은 것이 불과 같이 임했던 것입니다.(행2:3)

그 성령을 받은 사람들은 주의 보혈의 혜택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고생하다가 순교를 당해야 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순교를 당하게 합니다. 스테반이 돌에 맞아 죽을 때에도 주님이 환상 중에 스테반의 눈에 모습을 나타냈으므로, 스테반이 “주께서 여호와와의 우편에서 나를 내려다보신다.”(행7:55)고 말했습니다. 이처럼 주께서는 성도들을 어떻게 해서라도 순교를 당하게 하여 그 영혼들이 하늘 나라에 곧바로 올라갈 수 있게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구약 시대와 마찬가지로입니다.

주님이 대속의 십자가를 지신 효과가 있었습니까? 없었던 겁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이긴자가 나타나야 그를 통하여 당신이 흘린 피의 대가를 아낌없이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계21:6-7) 하나님께서 일곱 인으로 봉하신 책에 그렇게 예정을 해 놓으신 겁니다. 주님이 하늘나라에 올라가 이것을 보시고 천사를 보내어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불과 같은 성령을 받은 사람들 가운데서 이긴자가 나타나면 이리이러한 은혜를 줄 수 있다고 요한에게 지시하신 겁니다.(계1:1) 이것은 요한 계시록의 2장과 3장에 약속되어 있는 내용들입니다.

제가 지금 우리 역사를 설명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기독교의 핵심을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단지 예수를 믿게 하는 역할만 맡았

다면 고민할 게 없습니다. 엄청난 사명을 어깨에 짊어졌기 때문에 큰 부담이 된다는 얘기를 여러분에게 누차 했던 겁니다. 역할 부담이 되어 있다면 내가 이렇게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기도 되고, 저기도 된다면 내가 왜 고민하겠습니까?

이 모든 일은 내가 하고 싶어서 하고, 되고 싶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날 수만 명, 수십만 명이 모여 외쳐도 안 되는 일이 이곳에서만 이루어지는 겁니다. 왜 그런가? 사이클이 맞아서 그렇습니다. 하늘에서 보내시는 분과 받아들이는 측이 맞아떨어져야 은혜가 오고 갑니다. “다림줄이 스룹바벨의 손에 있는 것처럼 나의 종에겐 은혜가 직통한다.”(슥4:10)는 말씀이 바로 그겁니다.

거듭 말하지만 “이기는 자에게는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밖에는 모른다.”(계2:17)고 했습니다. 오늘날 전 세계 기독교의 신학 박사들이나 목회자들이 상상하지 못하는 것을 주의 종이 물 쏟듯 설명하는 이유가 거기 있는 겁니다. 흰 돌을 쥐고 있기 때문에 세상이 짓밟아도 버티는 겁니다. 아무도 흉내를 못 냅니다.

다른 건 다 흉내 낼 수 있습니다. 병도 고치고 기적도 행합니다. 이걸 어디나 간혹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신도 할 수 있습니다. 무당도 병을 고치지 않습니까? 무당 신이 무당을 통하여 능력을 행하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주님의 비밀은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흰 돌의 내용은 이진자 외에는 알 길이 없는 겁니다. 다른 보혜

사 성령에 대한 내용을 주님께로부터 직접 통고 받은 종이 2천 년 동안 한 사람이라도 있었으면 벌써 그 얘기가 나왔어야 합니다. 없었기 때문에 나오지 못한 겁니다. 2천 년 동안 기독교 신자들은 수백억에 이릅니다. 그들이 그 내용을 모르고 세상을 떠난 겁니다.

현재 여러분이 직접 받고 있는 생수는 주님의 보혈로 말미암은 것으로, 그 기능과 역할이 이전 성령의 은혜와 다릅니다. 즉 하늘 군병을 배출시켜 마귀를 발등상 되게 하는 기능과 하나님의 역사를 마무리 짓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께서 “나를 믿는 자는 나보다 더 큰 일도 할 수 있다.”고 말씀하신 겁니다.[\(요14:12\)](#) 그런 보혜사 성령의 역사가 오늘날 여러분의 눈앞에서 펼쳐지고 있는 것입니다.



## Chapter 15.

# 마지막 날에 대하여(1)



### 1) 아버지만 아신다

세상에서 사람들에게 가장 많이 읽히는 베스트셀러가 성경이라고 합니다. 기독교의 가르침을 모르는 사람들도 상식적으로 성경에 대한 내용을 어느 정도 알고 있으면 사회에서 대화를 나눌 때에 도움이 될 정도로 성경은 유명한 책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내용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참고삼아 읽기도 합니다. 성경에는 영의 세계뿐만 아니라 인류의 역사와 정치, 경제, 문학, 의술까지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성경의 중심인물은 두말할 필요도 없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나 주님 당시에는 나사렛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인정을 받지 못했습니다. 주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나사렛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리스도라고 제자들과 사도 바울이 증거했던

것입니다.

주님은 부활하시고 하늘나라로 올라가시기 전에 40일 동안 당신이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입증하고자 여러 차례 여러 형상으로 나타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말씀대로 승천하시고, 약속대로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120명에게 성령이 임하여 그리스도의 정체를 입증하셨습니다.

어느 날 주님은 성전을 보고,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마24:2)고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은 그때가 마지막 때인 줄 알고, 세상 끝의 징조에 대해 물었습니다. 주님은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처처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마24:7-13)고 말씀하시고, 이어서 “다니엘이 한 말이 있다. 거룩한 곳에 미운 물건이 선 것을 보면 말세가가 가까운 줄 알아라.”(마24:15) 하고 덧붙이셨습니다.

거룩한 곳은 하나님께서 구별하여 지정한 곳을 말하는 겁니다. 모세 시대에 하나님이 “모세야, 네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하다.”(출3:5)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거룩한 곳을 지명합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곳이 거룩하다는 것입니다. 그런 거룩한 곳에 미운 물건이 선다는 것은 거룩하게 여겼던 곳을 마귀가 점령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곳을 거룩하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섭리가 떠날 때에 그곳은 거룩합니까, 미워잡니까? 미워잡니다. 미워질 수밖에 없는 것은, 하나님이 함께하

시는 대신에 다른 신이 함께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곳이 하나님 미워하시는 장소로 변해 버리는 것입니다. 영의 세계에서 한 때, 두 때, 반 때 동안 하나님이 다스리던 곳을 어두운 세력이 점령하여 다스릴 때에는 거룩한 곳에 미운 물건이 서게 되는 겁니다. 이러한 내용들을 주님이 가르쳐 주셨기 때문에 저도 알게 되었던 겁니다.

주님은 사도 요한에게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서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요6:39)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마지막 날에 대한 제자들의 질문에 주님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의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가 깨달아야 한다.” (마24:15)고 다니엘서를 소개했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이 이 말씀을 잘 알아듣지 못하여 재차 물었습니다. 그러자 주님은 육적인 얘기를 많이 하셨습니다. “그때에는 환난이 있다.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그런 환난이 없겠고,” (마24:21) 하고 알아듣기 쉽게 설명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나 끝내 시원한 답변이 안 나오는 겁니다. 즉 뭐가 마지막 날이라는 결론이 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재차 물었습니다.

“주님, 그러면 마지막 날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주님께서 서론은 많았는데 결론을 내리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결론을 좀 얘기해 주십시오.” 하고 궁금해 하니, 주께서 마지막 결론을 내리는 말씀이 “이 세상 끝 날의 일은 인자도 모르고, 천사도 모르고, 오직 하늘에 계신 아버지만 아신다.” (마24:36)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거

기에 대해 논할 자가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하신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성서 66권 가운데 주님보다 영적인 내용을 깊이 아는 분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걸로 답이 끝난 겁니다. 성서에 말세에 대한 답이 나온 겁니다? 안 나와 있는 겁니다. 그런데 괜히 단어 서는 사람들이 오늘날까지 말세가 언제다 하고 떠드는 겁니다. 베드로도 떠들었고, 바울도 떠들었고, 오늘날까지도 목회자들이 심심찮게 떠들고 있습니다. 그래 봤자 소용없습니다. 결론이 나올 수 없는 겁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주님의 말씀을 명심해야 합니다. “거룩한 곳에 미운 물건이 선다는 다니엘의 글을 깨닫는 자는 알 것이다.” 하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럼 다니엘서로 돌아가 봅시다. 다니엘은 하나님으로부터 마지막에 관한 지시를 받았습니니다. 하나님은 다니엘에게 “은총을 크게 입은 다니엘아, 내가 너한테 보여주는 것을 기록하여라.” 하고 말씀했습니다. 다니엘이 기록하고 나서 “이런 일이 언제 있습니까?” 하고 물었습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셨으니까 다니엘이 질문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아, 네가 알 바가 아니다.” 기껏 보여주고는, “그래, 알았다. 이걸 이렇다.” 이렇게 가르쳐 주시지 않고, 너는 알 바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은 말을 못하는 겁니다. “너는 네 시대에 네가 할 일만 하고 있다가 편안히 가서 쉬어라. 나중에 네가 고생한 대가를 누릴 날이 온다.” 천사가 이렇게 전해 준 겁니다.(단12:13)

전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스가랴 선지자의 경우를 한 번 봅시다. 하나님이 스가랴에게 여러 가지 이상을 보여주셨습니다. “여호수아 앞에 세운 돌을 보라. 그 여호수아 앞에 세운 한 돌에 일곱 눈이 박혔느니라. 일곱 눈이 박힌 시대가 오면 하루에 모든 죄악을 제할 것은 제하고, 새길 것은 새기고, 정할 것은 정한다.” (슌3:9)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일곱 눈이 뭐 하는 건지 답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스가랴가 이상 중에 봤지만, 한 돌에 박힌 일곱 눈이 뭐 하는 건지 전혀 모릅니다. 보여주셨다고 아는 게 아닙니다.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럼 오늘날 하나님께서 우리 역사를 시작할 때, “네 시대에 젊은 종 스가랴에게 나 여호와가 지시한 말이 이루어진다.”고 했으면, 주의 종은 스가랴 시대에 보여준 장면이 무엇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일할 수 있을 거 아닙니까?

모세의 경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모세야!” 하고 하나님이 불렀습니다. “이제부터 내가 너희 조상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것을 이루려고 너를 불렀다.” 하고 모세에게 말씀하시면 모세는 아브라함과 하나님 사이에 어떤 언약이 오고 간 것을 몰라야 합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무엇을 약속하셨기에 나한테 오늘날 아브라함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나를 불렀다고 말씀하시는가.’ 하고 궁금하게 여긴다 이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설명하십니다. “내가 아브라함하고 이러저러한 약속을 했는데, 너는 애굽에 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이끌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도록 하여라.” 하고 말입니

다.

이런 모든 일들은 우리 역사에서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오늘날 하나님께서 이 적은 식구를 데리고 역사하십니다. 그리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지시에 따라 하나하나 해 나가고 있는데, 그 과정을 보십시오. 그 핍박과 어려움 속에서 인간의 힘으로는 되지 않는 일을 하나님께서 끌어오시는 것을 우리는 피부로 느끼게 됩니다.

성경의 주인공은 주님이십니다. 그 주님이 이긴자에게 권한을 넘겨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계2:26) 그래서 제가 청량리에서 이삼십 명을 데리고 시작할 때, 전에도 말했지만 하나님께서 “네가 선 곳이 거룩하니라.” 하고 말씀하셨던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선 제단에 하나님의 영광이 깃들었던 겁니다. 이것은 저를 드러내고자 하는 말이 아니라, 오늘날 하나님의 섭리를 설명하는 겁니다. 그렇다고 제가 뭐 신입니까? 저도 사람인데, 오늘날까지 걸어온 발자취를 돌아보고 앞날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섭리를 실감하는 겁니다. 주의 종이 주님으로부터 앞으로 해야 할 일에 대해 가르침을 받아, 주님이 마지막 날에 관해 보류시켜 놓았던 것을 알게 된 겁니다. 문제는 그 마지막 날에 성공적으로 대비하는 겁니다. 안팎으로 어려운 현실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나하나 해 나가고 있습니다. 금년 한 해를 우리가 어렵더라도 손과 손을 마주잡고 차고 나가야 합니다.

## 2) 마지막 날에 살린다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것이다.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이를 다시 살리리라.”(요 6:39) 요한복음 6장에 있는 말씀인데, 몇 구절을 여러분에게 읽어 드리고 말씀하려고 합니다.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요6:40) 여기도 마지막 날이라고 말씀하셨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면 아무라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요 6:44) 여기도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린다고 하셨습니다. 이렇게 주님은 자꾸 마지막 날이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린다.”는 겁니다. 즉 죽은 생명체를 다시 살린다. 언제 살리느냐? 마지막 날에 살린다 이겁니다. 그러므로 마지막 날이 언젠가를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주님은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요11:26)고 말씀하셨습니다. 언제 영원히 죽지 않게 할 것이냐? 마지막 날에 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그 마지막 날은 언제입니까?” 하고 물었더니 주님은 모른다고 대답하셨습니다. 제자들이 다시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믿고 사랑하는 처자식과 재물도 다 버리고 주님을 위해 충성한다면 주님은 우리에게 무엇으로 보답해 주시겠습니까?”(마19:27) 이때 주님의 대답은 이러했습니다.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나에게 지시한 내용을 내가 이

루어 놓고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 너희에게 이스라엘 민족의 열두 지파를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주겠다.”(마19:28)

제자들은 이 말에 크게 고무되어 열두 지파를 다스리는 권세를 차지하기 위해서 목숨을 버리기까지 하면서 충성했습니다. 주님은 일곱 인으로 봉한 책을 떼기에 합당한 존재가 되신 연후에 하늘 나라로 올라가셔서 비로소 그 책을 떼어 보시고 ‘마지막 때가 이 거구나’ 하고 알게 되신 겁니다. 이때 주님은 하늘나라에 계셨고, 제자들은 땅에서 순교를 당하고 있었습니다. 이때 주님이 아직 살아 있는 사도 요한을 불러올린 겁니다. 그리하여 “마지막 때에 관한 모든 것을 너한테 지시해 줄 터이니 기록하여 일곱 교회에 전하여라.” 하고 지시하셨습니다.

주님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린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마지막 날이 무엇을 뜻하는지 알아야 주님이 언제 다시 살리는지 알게 됩니다. 믿는다고 곧바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것을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알아야 합니다. “나를 믿는 자는 영생하게 된다.”고 주님이 말씀하셨지만, 그때와 시기는 마지막 날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무 때나 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은 그냥 살리겠다고 말씀하지 않았습니니다. 주님은 마지막 때를 모른다고 말씀하시고 부활 승천하셨는데, 지구상에서 인간들이 아무리 떠든다고 해도 마지막 때를 알아낼 길이 있습니까? 없는 겁니다. 마지막 때는 영원한 베일로 싸여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요한 계시록을 쓰도록 주님이 지시한 겁니다.



마지막 때에 관하여 이 땅에서 주님이 확실한 답변을 하셨다면 또 다른 말이 필요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요한 계시록의 서두에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깨달아서 지키는 자들은 복이 있느니라.”(계1:3) 이 말씀을 제일 먼저 하시는 이유가 그겁니다. “내가 지구상에 있을 때 너희들에게 하나님의 도에 관하여 여러 가지 말을 많이 했지만, 그것보다 지금부터 내가 하는 말이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2천 년 동안 요한 계시록에 나오는 예언의 말씀이 무엇인가를 본격적으로 논하는 자가 있었느냐 이겁니다. 주님은 그 영생이 마지막 날에 이루어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를 믿어도 마지막 날이 아니면 구원받습니까? 못 받습니다. 그런데 다들 예수 믿고 죽으면 곧바로 구원받는 줄 압니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성경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으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구원받아 영생하는 것이 언제라고 했습니까? 마지막 날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날이 안 되면 구원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제 얘기가 아닙니다.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님이 “나를 믿으면 이렇게 된다, 저렇게 된다.” 하고 말씀하셨지만, 마지막 때가 되지 않으면 주님의 그 약속은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주님은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도 행하겠거니와, 나보다도 더 큰 일도 행할 수 있다. 그것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이루어진다.”(요14:12)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

니까 “내가 십자가를 지고 하나님께로 가게 되므로 내가 하지 못한 것까지도 나를 믿는 자 중에 할 사람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가 나타나면 주님이 다른 보혜사 성령을 보내어 주를 대신하여 역사하게 한다는 겁니다. 그러한 보혜사 성령이 함께하는 자에게 세상 학문을 가지고 어떻게 당할 수 있습니까?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산 떡이니,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요6:32) 이 말씀을 듣고 바리새인, 서기관, 제사장들과 그리고 따르는 수많은 사람들까지도 수군거렸습니다. “무슨 소리냐? 내가 저 사람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나 나사렛에서 자란 것을 하는데, 하늘에서 내려왔다니 말이 되느냐?”

이때 주님이 “너희들이 내가 하늘로서 내려왔다는 말이 귀에 거슬려 수군거리는데, 내가 임의로 온 것이 아니다.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뜻을 행하러 왔다. 너희의 조상들은 광야에서 주는 만나를 먹어도 죽었거니와, 내가 주는 만나를 먹으면 영생한다. 아버지께서 보내 주는 자가 아니면 아무도 나를 따르지 못한다. 나를 따르는 자들에게 내가 영생을 준다. 즉 마지막 날에 내가 그들을 살리겠다.”(요6:37,39) 이겁니다. ‘마지막 날’이라는 말씀을 한두 번하신 게 아닙니다.

하늘에 올라가 마지막 날에 대한 모든 내용을 알게 된 주님은 이 메시지의 내용을 전하려면 ‘이기는 자’가 나와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거듭 말하지만 “이기는 자가 나오게 되면 내가 그에게 흰 돌을 줄 터인즉,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밖에는 모른다.”(계2:17)고 하셨습니다. 마지막 때에 관한 하나님의 비밀이

그 흰 돌에 담겨 있는 겁니다. 이것은 상징적인 얘기입니다.

그런데 기성교회에서는 열심히 믿으면 누구나 이긴자가 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웃기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이미 마지막 날에 관한 설명을 했어야 하는 겁니다.

영생은 아무 때나 됩니까? 마지막 때가 되어야 합니다. 제가 조금 전에 주님의 말씀을 읽어 드렸잖습니까? 그냥 얘기를 하면 말이 많습니다. 제가 하는 얘기를 이해하지 못하니까 이단이다, 삼단이다, 하고 말합니다. 주님 당시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주님이 아무리 위대한 말씀을 하셔도 듣는 자들은 수군거렸습니다. 그들에게는 사이비로만 들렸던 것입니다. 그리하여 주님이 행하신 이적을 놓고 바알세불에게 씌었다고 단정했습니다. 특히면 악신의 탓으로 돌려 버리는 겁니다.

주님에게도 그러는 판인데, 오늘날 나를 이단으로 모는 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성경에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것이니” (요6:40) 이것은 당시에는 통하지 않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것이라니, 그걸 누가 믿습니까? 그러나 주님은 개의치 않았습니다. 믿든 말든 외치셨습니다.

주님이 이 시간에 보혜사 성령을 보내어 제 입을 빌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저를 보고 왈가왈부할 필요가 없습니다. 제가 성경에 없는 말을 하면 그때 저를 욱하라 이겁니다. 저는 성경 이야기를 하는 사람입니다.

## Chapter 16.

# 마지막 날에 대하여(2)



기독교는 한마디로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려는 종교입니다. 그러므로 신도들은 구원과 영생에 큰 관심을 갖게 됩니다. 그러나 사람이 막상 죽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 잘 모르고, 영생은 단지 막연한 소망에 그치는 경우가 태반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지금 죽으면 어디로 가서 어떻게 된다는 것을 알고 살아가는 시대가 있었느냐? 없었습니다.

죽은 다음의 세계를 잘 모르면서도 현실적인 고통과 어려움을 이길 수 있었던 것은 당사자들이 느끼는 신앙 체험 때문이었습니다. 즉 눈에 보이지 않는 성령이 사람들에게 감각적인 느낌을 주는 겁니다. 그런 체험 때문에,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된다고 하면 ‘그렇겠구나.’ 하고 짐작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든, 혹은 다른 종교를 믿든 간에 일단 신을 체험하게 되면, 남이야 뭐라고 하

던 당사자는 신이라는 존재를 의식하게 되고, 그 존재 앞에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는 약자가 되고 마는 겁니다.

거듭 말하지만 신은 우리를 보고 있는데, 우리는 신을 보지 못합니다. 이 경우에 언제나 보는 자가 승리하게 마련입니다. 그리하여 신은 어떤 신이 됐든 우리를 지배합니다. 눈을 뜬 사람과 장님은 게임이 되지 않습니다. 장님이 삼손과 같은 힘을 가졌다 해도 앞을 보는 사람을 이길 수가 없는 겁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신을 의지하고 믿을 경우에 우리는 그 신 앞에서 머리를 숙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죽은 다음에 어떻게 될지 잘 모르기 때문에 죽음에 대해 공포를 느낍니다. 영의 세계에 이르는 관문은 죽음입니다. 그렇다면 인간은 어떻게 죽음에서 해방될 수 있는가? 기독교는 하나님의 아들의 대속으로 말미암는다고 가르쳤으나, 확신을 주기에는 미흡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감람나무 시대에 와서 비로소 사후의 세계를 조금이나마 엿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인류의 종점이 어디냐? 인류를 주관하는 어둠이 사라질 때입니다. 그것은 신과 신의 투쟁의 결과입니다. 사람이 말세라고 주장한다고 해서 마지막 날이 오는 것이 아닙니다. 신과 신끼리 종지부를 찍어야 합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그 종지부를 찍게 되는가? 이에 대해 하나님은 권세를 맡긴 지상의 사령관에게는 알려 주셔야 합니다. 방법을 알아야 상대방을 멸망시킬 것 아닙니까? 그래서 주의 종이 마지막 날에 대한 내용을 알게 된 겁니다.

아담, 하와가 마귀의 꼬임에 빠져 범죄한 후로 세상은 어둠이 주관합니다. 그리고 그 어둠의 주인공을 마귀라고 말합니다. 그 마귀를 박멸하는 신이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을 성경은 빛이라고 말합니다.(요1:5) 그러니까 어둠과 빛이 싸우는 겁니다. 이때 빛이 어둠을 완전히 물리쳐야 마지막 날이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 마지막 날을 알려면 어떤 여건이 조성되어야 어둠을 물리치게 되는가를 알아야 합니다. 이것을 알기 전에는 언제 끝이 나는지 알 길이 없습니다.

마지막 날은 영원히 미궁에 빠져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내용이 요한 계시록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 계시록에 기록된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은 “때가 가까움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그 내용을 알게 되면 끝 날이 가까워진다고 그 말입니다.

말세가 말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마귀를 이길 수 있는 전력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마지막 날에 대해 알려면 이날을 위해 본격적으로 대비하는 역사에 동참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모르고 예수를 믿는 것하고, 알고 믿는 것은 차이가 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빛과 어둠이 전쟁을 할 때 서로 함께 죽는다면 그런 전쟁은 필요 있습니까? 필요 없습니다. 그런 전쟁은 안 합니다. 그러므로 서로 죽지 않고, 또 피해를 덜 보면서 상대방에게 치명타를 줄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피해를 보

지 않고 마귀를 작살내는 방법을 강구하십니다. 그 방법이 뭐냐?  
제3자를 앞세우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하늘의 군대’라는 말이  
나옵니다.(계19:14)

그렇다면 이런 섭리 안에서 전력을 가다듬는 신앙 운동과 단지  
교회에 왔다 갔다 하는 신앙 운동을 하늘에서 어떻게 보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필요 없는 쪽에 신경을 쓰실 것 같습니까? 여러분이  
자식을 낳아서 키우면 알겠지만, 자기 자식이 50억 인구보다  
귀한 겁니다. 부모는 50억 인구가 다 죽어도 자기 자식이 살아 있으면  
슬프지 않지만, 50억 인구가 다 살아 있어도 자기 자식이 죽으면 슬픈  
겁니다. 제가 비유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필요로  
하실 때 그쪽에 신경을 쓰시는 겁니다.

빛과 어둠이 전쟁을 할 때, “이렇게 되면 끝이니니까 너는 이런 여  
건을 조성해야 한다.” 해서 그 내용을 들은 사람만 자초지종을 알게  
되는 거지, 그렇지 않으면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끝  
내게 된다고 알리는 측에서는 그 일을 하는 장본인이라야 알릴  
필요가 있는 거지, 그 일과는 무관한 자에게 알릴 필요가 있습니  
까? 전혀 없습니다. 뭐 하러 알 필요 없는 자에게 “이렇게 해야 끝난  
다. 그렇게 알고 있어야.” 이런 얘기를 하겠습니까?

수십억이 예수를 믿어도 하늘에서 필요 없는 자들에게 그런 얘  
기를 할 리가 없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날에 대비하기 위해 한 사  
람이라도 필요할 경우에는 그 내막을 당사자에게 설명해 줘야 합  
니다. 그리하여 알게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인자도 모르고 천

사도 몰랐던’ 것을 이긴자가 알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권총 하나를 만들어도 제대로 됐나 하고 실험을 합니다. 그리하여 완벽하다고 인정되어야 사용하게 됩니다. 이처럼 조그마한 무기 하나도 전쟁 물자는 엄격히 관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전쟁에서 무기로 쓰신다면 우리를 덮어놓고 무기 창고에 넣어 두시겠습니까? 확실히 쓸 만하다고 인정되어야 무기 창고에 갖다 두는 겁니다. 쓸 수 없으면 내버리든가, 아니면 고치든가, 해야 합니다. 이 무기 창고를 ‘지성소’다, 이렇게 말합니다.

지성소는 하나님이 쓰시는 무기고입니다. 누구를 상대로 해서 쓰십니까? 마귀, 곧 어둠을 상대로 쓰십니다. 그러니까 무기가 제대로 만들어져야 지성소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 무기는 하나님이 마귀와 전쟁할 때 필요한 하늘 군대를 가리킵니다.

여러분, 일반 기독교에서 이런 내막을 압니까? 알 수 없습니다. 왜? 알릴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알리지 않습니다. 100억이 예수를 믿어도 하나님은 신경을 쓰지 않습니다. 그런데 저는 혼자 있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그런 가르침을 받았습시다. 그 이유는 하나님이 쓰실 무기를 만들어 내는 것이 제가 할 일이기 때문입니다.

전쟁할 때 적에게 치명타를 입힐 수 있는 폭탄 하나가 필요한 거지, 수천, 수억의 백성은 필요 없습니다. 그건 전쟁이 끝났을 때 평화롭게 사는 백성에 불과합니다. 전쟁할 때에는 소용없습니다. 폭탄 앞에 맨주먹이 무슨 힘을 씁니까? “창세 이후로 어린 양의 생명



책에 녹명된 자가 아니면 짐승을 이길 자가 없느니라.”(계13:8) 짐승은 누구를 말하는 겁니까? 마귀를 말하는 겁니다. 하늘나라의 지성소로 들어가는 자는 영적으로 하나님의 무슨 역할을 합니까? 무기, 즉 군대 역할을 하는 겁니다.

임금은 일선에 나가 전쟁을 하지 않습니다. 임금은 궁궐에 있고, 장군들이 나가서 적군을 이기면 임금은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아도 승리자가 됩니다. 왜 성경에 이긴자, 이긴자 하는가? 이긴자가 좋아서 그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직접 나서지 않고 이기려고 이긴자를 세우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형 무기를 생산하기 위해서입니다. 재래식 무기로는 백 번 싸워 봐야 이기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신형 무기를 들고 쳐 버려야 합니다. 원자탄 두 방에 일본 천황 히로히토는 항복했습니다. 수백 개, 수천 개의 폭탄을 퍼부어도 끄떡없던 일본이 원자탄 두 방에 가 버렸습니다.

이긴자는 비유입니다. 성경에 철장을 가지고 질그릇 깨뜨리는 것같이 한다고 했습니다.(계2:27) 이를테면 핵무기와 같은 것을 갖는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렇게 상징적으로 표시해 놓은 겁니다.

오늘날 여러분이 보시다시피 많은 무리가 하나님을 공경하고 주님을 믿어도 마귀 하나 이기지 못합니다. 자기 속에 마귀가 들어가 있는 것도 모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마지막 날의 내용을 알고, 또 영의 세계를 근사치라도 알고 믿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의 섭리를 모르면 하나님을 올바로 섬길 수가 없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이 우리를 왜 귀히 보십니까? 하나님과 주님 대신으로 우리를 쓰시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이 자가용을 몰고 다니면서 닳고 털어 깨끗하게 하는 것은 자기를 편안하게 태워다 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가용이 귀한 겁니다. 마찬가지로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보다 똑똑해서 특별히 대우해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쓰시려고 그러시는 겁니다.

## Chapter 17.

# 유대인의 교훈



하나님이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신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이루어진 백성을 이스라엘 민족이라고 말합니다. 이들은 하나님을 배반하여 징계도 많이 받았고, 또 이방인들과 전쟁도 많이 치렀으며, 예수님 시대에 와서는 저주도 받았습니다. 이들이 자랑하는 예루살렘 성전이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다 부서지게 된다고 주님은 저주를 내렸습니다.(마24:2) ‘너희는 단일 민족이지만 열방을 유리방황하는 집시(떠돌이)의 생활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 저주는 주 후 70년, 로마 군대에 의해 이루어졌습니다. 이스라엘이 독립된 오늘날까지도 그 여파가 지속되어 분쟁이 그치지 않습니다.

그러나 역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이 택하신 선민입니다. 뼈대와 뿌리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을 받고 그 혈통을 존중했던 민족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세계 각국에 흩어져

박해를 받으면서도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긍지를 잃지 않았습니다. 한편 주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축복을 받으리라.”(마21:43)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단결력은 대단합니다. 서로 돕지 않으면 지구 상에서 사라지고 만다는 것을 이들은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네가 살아야 나도 살고, 내가 살아야 너도 산다는 의식이 강합니다. 그리하여 이들은 세계 각국에 흩어져 살면서도 결코 다른 민족에게 흡수되지 않았습니다.

이들은 독일에 많이 살면서 엄청난 돈을 모았지만, 1차 대전 당시 독일의 군수 산업 지원에 매우 인색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히틀러의 눈엣가시였습니다. 돈이 많아도 독일을 위해서는 짜게 군다는 겁니다. 그래서 언젠가는 자기가 정권을 잡게 되면 완전히 저들의 씨를 말리겠다고 결심했습니다.

드디어 히틀러가 정권을 잡게 되자, 유대인들을 탄압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하여 결국 600만이나 학살되었습니다. 2차 대전 후에 겨우 독립해서 옛 가나안 땅을 되찾았으나, 오늘날 예루살렘에는 이슬람교, 유대교, 기독교가 공존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독립을 한 후에도 예루살렘을 서로가 계속 자기 땅이라고 싸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의 정신 무장은 대단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전쟁을 하게 되면 외국에서 공부하는 유학생들까지도 자진하여

싸움터로 향합니다. 그들은 일치단결하여 목숨을 걸고 나라를 위해 싸우는 겁니다. 그것은 세계 어느 곳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무서운 정신력입니다.

오늘날 경제와 과학, 예술 분야까지도 거의가 유대인들이 장악하고 있습니다. 미국 금융계의 중심인 ‘월가’도 그들이 주무르고 있습니다. IMF다 뭐다 하여 세계시장을 좌지우지하는데 그 중심 인물들이 바로 유대인들입니다. 그러니까 미국을 움직이는 것이 유대인들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영화계에서 유명한 스티븐 스필버그도 유대인이고, 세계 최고의 미녀라고 일컫는 엘리자베스 테일러도 유대인입니다. 미국 외교의 대부인 키신저와 과학의 천재 아인슈타인도 유대인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미국이 제1급의 대우를 하는 나라가 바로 이스라엘입니다.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이스라엘 민족은 다 합쳐도 1,500만밖에 안 됩니다. 그런 민족을 미국은 무서워합니다. 왜 무서워하는가? 1500만이 15억, 20억 인구를 능가하는 힘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세계 최대의 강국을 자랑하는 미국이 불과 1,500만밖에 안 되는 이스라엘 민족을 무서워합니다. 인구 2억 5천이나 되는 미국을 전 세계에 흩어져 사는 1,500만의 유대인들이 움직인다고 할 정도입니다.

제가 왜 오늘 이런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리느냐 하면, 우리는 영적 이스라엘 민족이기 때문입니다. 영적 이스라엘 민족의 처지를 한 번 돌아봅시다. 지상에서 에덴성회처럼 핍박받고 조롱받는

곳은 없습니다. 여기서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유대인을 닮아야 합니다. 유대인들의 힘이 어디서 오느냐? 단결에서 옵니다. 그래서 세계는 그 민족을 무서워합니다. 한국 민족은 개인적으로는 실력이 대단하다고 하지만, 두세 사람만 모이면 싸운다고 합니다. 개인적인 실력은 다른 민족의 어느 누구에게도 빠지지 않는데, 모였다 하면 와해됩니다. 일본은 어떠냐? 개인적으로는 약합니다. 그런데 뭉치면 엄청난 힘을 발휘합니다. 이건 민족성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는 눈앞에 엄청난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이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뭐냐? 이스라엘 민족의 장점을 본받아야 합니다. 세계의 정보 계통에서 가장 유명한 것이 미국의 CIA입니다. 우리나라에는 안전기획부가 있고, 소련에는 KGB가 있고, 그 밖의 나라에도 정보기관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정보기관은 CIA를 훨씬 능가한답니다. 그래서 CIA에서 모르는 것을 이스라엘 정보기관을 통해 알아낸다고 합니다.

미국의 부시 대통령이 이라크 후세인 대통령과 싸웠습니다. ‘걸프 전쟁’이 그겁니다. 이라크는 바벨탑을 세운 나라입니다. 이때 후세인이 미국의 우방인 이스라엘에 탄두 미사일을 한 방 날렸습니다. 그러자 이스라엘은 이라크를 일주일 안에 초토화시키겠다고 했습니다.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그렇게 하고도 남습니다. 이때 미국에서는 체면상 이스라엘을 말렸습니다. “우리가 해결할 테니까 제발 가만히 있으라.”고 말입니다. 이스라엘의 보복은 대단합니

다. 그들은 눈은 눈으로 갖고, 이는 이로 갖고 있습니다. 그게 율법입니다. 그것이 대대로 골수에 박혀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를 맞으면 백을 때립니다.

제가 미국 갔다 오다가 하와이에 들른 적이 있었습니다. 관광 코스에 속하는 하와이 민속촌에서는 세계 각국 사람들이 모여 여러 가지 오락을 하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등장했습니다. “어디서 왔습니까?” 하고 누가 묻자, “나는 택함을 받은 이스라엘 민족입니다.” 하고 자랑스럽게 대답하는 것이었습니다. 누구에게 택함을 받았다는 겁니까?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의 머릿속에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고정관념이 깊이 박혀 있습니다. 그들의 자부심과 협동 정신은 대단합니다.

LA에는 우리나라 사람이 몇 십만 모여 사는데, 같은 동포끼리 고소 고발이 그치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렇게 같은 민족끼리 적개심이 강한 것은 우리 교포뿐이랍니다. 창피한 얘기입니다. 제가 LA에 사는 교포들에게서 들은 얘기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다른 나라 사람들은 서로 도와가면서 잘되게 하는데, 한민족은 서로 망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미국이 강대국이지만 프랑스 사람들은 자존심이 강하여 미국을 알아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미국에 가도 영어를 쓰지 않습니다. “왜 우리가 영어를 쓰느냐? 영어보다 불어가 더 월등한데 너희들이 불어를 배워야지.” 이렇게 콧대를 세운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이처럼 그들은 민족성이 강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어때냐? 주체성

이 약하여 옛날부터 사대주의에 빠져 있습니다. 강한 나라에 의지하고 아부하는 겁니다.

이집트와 시리아, 요르단 등이 연합하여 이스라엘과 전쟁한 적이 있었습니다. 유명한 ‘6일 전쟁’이 그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이들 연합군과 싸워 이겼습니다.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지시에 따라 엄청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 시점에서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에게서 배울 것은 배워야 합니다. 우리는 영적 이스라엘 민족이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형제 하나가 잘되는 것이 내가 잘되는 것이고, 믿음의 형제가 고통을 당하는 것이 내가 고통을 당하는 것이라고 생각해야 합니다. ‘너는 너, 나는 나, 네까짓 거 하나쯤 없어도 그만이다’ 이렇게 생각한다면 하나님의 역사는 이루어질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나라 속담에 ‘백짓장도 맞들면 낫다’고 했습니다. 누구나 하나님의 역사에 없어서는 안 되는 일꾼입니다. 그러므로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역사에 지장을 주어서는 안 됩니다. 잘 믿지는 못 할망정 짐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10년이면 강산이 변한다고 했습니다. 그동안에 우리는 꾸준히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 나름대로 힘써 왔습니다. 주의 종과 여러분이 고생을 함께 나누면서 이 시점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가장 어려운 시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런 때일수록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준행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이방인들에게는 자랑거리를 보여줘야 합니다. 그러므로 저마다 내가 아니면 안



된다는 사명감을 느끼고 하나님의 역사에 헌신해야 합니다.

제2의 감람나무 역사가 얼마나 귀하고 영광스럽습니까? 모르는 사람들에게는 천덕꾸러기일지 몰라도, 아는 사람들에게는 생명의 길입니다. 우리는 무너진 앞선 역사를 다시 세워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앞선 역사를 훌륭히 재건하여 영의 세계에 가서 주 앞에 잘했다 칭찬 받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 Chapter 18.

# 하나님의 전략과 이긴자



우리는 하나님의 깊은 사정을 조금이나마 헤아리게 되는 역사를 만났기 때문에 감히 신과 신의 움직임을 객관적인 위치에서 바라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막연하게 하나님을 공경하고 주님을 믿는 기독교의 신앙 안에서는 상상도 하지 못할 일입니다.

성서를 통하여 우리는 대단히 놀라운 하나님의 발자취를 보게 됩니다. 기독교라는 새로운 종교를 창시하신 그리스도께서 지상에 오신 이후에는 가르침이 많이 부드러워졌습니다. 창과 검 대신에 사랑의 손길을 펴는가 하면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는 보복을 양보와 인내로 대신하게 되었던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통틀어 진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어떠한 경우에도 때가 되면 승리하고야 맙니다.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사랑을 강조한 것은 신과 신의 보이지 않는 대결에서 하나의 전략적인 변

화로 봐야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하나님만 압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모르는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아무 가치도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노라고 하는 우리에게도 하나님과 교류가 없고 연관이 맺어지지 않는다면 가치가 없는 겁니다. 문제는 하나님이 그 시대에 무엇을 어떻게 역사하고자 하느냐가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그러나 어떤 전략적인 변화가 있을지라도 그 변화가 하루아침에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그것이 적용되기까지는 긴 시간이 걸립니다. 왜냐하면 종래의 관행과 선례가 지속되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새로운 차원으로 다르게 전개하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이 점은 하나님도 잘 아십니다. 감람나무를 하나가 아닌 둘로 책정해 놓은 것도 그 때문입니다. 한 시대에 한 사람으로 모든 작업을 마치기에는 시간이 너무 촉박한 겁니다. 그리하여 단시일에는 도저히 마칠 수 없기 때문에 유종의 미를 거두기 위해서는 두 사람을 세울 필요가 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미리 내다보신 겁니다.

즉흥적으로 한 시대의 역사를 이뤄 나가는 경우에는 그때그때 선지자들을 세우면 되겠지만 독특한 역사를, 다시 말하면 새 시대를 맞으려는 경우에는 양상이 달라집니다. ‘여호와와의 아시는 한 날’(속14:7)이 있다고 한 예언을 이루는 것은 결코 간단한 작업이 아닙니다.

세상에서도 전쟁을 할 때 전략이 노출되면 대단히 불리해집니다. 그래서 그 전략을 캐내고자 스파이들이 몰래 활동하게 됩니

다. 운동 경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가 일본과 축구를 할 때에는 당연히 상대방의 기량과 전술을 알려고 하고, 권투 시합을 할 때에는 상대의 장단점을 알고 대처합니다. 이와 같이 지극히 작은 분야에서도 전략이 필요한 겁니다. 그 전략이 잘못되는 날에는 결국 패배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에도 정탐꾼을 파견하여 원주민의 실태와 동향을 살펴보고 적절한 전략을 세웠던 것입니다.

신과 신의 싸움에서 전략은 더욱 중요한 요건이 됩니다. 그것은 결코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나라와 나라가 전쟁을 할 때에도 전략이 대단한데, 우주를 지으신 하나님께 감히 도전하는 마귀와 전쟁을 할 때에는 그 양상이 격렬한 겁니다. 인간이 신의 전쟁을 헤아리지 못하고 있는 것뿐입니다. 그저 우물 안 개구리처럼 예수를 믿기만 하면 다 되는 줄 알고, 안심하고 은혜를 조금 받으면 장땡인 것처럼 착각하다가 죽는 것이 인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경륜과 섭리를 알게 되면 거기에는 어마어마한 내용이 들어 있다는 사실에 놀라게 됩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성서는 태양계를 중심으로 우주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만, 오늘날 과학이 발달하여 창세기부터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 우주에는 은하계가 수도 없이 많습니다. 우리 태양계가 속해 있는 은하계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 은하계를 벗어나면 또 많은 은하계들이 있습니다. 그 많은 은하계는 빛의 속도로 몇 백만 광년이 걸리는 거리에 산재해 있는 것을 망원경으

로 얼마든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창세기는 너무나 빈약한 내용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빛과 어두움을 나누사 빛을 낮이라 칭하시고 어두움을 밤이라 칭하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창1:4-5) 이것은 오늘날 과학자들의 눈에는 한갓 동화 같은 얘기에 불과합니다.

당시에 하나님께서 인간들에게 천지창조에 대한 개념을 심어 주실 때, 우주관을 태양계로 국한해도 인간들은 태양계가 너무나 엄청나서 이해하기 어려웠던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어떻게 은하계에 대해 언급하실 수 있었겠습니까? 예수님 시대만 해도 지구는 평평해서 땅끝에 가면 낭떠러지에 굴러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갈릴레오가 지구가 둥글다고 주장한 것이 지금부터 400년 전입니다.

오늘날 감람나무다, 이긴자다 하고 떠드는 것부터가 우스꽝스러운 겁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당신의 섭리 가운데서 “옛날 스가랴 시대에 예언했던 것이 지금 네 시대에 이루어진다.”고 하시니까 그런가 보다 하는 것뿐이지, 우리가 그 시대로 거슬러 올라가 볼 수도 없는 거고, 그때까지 이뤄온 하나님의 경륜을 우리가 이렇다, 저렇다, 할 수 있는 처지도 아닌 겁니다. 문제는 인간과 신의 함수 관계입니다. 신은 뭐고, 인간은 무엇인가, 하고 새삼 문제 삼을 때 신에게 인간이 필요한 것을 알게 되고 인간의 존엄성을 느끼게 되는 겁니다.

성서에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오고 간 교류의 양상과 마귀가 인간에게 역사한 흔적이 기록되어 있지만, “신과 신끼리 이렇게 싸웠

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그렇게 알아라.” 이런 기록은 없습니다. 다만 요한 계시록에 그 윤곽이 조금 언급되어 있을 뿐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인간하고 교류하시면서 하나님이 요구하신 내용과 그것을 못하게 가로막는,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떤 세력에 대해 기록되어 있는 것이 성경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한계를 벗어날 수 없습니다. 그 한계 안에서 우리는 지지고 뚫고, 믿고 바라고 있습니다.

하나님에게 버림을 받으면 죽는 거고, 그 손길 안에 있으면 축복 받는 겁니다. 그리하여 성경을 통해 하나님의 존재를 의식하고 경배하는 곳이 교회입니다. 목회자에게 “우리가 죽으면 어디로 갑니까?” 하고 물으면 “천당 가지.” 할 뿐, 그 이상의 대답을 기대할 수 없습니다. 어떤 종교도 죽음 뒤에 오는 영의 세계는 감히 상상할 수 없는 겁니다.

인간은 어느 한계 안에서 이성(理性)으로 왈가왈부하는 거지, 그 이상은 알 길이 없습니다. 감각만 해도 그렇습니다. 들을 수 있는 소리만 듣고, 볼 수 있는 것만 보는 겁니다. 박테리아균을 우리가 눈으로 보길 합니까, 전파를 우리가 귀로 듣기를 합니까? 못 보고 못 듣는 겁니다. 그런데 인간이 모르는 바깥 세계에서 일어나는 엄청난 일들을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인간이 알고 있는 것과는 감히 비교가 되지 않는 엄청난 것이 있다 이겁니다. 그럼 그 이상 엄청난 것이 뭐냐? 바로 신의 움직임입니다. 이런 신의 움직임을 우리는 다 헤아릴 수 없습니다. 다만 신과 신의 대결에서 승패에 결정적인 역할을 인간이 갖고 있더라는 겁니다.

오늘날 정치하는 사람들이 캐스팅보트(casting-vote)를 쥐고 있다는 말들을 곧잘 합니다. 두 당이 겨룰 때 어느 한쪽을 돕느냐에 따라서 이기고 지는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지금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들에게 지극히 작은 힘을 보태줄 것을 요구하고 계시는 겁니다. 인간의 작은 힘이 하나님께 더해지면 대적하는 상대방 신에게 결정적인 타격을 가할 수 있는 겁니다.

사람이 물에 빠지면 지푸라기라도 붙잡으려고 한다는 속담이 있습니다. 지푸라기는 인간에게 보잘것없는 거지만, 우리가 물에 빠져서 허우적거릴 때에는 지푸라기 하나라도 붙들고 의지해 보려는 마음이 생기는 겁니다. 하나님도 인간의 미약한 힘이나마 필요로 하는 싸움이 전개될 때에는 인간이 하나님에게 결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에게 연약한 인간의 힘이 크게 보탬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도와드리는 작업을 중점적으로 전개하는 것이 감람나무 역사입니다. 왜 감람나무 역사를 하늘에서 필요로 하시는지 아시겠습니까?

어떤 싸움에서나 전략이 노출되면 집니다. 상대가 사전에 차단하기 때문입니다. 2차 대전 때 미국이 일본을 원자탄으로 작살내는 것을 일본에서 미리 알았다면, 일본은 그 원자탄을 제조하는 장소를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박살냈을 겁니다. 가미가제(神風) 특공대들이 목숨을 걸고 사전에 박살냅니다. 자기들이 망하는 판인데, 가만히 보고만 있겠습니까?

제가 감람나무 역사를 처음 시작할 때, 이미 고인이 되신 앞선

역사의 그분은 나에게 대해 미리 알았습니다. 내가 15중앙 전도관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사람을 시켜 “녹음테이프를 가지고 장로님을 만나, 내가 주님의 지시를 받고 전도관에 다시 들어왔다는 말씀을 드리고, 내가 장로님을 만나야 이 시대가 산다고 설득하라.”고 보냈을 때, 만난다고 해 놓고 다른 사람을 시켜 내가 보낸 사람을 따돌렸습니다. 이때 주께서 박 아무개가 노발대발하는 장면을 이상 중에 보여주시고, 말을 듣지 않으니 “따로 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이때 부터 주의 종은 ‘이 시대가 고통의 연속이구나. 수많은 사람들이 다치게 생겼구나.’ 하고 직감적으로 느끼고, 따로 하나님의 역사를 시작했던 겁니다.

그는 감람나무가 둘이라는 것을 아는 사람입니다. 알면서 인계하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저한테 온 사람은 몇 안 돼도, 감람나무의 체계를 들고 나와 안찰을 한다, 생수가 만들어진다 하는 말에 충격을 받은 겁니다. 그분은 감람나무가 아니면 생수가 안 된다는 것을 잘 압니다. 그러니 충격을 받았던 겁니다. 알면서도 물려줄 생각은 하지 않고, 성경을 왜곡시켰다가 계시록의 말씀 그대로 간 겁니다.(계22:19) 두 감람나무라는 주장이 진리이고, 한 감람나무라는 주장은 비진리입니다. 비진리가 진리를 당합니까? 못 당합니다. 그는 내가 살면 자기가 죽는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나를 죽이려고 했던 겁니다.

“다윗이 죽인 수는 만만이요, 사울이 죽인 수는 천천이다.” 하여 다윗이 사울의 라이벌이 될 때, 왕은 둘이 있을 수 없으니까 둘 중에



하나가 밀리던가, 죽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사울처럼, 앞선 역사의 그분은 두 감람나무를 인정하느냐, 하나를 없애느냐 하는 기로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이때 그는 없애는 쪽을 택했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전략을 세워 움직여 나갑니다. 예를 들어, 성경에 메시아다, 감람나무다, 뭐다, 이런 뼈대는 있습니다. 그러나 구체적인 내용은 자세히 실려 있지 않습니다. 전략이 드러나니까 가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 계시록에 가장 중요한 전략인 ‘일곱 우레가 발한 것’을 기록하지 말라고 했습니다.(계10:4) 그 전략은 당사자가 나와야 드러납니다. 그 기록하지 말라는 내용은 이뤄야 하는 사람만 알게 되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알면 뭐 합니까? 알 필요가 없습니다. 전쟁할 사람이나 알아야 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은 알 필요가 없는 겁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남북이 대치하고 있지만, 38선 이북에서 어떻게 움직이는지 우리는 모르지 않습니까? 그러나 군인들은 다릅니다. 전략적으로 어떻게 움직이느냐를 주시해야 합니다. 오키나와에 기지를 둔 미국 공군의 비행기가 지금도 24시간 떠 있습니다. 평양에서 탁구공 하나가 운동장에서 어디로 굴러가는 것까지 손바닥 보듯이 다 드러납니다. 탱크가 어디로 움직이고 포병이 어떻게 이동하는지 미국이라는 나라는 전 세계를 손바닥 안에 놓고 지켜봅니다. 그런 엄청난 정보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적의 동태를 모르면 백전백승이 아니라 백전백패합니다.

주님은 이 역사를 시작하기 전에 주의 종에게 오늘의 시대적인 배경을 설명해 주신 겁니다. 온 세상의 주를 모시고, 유일하게 빛의 역할을 하여 어둠과 싸우던 감람나무 역사가 무너지면 하나님의 계획이 백지로 돌아가게 되는 겁니다.

오늘날만 그런 게 아닙니다. 모세 때도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택하시기 전에 아브라함하고 언약을 하신 다음에 수백 년이 흘렀습니다. 그동안에 이스라엘 민족은 애굽 땅에서 200만을 헤아리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이걸 다 계산하신 겁니다. 모세를 시켜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인도하게 할 때, 백성들의 범죄로 하나님의 계획이 무산됩니다.

그래서 새로운 계획을 모세에게 말씀했습니다. “내가 아브라함을 통해 내 백성을 삼았는데, 특하면 딴 신을 섬기고 나를 받들지 않으니, 저들을 전염병으로 모조리 멸하고, 네 자손을 통해 저들보다 크고 강한 나라를 이루게 하겠다.”(민14:12) 대단히 놀라운 얘기입니다. 성서를 그냥 보는 사람은 그 내막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저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갑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엄청난 변화를 단행하시겠다는 겁니다.

우리 시대가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저에게, 소위 앞선 역사의 감람나무 가지들을 “지면에서 다 쓸어버리겠다.”고 말씀하셨던 겁니다. 첫째 감람나무가 패망하니까 둘째 감람나무가 있더라도 포기해 버려야겠다, 그 소리입니다. 그래서 그걸 만류하고, 노하심을 풀어 드리려고 오늘날 우리 역사가 이 시점까지 온 겁니

다.

앞선 감람나무의 역사가 무너져 내리니까 사실상 이 시대에 빛이 꺼졌습니다. 그래서 주님도 한탄하신 겁니다. 육적으로 보면 박아무개가 사라지는 것 같아도 영적으로는 그게 아닙니다. 감람나무는 기독교를 대표하는 존재입니다.(눅4:14) 우리나라를 일본에게 빼앗겼을 때 일본이 다스린다고 우리나라가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땅과 백성들은 그대로 있습니다. 그런데 통치자가 일본입니다. 기독교가 붕괴된다고 해서 교회와 교인이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와 교인은 그대로 있습니다. 예배를 다른 신이 받는 겁니다.(눅4:6 참조) 이게 문제입니다.

옛날 엘리아 시대에 바알의 선지자들에 대한 기사가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왕상18:40) 시돈 왕의 딸이며 이스라엘 아합 왕의 아내가 되어 우상을 섬긴 이세벨(왕상16:31)에게 동조하여, 당시 사람들은 바알의 하나님이라는 명목으로 제사를 지냈습니다. 바알은 가나안 땅의 주신(主神)입니다. 그런데 바알 신에게 드리는 제사 제도와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 제도가 비슷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부르되 바알에게 영광이 돌아가는 제사를 드렸던 겁니다. 그들 때에는 우상을 섬기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섬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은 모릅니다.(왕상18:21) 오늘날 기독교가 이와 비슷합니다.

기독교의 십자가는 주님의 것이고, 성경과 찬송가도 주님을 위한 겁니다. 그런데 점령을 당하면 하루아침에 지배자가 바뀌어 버립니다.

다. 그리하여 찬송과 기도가 하늘로 오르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바뀌어 축대가 옮겨지기 때문에(마21:43) 그런 엄청난 현상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그것을 구분하지 못합니다.

예수님 시대에도 그랬습니다. 갈증을 느끼신 주님이 물을 마시러 가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물 한 그릇 주시죠.” 하니 “어떻게 천한 여인에게 유대인께서 물을 달라고 하십니까?” 해서 여러 가지 대화를 나누다가 새로운 제사 제도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요4:21-24) 그 여인이 “그건 메시아라는 존재가 나타났을 때의 얘기인데, 어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하고 물었을 때 “너와 지금 이야기를 나누는 사람이 바로 그니라.” 하니, 그녀가 메시아를 만났다 해서 마을 사람들에게 떠든 것이 성경에 나옵니다.

주님이 나타나시기 전까지는 모세 율법에 따라 하나님께 제사를 지내다가, 주님이 나타나 “모든 율법과 선지자들의 강령은 세례 요한 때로 끝났다.”(마22:40)고 종지부를 찍으셨습니다. “앞으로는 메시아를 통해 하나님과 교류가 시작되는 시대이다.” 하고 주님은 시대적인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누가 그것을 믿어 주겠습니까?

오늘날 보십시오. 앞선 역사를 이어서 두 번째 감람나무 시대가 전개된다고 백 번 떠들어야 누가 알아줍니까? 그러나 감람나무 역사를 비방하는 사람들을 나무랄 수도 없는 겁니다. 이 시대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어지러운 가운데 오늘날 우리 역사가 헤쳐 나가고 있는 겁니다. 이때 하나님의 일을 맡은 주의 종에게는 비상한 각오가 요구됩니다. 종래의 목회 차원에서는 하려고 해야

할 수도 없고, 또 해 봤자 소용도 없는 겁니다. 그럴 바에야 하나님께서 기성교회를 상대하지, 뭘 따로 이렇게 시키겠습니까? 그렇다면 이미 있었던 감람나무 역사가 무너진 다음에 다시 조금씩 회복하면서 어둠의 세계에 빛을 하나하나 심어 가는 작업을 펼칠 때의 전략은 독특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건 완전히 전쟁입니다.

하나님께서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대표하는 아브라함과의 언약을 수백 년 동안 지키셨지만 이들이 못마땅하니까 모세에게, “네 자손을 가지고 다시 해야겠다.”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이라면 알 거 아닙니까? 앞선 역사가 붕괴됐을 때 하나님은 얼마나 통탄하셨겠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부족한 우리끼리 모여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어간다고 발버둥을 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얼마나 우리 시대의 하나님의 역사가 어렵고 험난한가를 알 수 있는 겁니다.

왜 저 같은 부족한 사람에게 전무후무한 권세를 맡겨 주시는가? 누차 말씀드렸지만, 제가 잘나서 저를 대우해 주시는 게 아닙니다. 당신에게 유리한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서 저를 쓰시는 겁니다. 그리하여 제가 26년째 하나님의 심부름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해하지 못할지라도 저는 당사자입니다. 저는 주의 지시를 받고 별소리를 다 들어가면서 오늘날까지 일해 오고 있습니다. 감옥에 들어가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고, 나와서도 지시를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따라올 뿐이고, 저는 알곡을 만들어 가는 겁니다. 하늘에서 계획하면 뭘 합니까? 하늘에서 재료를 주셔서 실제로 일하는 사람은 저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쳐서 비틀거

리면 하늘에서 붙들어 주십니다.

옛날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뜻을 주님이 이루려고 오셨을 때, “아버지여,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멀리해 주십시오.” 하고 기도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원하시고 주님은 그걸 싫어하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마음속으로 싸우셨던 겁니다. 땀이 핏방울처럼 떨어지도록 말입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어 힘을 주셨습니다.(눅 22:43)

오늘날 감람나무 역사라고 해서 저절로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힘듭니까? 아무리 주께서 보여주시고 길을 열어 주시고 여러분의 마음을 감동시켜 주신다고 해도, 주의 종은 안과 밖으로 몹시 시달리면서 일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 기독교인들이 수억이 되지만, 그들이 이 시대 하나님의 섭리의 윤곽이라도 알기를 합니까? 감감소식입니다. 얼마나 어려운 시대를 맞이했는가를 피부로 느끼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스스로 한 번 생각해 보십시오. 열심히 노력하시면서도 때로는 감정대로 살고, 자기 위주로 사는 때가 많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여러분을 어떻게 보시겠습니까?

지금 우리는 감람나무 역사를 조금씩 회복해 가고 있습니다. 앞선 역사는 그림자처럼 서서히 사라져 가고, 하늘에서는 그 그루터기라도 건져 보시려고 무던히 노력하십니다. 저는 중간에서 일하면서 감람나무 역사를 하늘에서 얼마나 중요시하는가를 몇 차례 느꼈습니다. 오늘의 기독교를 놓고 볼 때, 우리는 수에 있어서 속된 말로 새 밭의 피밭에 되지 않습니다. 기독교에서는 우리가 있

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입니다. 그런데 하늘에서는 우리 역사에 대해 대단히 관심이 많으십니다.

하나님께서서는 “감람나무 역사는 내가 일으킨 거니까 힘들어도 다시 세우라.”는 겁니다. 서울만 봐도 훌륭한 교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우리 알곡성전을 이 산골짜기에 지었을 때 하나님께서 “어려운 가운데서 네가 내 성전을 짓느라고 고생이 많았다. 내가 이제 너를 존귀케 해주겠다.” 하고 치하의 말씀을 하셨다는 것을 저는 전에도 알려드린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우주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천막을 이렇게 쳐서 이건 성소, 이건 지성소, 이건 제단이니, 여기에 제물을 놓고 내게 제사를 지내라.” 하고 지시하셨습니다. 하나님은 큰 데만 관심을 갖는 것이 아닙니다. 모세 시대의 성막에 비하면 우리 성전은 엄청 큰 겁니다. 그런데 교회만 크면 뭐 합니까? 하나님이 애지중지하는 교회라야지, 하나님이 거들떠보시지 않는 교회는 무의미합니다.

모세 시대까지 하나님이 거할 곳이 없었지 않습니까? 그러나 다른 신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바알을 섬기는 신당도 많았고, 아세라를 섬기는 신당도 많았고, 그모스다, 뭐다 하는 신을 섬기는 신당은 엄청나게 많았습니다. 그런데 지구상에 하나님을 섬기는 신전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모세 시대에 하나님을 천막에 모신 겁니다. 그래서 ‘초막이나 궁궐이나’ 하는 찬송가도 있습니다. 다른 신을 위해서는 산당이니 회당이니 하여 으리으리하게 세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화가 나신 겁니다. 바알을 섬기는 산당을 작살내 버려라 이겁니다. 그때 지구상에서 바알의 위력이 대단했기 때문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바알의 산당을 다 헐어 버려라.” 이겁니다.(신7:5) 이걸 신과 신의 싸움입니다.

저는 25년간 하나님의 심부름을 하고 있습니다만, 생각해 보면 참 신기합니다. 위에서 성령이 와서 여러분에게 혜택이 가는 겁니다. 그렇다고 내가 하나님을 다 아느냐? 아닙니다. 어떻게 다 알겠습니까? 보여주시고 들려주시는 한계 안에서 아는 거지, 그 이상은 모릅니다. 그러나 그렇게 심부름을 하다 보니까 신과 신의 함수 관계를 알게 된 겁니다.

부모가 외부 사람들하고 크게 다투면, 다는 몰라도 자식은 ‘아, 우리 아버지가 이런 애로가 있는 것 같구나. 그래서 고민하시는 모양이구나.’ 하고 짐작합니다. 저도 그 식입니다. 자꾸 하나님으로부터 지시를 받다 보니 ‘아, 하나님이 이래서 이렇게 하시는구나.’ 하고 짐작은 할망정, 그렇다고 “하나님, 왜 그러십니까?” 이렇게 반문할 수는 없겠습니까?

오늘날 우리 역사는 하나하나 차근차근해 나갑니다. 우리 힘이 엄청 커져야 하는 게 아닙니다. 전에도 말했지만 신과 신의 중간에서 캐스팅보트의 역할을 우리가 한다 이겁니다. 그러므로 남이 볼 때에는 지극히 작은 일 같아도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결정적인 도움을 드릴 수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역사에 큰 관심을 갖고 이래라저래라 간섭하시는 겁니다.



## Chapter 19.

# 하나님의 자비에 대하여



오늘날 인간은 과학을 크게 발달시켜 우주 시대를 열었으나, 자기가 죽은 다음의 세계에 대해서는 알지 못합니다. 우리는 현실을 중요시하여 육체를 갖고 사는 동안 향락에 매우 민감하다는 사실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이런 인간이 눈에 보이지 않는 영의 세계를 바라보고, 당장 손해가 나도 이를 감수하고 현세의 즐거움을 멀리한다는 것은 신앙이 아니면 어려운 겁니다. 이렇게 행동하기 위해서는 먼저 사후 세계를 제대로 알아야 합니다. 그리하여 주위 환경이 어떻게 변하든,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지시하신 모든 일들을 성실하게 이행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과제입니다.

주님은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사단이 하늘에서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눅10:18)고 말씀하시고, 사로잡히지 않도록 경

각심을 가지라고 당부하셨습니다. 그때만 해도 악의 세력은 지금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주님은 마귀에게 사로잡히지 않도록 경계하셨습니다.

오늘날 주께서 흘리신 피권세로 요원의 불길처럼 일어났던 앞선 하나님의 역사가 패망하고, 그 뒤를 같은 역사가 이어가고 있습니다. 세월의 흐름은 아무도 막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도 한 해, 두 해 나이가 들어갑니다. 이 자리에는 여러 연령층에 속하는 분들이 앉아 계십니다. 얼마 안 있으면 나이가 많아서 세상을 떠날 사람도 있고, 앞날이 창창한 젊은이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환경과 여건은 다를지라도 한 가지 같은 것은 우리가 해야 할 과제입니다. 죽음을 눈앞에 둔 노인이나, 장래가 아득한 젊은이들이나 똑같은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왜 우리의 과제를 심각하게 생각해야 하는가? 하나님이 지시하셨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는 험산 준령도 넘어야 하고, 사나운 풍파도 헤쳐 나가야 합니다. 나폴레옹이 대군을 이끌고 눈에 덮인 알프스 산을 넘었을 때, “내게는 불가능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인간은 쉬운 일만 하다 보면 자기의 가치를 발견하지 못합니다. 어려운 고비를 넘길 때 자기의 존재 가치를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누구나 편안하고 안락한 삶을 좋아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삶만 허락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 기뻐할 재물은 네 근심과 고초를 못 면하리.’라는 찬송처럼, 인간은 부귀와 영

화를 손에 잡는다고 해서 행복하기만 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저주 아래서 살아가기 때문입니다.(창3:14) 이 저주를 벗어나서 고통과 번민을 모르는 세계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우리가 지향하고 있는 하늘나라뿐입니다. 내게는 왜 이런 고통이 오는가, 내게는 왜 이런 번민이 오는가, 하고 우리는 곧잘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면을 들여다보면 나뿐 아니라, 누구나 자기 나름의 괴로움을 겪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을 찾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앞에 나타나지 않습니다. 언제나 우리에게 보이지 않는 손길을 주시면서도 절대 모습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 인간의 욕망은 하나를 알면 둘을 알고 싶어 하고, 둘을 알면 셋을 알고 싶어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도 인간의 끝없는 호기심을 채워줄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한계를 두고 인간들을 다스려 나가십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 역사를 25년 동안 이끌어 주셨습니다. 저 자신부터가 그 손길 속에서 오늘에 이르고 있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는 약자입니다. 살아 있는 동안에 서로 잘났다고 떠들며 자기만이 제일인 줄 착각하고 사는 것이 인간의 실태입니다. 그러나 지나간 생애를 뒤돌아보면 잘난 사람이나 못난 사람이나, 있는 사람이나 없는 사람이나, 귀한 사람이나 천한 사람이나, 그게 그거고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인간은 누구나 죄 가운데 태어나(시51:5) 한동안 복적거리

다가 안개와 같이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IMF의 어려움을 겪으면서 수백 명씩 거느리던 중소기업주들이 하루아침에 도산하여 심지어는 목숨까지 버리기도 했습니다. 내노라고 평평거리던 대기업가들도 시련과 어려움에 허덕이는 것을 우리는 마스크를 통해 보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존경받던 사람들도 죽음이 눈앞에 닥치면 두려움을 떨쳐 버리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인간은 평소에 슬기롭게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위해 헌신하고 봉사하는 지혜가 있어야 합니다.

주의 종은 어찌다가 하나님의 역사를 맡아 많은 사람들을 이끌어 가면서 살아왔습니다. 그리하여 여러 가지 일들을 겪었습니다. 그중에도 주의 종이 언제나 가장 안타까워하는 것은 양떼들이 죽음을 눈앞에 두었을 때입니다. 저는 그들에게 생수 축복을 해 주고 또 영의 문제까지 관여하는 사람으로서 인생의 무상과, 한편 영의 세계의 시작을 자주 생각해 보곤 합니다.

저는 이 역사를 처음 시작할 무렵에 하나님과 주님으로부터 지시를 받고 신의 움직임에 대해 대충 알게 되었을 때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역사가 그렇게까지 심각한 상황에 처해 있다는 것을 상상도 못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어떻게 적응해 나갈 것인가 하고 고민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나는 과거의 하나님의 종들이 어떻게 살아왔는가를 대충은 압니다. 그들의 대다수는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다가 끝내는 불에 타 죽고, 목이 달아나고, 창에 찔리는 죽음을 맞이하여 순교했습니다.

다. 그 시대에 가장 보람 있는 죽음은 바로 그거였습니다. 그럼 그들뿐이냐? 아니다 이겁니다. 그들과 함께 고생한 백성들도 그러한 죽음을 맞이하는 처지에 있었던 겁니다. 구약 시대를 지나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셨을 때에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너희들은 나를 따를 때에 각기 매인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고 따르는 자는 나한테 합당치 않다.”(마10:38)고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는 인간에게 화평을 주러 오신 것이 아니라 검을 주러 오셨습니다.(마10:34) “나를 따르는 자는 자기 생명을 잃고자 하면 얻을 것이고, 자기 생명을 얻고자 하면 잃게 되리라.”(마10:39), ‘목숨을 버려라’ 이겁니다. 유대 민족은 구세주가 나타나면 로마의 지배에서 벗어나 이스라엘 민족에게 독립을 안겨 주는 것으로 알았는데, 이렇게 목숨을 요구할 때 그 길을 따라가기란 여간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숨을 버리면서까지 따라가게 한 하늘의 재료가 뭐냐? 바로 성령이었습니다.

앞선 역사에 대해 주님은 저한테 “나는 너희들에게 아낌없이 성령을 주었노라. 그러나 너희들은 나한테 준 게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령을 거저 주시는 게 아닙니다. 대가를 요구하신다 이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것을 몰랐습니다. 받으면 그걸로 인해 사는 줄 알았습니다. 이걸 착각이었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조건이 따라오는 겁니다. “너희들이 하는 걸 봐서 주겠다.” 이겁니다. “행한 대로 보응한다.”는 말씀이 응해지는 것이 제2의 감람나무 역사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살고 있습니다. 주의 종이

여러분에게 율법을 강조하지 않고 하나님의 섭리를 강조하는 것도 이 때문입니다. 율법으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면 우리 역사가 필요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지시를 준행하느냐, 못하느냐에 따라 사활이 결정됩니다. 준행하면 사는 거고, 못 하면 죽는 겁니다. 그러므로 해 놓느냐, 못 해 놓느냐가 문제입니다. 하늘에서는 과정을 따지지 않고 결과만 따지십니다. 앞선 역사는 과정을 자랑했습니다. 무슨 은혜를 받았다, 뭐가 내렸다, 어떤 기적이 일어났다, 이거 소용없는 겁니다. 그 모든 것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방법입니다.

모세는 전천후 초능력을 행한 인물입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그런 능력을 주신 것은 이스라엘 민족을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런데 그게 제대로 안 됐습니다. 그러니 중간에 흥해가 갈라졌다, 만나가 내렸다, 이거 아무 소용이 없는 겁니다. 자랑할 게 못 됩니다.

국가 대표 축구선수가 “나는 땀을 흘리면서 며칠 동안 훈련을 했습니다.” 하고 자랑해 봤자 월드컵에 나가서 지면 그만입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습니다. 전쟁도 그렇습니다. 이겨야 합니다. 지면 망합니다.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나 끝까지 참고 견디는 자가 구원을 받는다.”(마24:12-13) 이 말씀을 우리는 명심해야 합니다. 끝까지 참고 견디는 것은 우리가 고통 속에 있음을 가리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주님의 부르심을 받고 전도하다가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이때 주님은 로마에 가서도 주의 도를 계속 전하라고 지시하셨습니다.(행23:11) 미워서냐? 아닙니다. 그를 사랑하여 더욱 큰 영광을 누리게 하기 위해 계속 고난을 겪게 하신 겁니다.

“각기 매일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마10:38) 이 말씀을 그 어느 때보다도 이 시대에 사는 우리가 명심해야 합니다. 저나 여러분은 오늘날까지 하나님의 역사 안에서 자기 마음대로 살지 못하고 있습니다. 괴로우나 즐거우나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를 받들어 왔습니다. 세상일이라면 몇 번이라도 견어치우고 싶을 때가 많은 것이 우리 역사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모든 어려움을 감수하고 따릅니다. 왜? 살기 위해서입니다. 이탈하면 하나님은 용납하지 않습니다. 인정사정이 없습니다.

나는 전에 하나님을 자비로운 분으로만 알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무조건 자비를 베푸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적과 싸워야 하기 때문입니다.

빛과 어둠의 싸움은 치열합니다. 세상에서 군인들이 전쟁을 할 때 노인이나 아이들은 죽이지 않습니다. 군인들만 죽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쥐새끼 한 마리도 남기지 말고 다 죽이라고 명령했습니다. 초토화시켜라 이겁니다. 우리는 이런 하나님을 미처 몰랐습니다. 하나님은 그저 자비하신 줄만 알았습니다.

미국에는 원주민, 즉 인디언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영국을 비롯하여 유럽 여러 나라 사람들이 미국에 들어가서 인디언을 죽이고 개척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까지도 미국은 인디언들에게 사죄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전쟁을 해도 인정사정이 있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모조리 죽이라는 것이었습니다. 할아버지나 아이들은 말할 것도 없고 기르는 가축까지도 다 죽이라 이겁니다.(신14:15) 얼마나 무서운 전쟁입니까? 아이들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늙은이가 무슨 힘이 있습니까? 그러나 씨를 말려라 이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은 홍수로 다른 사람들을 모두 멸하고, 노아의 여덟 식구만 살리셨습니다. 하나님은 노아의 자손으로 당신의 백성을 다시 만들어 보려고 노아의 여덟 식구를 택하신 겁니다. 노아를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범죄할 때 다 쓸어버리고 모세의 자손을 통해 새로운 민족을 만들려고 했습니다. 모세가 거절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면 애굽인들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에서 멸하려고 애굽에서 끌어내었다고 비난할 것입니다.”(출32:12)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돌이켰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은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다가 두 사람(여호수아와 갈렙) 이외에는 다 죽었습니다. 여호와와는 보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렘 51:56) 나는 이것을 미처 몰랐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잘할 때에는 축복을 내리시지만, 눈 밖에 날



때에는 엄하게 벌하십니다. 이사야 시대에는 심지어 일곱 여자가 한 남자를 붙들고 “내게 아내라는 명칭만 주십시오.”(사4:1) 할 정도로 저주를 내리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전쟁을 일으켜 젊은이들을 전쟁터에 나가서 다 죽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러니 여자는 많은데 남자가 없어, 남자 한 사람에게 여자 일곱 명이 아내라는 명칭만이라도 달라고 간청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모세 때 이스라엘 민족을 보십시오. 장정이 60만 명이라면 대단한 겁니다. 그 60만 명 중에 두 사람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나머지는 40년 동안 유리방황하다가 다 죽었습니다. 하나님이 하루를 1년으로 계산해서 40년 안에 다 죽이겠다 이겁니다. 결국 다 죽었습니다.

저는 오늘날까지 여러분을 이끌어 오면서 하나님의 비위를 맞추느라고 무던히 애를 썼습니다. 왜냐? 하나님께서 우리 역사를 좋게 보실 때에 은총을 베푸시는 거지, 우리가 백 번 잘한다고 해도 하늘에서 못마땅하게 보시면 그걸로 끝장입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 위주로 이 역사를 이끌어 왔습니다. 우리는 마귀와의 싸움에서 하나님을 유리하게 해 드리면 되는 겁니다. 제가 할 일이 그겁니다. 그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을 모아 놓고 일반교회처럼 성경이나 가르치는 것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이걸 모르면 이것저것 따지다가 떨어지고 맙니다. 떨어져 봤자 자기만 낙동강 오리알 신세가 되는 겁니다. 나가서 하나님의 역사를 가로막으려고 갖은 짓을 다 해 봤자 그게 통합니

까? 안 통합니다. 하나님은 용납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 역사에 몸담은 여러분은 얼마나 다행입니까? 하나님께 충성할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오늘날 하늘에서 내리는 보혜사 성령은 주님이 주시는 겁니다. 그리하여 보혜사 성령이 표적이 되고 보증이 됩니다. 여러분은 항상 기도에 힘쓰고 찬송 부르고 예배에 열심히 참석해야 합니다. 이처럼 스스로 자기를 다스려 가면서 불합당한 생활은 정리해야 합니다. 이걸 게을리하고 적당히 살다가 죽으면 어떻게 할 겁니까? 눈 딱 감는 순간에 마귀 두 마리가 오면 ‘아차’ 하는 겁니다. 이제부터라도 늦지 않습니다. 하나에서 열까지를 각성해서 사십시오. 우리가 왜 예수를 믿습니까? 영의 세계에 가서 복락을 누리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저를 본받으십시오. 저는 세상의 부귀영화도 쥐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 하나님의 역사를 이끌어 가는 권한이 제게 주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알다시피 제가 언제 권한을 함부로 행사하는 걸 봤습니까? 만날 봉사만 합니다. 한 생명, 한 생명 거두어서 주 앞에 드리는 것이 제가 할 일입니다. 제가 언제 사회 사람을 만나서 어깨에 힘을 주는 걸 봤습니까? 언제나 양떼밖에 모릅니다. 눈만 뜨면 양떼들하고 고락을 함께합니다. 바보라서 그러는 게 아닙니다. 제가 살아야 양떼들도 삽니다. 제가 편안하면 여러분은 죽습니다. 수많은 생명이 저 하기에 달려 있습니다. 그게 제가 가는 길입니다.

*Part 04.*

# 이기는 그날까지



20. 싸우며 가는 이 길 · 21. 이긴자 감람나무의 위상 · 22. 하나님의 비밀과 멜기세덱의 대제사장 · 23. 주의 살과 피는 어떻게 먹고 마시는가? (1) · 24. 주의 살과 피는 어떻게 먹고 마시는가? (2) · 25. 주의 살과 피는 어떻게 먹고 마시는가? (3)

## Chapter 20.

# 싸우며 가는 이 길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한 민족을 택하여 그 민족을 상대로 역사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총이 범세계적으로 베풀어지지 않았습니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는 이스라엘이라는 한 민족을 상대로 한 하나님의 움직임만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네 허리에서 열왕들이 나리라.”(창35:11)고 말씀하신 그대로 왕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에서 태어났고, 선지자와 사사들이 그 혈통 속에서 나타나 파란 많은 생애를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 후에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셔서 새 복음을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해서 사마리아를 거쳐 땅끝까지 전하라.”(행1:8)고 당부하신 말씀대로, 기독교는 중동 지역을 위시해서 전 세계에 퍼져 나갔습니다. 구약 시대에 하나님은 무엇 때문에 한 민족을 상대하시면서 개별적으로 교류하셨을까요? 하나님이 그들을 통하여 하고자 하는 뜻

이 있으셨던 겁니다. 그리고 그 뜻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과 직결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때 우리는 신과 신의 대결을 ‘그런가 보다’ 하고 지나갈 처지가 못 되더라 이겁니다. 즉 우리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에 대해 비상한 관심을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것은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런데 믿는 것으로는 하나님의 깊은 사정을 알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강력한 힘을 지니고 있는 적을 상대하실 때에는 문제가 심각한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이 우리를 알아주시는 것은, 자식이 아버지를 알고 아버지가 자식을 아는 것과 같습니다. 아버지가 어떤 다른 사람에게 괴로움을 겪을 때에는 자식이 아버지의 안타까움을 알게 되는 겁니다. 그때 아버지와 자식이 아무리 행복하게 살고 싶어도 그 가정을 파괴하는 외부 세력이 있다면, 그 적을 아버지와 함께 힘을 합쳐서 격파하기 전에는 아버지와 아들에게 평화가 있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인간과 평화롭게 교류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 교류를 원활하게 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지 않으면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가로막는 세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그 가로막는 세력을 제거하기 전에는 결코 하나님과 인간 사이는 평화로운 공존이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나라는 세계 170여 개 국가 중에 유일한 분단국가입니다. 남북이 대치하여 북한이 우리를 호시탐탐 노리고 있습니

다. 언제 어느 때 무슨 일이 터질지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서로가 힘을 길러 대비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그 어느 한쪽 세력이 깨지기 전에는 진정한 평화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이와 같이 빛과 어둠의 세력은 계속 대치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태에서는 하나님과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에게 평화가 있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종과 자녀들은 고통스러운 생애를 보내야 했고, 주님의 사도들과 성도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런 연고로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에게 원하는 바가 있으신 겁니다. 그 원하는 바가 무엇이나? 어둠을 물리치는 역군이 되어 달라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어둠을 물리치기 위해 애쓰시는 것을 우리가 다는 모르지만, 어느 정도는 알 수 있습니다. 그 첫째가 유명한 에덴동산의 사건입니다. 요즘 제가 그 내막을 조금씩 밝히고 있습니다. 성경에 하나님이 당신의 형상대로 사람을 지어 에덴동산이라는 곳에 살게 하셨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창2:8) 그런데 그곳에서는 시작부터 먹어라, 먹지 말라 하고 다툼이 벌어졌습니다. 먹으라는 측과 먹지 말라는 측이 같은 편입니까? 반대편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리하여 그 중간에 있는 인간을 놓고 신과 신은 서로 치열한 공방전을 전개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범죄한 아담, 하와를 에덴동산에서 내쫓았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쫓겨난 아담, 하와가 다시 에덴동산에 못 들어오게 막았습니다. 하나님은 손해나는 일을 하시지 않습니다. 하실 이유가 없습니다. 아담, 하와가 하나님께 이득을 준다면 그들이 에

덴동산에 들어오는 것을 막을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들은 이미 하나님께 이득을 주는 존재가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냉정하게 못 들어오게 하십니다.

그런 인간들이 계속 퍼져 나갔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이런 인간들과 교류하시면서 그중에서 쓸 만한 그릇이 배출되기를 기대하셨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제대로 안 되니까 하나님께서는 나름대로 의롭게 사는 노아를 택하여 쓸 만한 재목을 만들어 보고자 시도하십니다. 그래서 노아를 택하고 홍수를 내렸습니다. 그리하여 지상에는 노아의 식구가 퍼져 나갔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흘러가면서 노아의 후손들도 하나님의 기대에 어긋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다시 계획을 세우십니다. 이번에는 아브라함을 택하셨습니다. 그리하여 아브라함의 후손인 이스라엘 민족과 교류하시면서 자식처럼 아끼고 사랑하셨습니다. 그러시다가 시간이 지나서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게 하셨으나, 이것도 제대로 안 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또 다른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그게 뭐냐? 모세의 후손과 교류하시고자 했던 겁니다. 그러나 이것도 여의치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왜 인간과 교류하시는가? 여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위해 인간을 필요로 하시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은 무엇 때문에 인간을 필요로 하시는가? 두말할 나위도 없이 당신의 적수가 되는 존재에게 치명적인 타격을 입히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요한 계시록에 밤낮으로 하나

님 앞에 참소하는 자가 쫓겨날 날이 있다고 기록한 겁니다.(계12:10)

그런데 기독교는 지금까지 이처럼 하나님을 보이지 않는 세력에게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는 것을 상상도 못하는 겁니다. 따라서 하나님이 왜 인간을 필요로 하시는가도 모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도를 모르니 하나님을 제대로 섬길 수가 없는 겁니다.

아버지는 적대 세력 때문에 밤낮 시달리고 계시는데, 자식은 부모의 마음을 모른다 이겁니다. 그래서 눈만 뜨면 자기가 원하는 것을 달라고 조르기만 합니다. 그러니 아버지는 말은 못하지만 자식이 자기의 어려움을 조금이라도 덜어 주면 얼마나 좋을까 하고 바랄 거다 이겁니다. 그런데도 자식은 부모의 안타까움을 알지 못합니다. 이렇게 되면 그 자식이 아무리 효자 노릇을 하려고 해도 효자가 될 수 있습니까? 될 수가 없습니다.

오늘날 기독교가 이와 같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아버지를 위한다고 하지만 아버지의 어려움을 모릅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을 우리는 섭리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하시고자 하는 일이다 그 말입니다.

인간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에 남을 괴롭히고 손해를 끼치면 범죄가 됩니다. 국가는 이것을 법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께 이득을 드리면 선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께 괴로움을 드리면 악이 되는 겁니다. 선과 악이 이렇게 구분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을 모르면 선이 뭔지 알 길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자기 스스로 선이다, 악이다 하고 판단하는 것은 아무 가치가 없는 것입니다. 혼자 선을 행했다고 해도 그건 하나님과는 무관한 일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라, 하늘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간다.”(마7:21) 아버지의 뜻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가리킵니다.

자, 그럼 이제부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한 번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너는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한 땅으로 가라.”(창12:1)고 말씀하셨습니다. 누구 위주입니까? 하나님 위주입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도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신이 되게 하였은즉, 너는 그에게 시달리는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여라.”(출7:1)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누구 위주입니까? 하나님 위주입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이것을 원하니 너는 이렇게 해 줘.” 하나님이 원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모여 앉아서 “하나님이 이렇게 하면 좋아하실 거니까 이렇게 하자.” 해서 열성을 다한다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시는 것이 뭐냐? 우리 생각을 앞세워 움직이는 겁니다. 이 경우에 하나님은 “내가 시키지도 않은 일을 한다.”고 노여워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을 위한답시고 사울이 제사를 지냈을 때 “내가 언제 너에게 제사를 지내라고 했어?” 하고 쳐 버렸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지시하여 계획하신 일을 실행하는 중,

모세에게 당부하십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원주민은 말할 것도 없고 그들의 생축까지도 죽여 버리고 그 성읍과 그 탈취물은 불살라 나 여호와께 바치라.”(신14:15-16)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지시하시는가? 이때 하나님은 원주민이 섬긴 바알을 상대로 해서 싸우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430년 동안 기른 겁니다.

자, 보십시오. 우리나라가 60만의 군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누구 때문에 이 군대가 필요합니까? 이북의 공산당 때문에 군대를 필요로 하는 겁니다. 저들이 쳐들어오는 것을 막기 위해서입니다. 60만 군대를 기르는 이유가 그겁니다. 하나님이 430년 동안 이스라엘 민족을 왜 기르셨느냐? 하나님은 의도가 있는 겁니다. 그 의도가 뭐냐? 가나안 땅의 바알 신을 작살내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당부하십니다. “모세야,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으로 데리고 들어가라. 보석들과 가축을 챙겨서 급히 끌어내야 해. 빵도 누룩을 넣어 부풀려서 만들 시간이 없어. 무교병을 먹도록 해.”(출 12:8) 이렇게 지시하시고 재앙을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에 인도하는 의도를 설명했습니다. “내가 430여 년간 기른 내 백성을 가나안 땅에 이끌어 들이는 의도는 그 땅을 너희가 차지하여 내게 영광을 돌리게 하려는 거다. 내 말 잘 알아듣겠느냐?”, “알겠습니다.”(신8:10 참조) 내용이 이렇게 된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바알 신의 신전을 헐고 그 자리에 내 성전을 짓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나 여호와께 신령한 제사를

지내라.” 이겁니다. 하나님이 바알 신을 멸하실 때 직접 하십니까? 직접 하시지 않습니다. 사람을 통해 하시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과정은 엄청납니다. 홍해가 갈라지고, 만나가 내리고, 다 좋은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두 사람밖에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습니다. 목표가 달성된 겁니까? 안 된 겁니다. 그럼 그동안의 과정이 아무리 화려했다고 해도 아무 소용이 없는 겁니다. 물거품이 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지시하셨습니다. “너는 전쟁을 자주 하여 피를 많이 흘렸으므로 네 아들이 성전을 짓는 게 낫겠다.” 하고 말씀하셨습니다.(대상28:3) 그래서 다윗이 준비를 합니다. 금과 은도 준비하고, 석재도 준비해서 솔로몬에게 재료를 물려줬습니다. 그러니까 준비한 사람은 다윗이고, 지은 사람은 솔로몬이었습니다.

감람나무 역사도 이와 비슷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으는 사람과 이루는 사람으로 구분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런 업무 분담이 제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앞선 역사에서 혼자서 다 하겠다고 하여 어이없이 무너져 나간 겁니다. 그래서 둘째 감람나무가 하나님의 지시에 따라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 내용을 아셔야 합니다.

그러나 모세와 여호수아의 경우는 달랐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여호수아에게 인계하여라.” 해서 모세는 두령들을 모아 놓고, 자기가 하나님으로부터 지시받은 내용을 소상하게 설명하고 여호

수아에게 당부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렇게 하라고 말씀하셨으니, 너는 그대로 따라야 한다. 알아듣겠느냐?”, “예,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여호수아가 배턴을 이어받아 가나안 땅에 들어갔지만, 인정사정 보는 바람에 제대로 못했습니다.(삿 2:21)

알곡성전을 지었을 때, 여러분의 눈에는 별것 아닌 것으로 보였지만 하나님은 “네가 어려운 가운데서 내 성전을 짓느라고 수고가 많았다.”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주의 종에게 “수고했다.”고 말씀하시면 주의 종과 함께 수고한 여러분도 수고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해당되는 겁니다. 이게 무슨 동화 얘기도 아니고, 지나간 역사 얘기도 아닙니다. 현실입니다. 이걸 세상이 어떻게 압니까? 우리는 항상 이것을 의식하고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의 헌신적인 노력이 이렇게 하나님과 직결되는 겁니다.

여러분은 우리 역사를 위해 무슨 일을 하든지 제 얘기를 명심하십시오. ‘나는 한 분야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다.’고 말입니다. 그 귀중성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좀 괴롭다고 해서 기분에 따라 세상일처럼, “에이, 때려치워라.” 이래서는 안 됩니다. 죽고 사는 문제가 달린 겁니다. ‘네 직분 맡은 곳에 그대로 섰거라.’, ‘네 직분 배반하면 망할 줄 알아라.’ 이 찬송 그대로입니다. 어렵다고 몸을 사려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살자고 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해 드릴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대가를 주시는 겁니다. 거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솔로몬 성전은 건평이 100평쯤 됩니다. 지금 여러분이 앉아 계신 이 알곡성전은 솔로몬 성전의 3배 가까이 됩니다. 구약 시대의 성전에는 대제사장과 제사장이 들어가고, 일반 사람들은 성전 뜰에 모입니다. 성전은 장막에 의해 지성소와 성소로 구분됩니다. 지성소에는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들어가서 제사장들과 백성을 위해 속죄의 제사를 드리고, 성소에는 제사장이 백성의 죄를 위해 수시로 제사를 드립니다. 이렇게 성전을 지은 다음에는 성전 종사자들이 거처할 행랑을 짓고, 그 다음에는 성도들이 와서 부복할 수 있는 뜰과 사람들이 구경할 수 있는 뜰을 지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하나님의 지시에 따라 알곡성전과 성도들이 거할 수 있는 별관과 이방인을 상대하는 부속 건물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성곽의 역할은 동산이 하고 있습니다. 요한 계시록에 “구름 위에 사람의 아들과 같은 이가 앉았는데 그 손에는 이한 낫을 가졌더라. … 구름 위에 앉으신 이가 낫을 땅에 휘두르매 곡식이 거두어지니라.”(계 14:14-16)고 하였습니다. 손에 이한 낫을 가진 자가 주님의 권세를 받아서 움직인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를 따르는 백성들이 이 성전을 거쳐서 내 나라로 들어오게 된다.”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럼 주의 종과 여러분이 할 일이 뭐냐? 하나님이 지시하신 내용을 이루어 나가는 겁니다. 왜 지시하시는가? 하나님에게 대적하는 세력에 대비하기 위해서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해달라는 것을 해 드리면 끝나는 겁니다. 그 나머지는 하나님이 하

시는 겁니다. 그 일을 우리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런 귀중한 하나님의 역사 속에 들어오신 것을 재인식하셔야 합니다.

벌써 우리 역사가 26주년 기념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4반 세기가 흘러간 겁니다. 긴 세월입니다. 인간이 성령의 감동을 받아 순교하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지만, 26년을 한결같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도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자기와의 싸움이 없이는 안 됩니다. 저는 무던히 싸워 왔습니다. 제가 26년 동안 이 역사를 하면서, 시작할 때나 지금이나 여러분을 대하는 태도가 변하는 것을 보았습니까? 저는 언제나 한결같습니다. 저는 자신을 지켜왔습니다. 제가 저를 지키지 못하면 이 역사는 안 됩니다.

시바의 여왕이 와서 솔로몬 성전을 보고 감탄했습니다. 전부 금으로 장식한 겁니다. 우리나라 돈으로 약 5조 원이 들었던 겁니다. 건평이 100평도 안 되는데 5조 원입니다. 상상이 안 가는 얘기입니다. 63빌딩을 짓는데 1700억이 들었습니다. 이 지구상에는 5조 원짜리 건물이 없습니다. 5조 원의 자금을 들였다면 얼마나 고급스럽게 지었는지 알고도 남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지으라고 지시하신 겁니다. 하나님은 적당히 넘어가는 것을 싫어하십니다. 우리가 없는 가운데서도 철저히 해 나가는 것은 그래서입니다. 외부 사람이 와서 솔로몬 성전을 보고 감탄할 때 하나님은 좋아하십니다.

오늘날 사람들이 알곡성전을 보고 초라하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싫어하십니다. “공들여 참 잘 지었네.” 하고 말할 때 하나님은 흐뭇

해하시는 겁니다. 그걸 누구의 손으로 지었느냐? 우리 손으로 지은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네가 어려운 가운데서 내 성전을 지었으니...” 옛날 솔로몬은 다윗이 마련한 재료를 가지고 지었습니다. 나도 앞선 역사를 순조롭게 이어받아서 지었다면, 하나님이 아마 저에게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힘들게 지은 것을 하나님이 잘 아시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하신 겁니다. 어려움을 이기고 하나님께 충성했을 때 기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 Chapter 21.

# 이긴자 감람나무의 위상



기독교 신자들은 말세에 대한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너 나 할 것 없이 세상 조류가 좀 이상하게 흘러가기만 하면 곧 말세다, 세상이 끝난다, 하고 떠들어 왔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마지막 날을 모른다고 하셨습니다. 왜 모르시냐? 주님이 일곱 인으로 봉한 책을 떼시기 전이라서 그렇습니다.

그러나 십자가를 지시고 하늘에 올라가 영광의 보좌에 앉아 여호와와 권세를 맡아 가지고 일곱 인으로 봉한 하나님의 기밀문서를 떼신 주님은 이미 목수의 아들로 태어나신 하나님의 아들이 아닙니다. 요한 계시록에 그 모습이 나옵니다. 요한이 보았을 때 일곱 금 촛대 사이에 찬란한 광채가 나는 주님의 모습은 너무나 눈부셔서 요한이 기절했다고 했습니다. 주님은 사랑하는 제자 요한에게 오른손을 얹고 말씀했습니다. “요한아, 나다. 전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던 나사렛 예수니라.”(계1:18) 그리고 “나는 알파와 오메가니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동등하다는 것을 말씀하신 겁니다. 이제 ‘하나님의 것이 내 것이고, 내 것이 하나님의 것이다’라는 것을 증거하기 위하여 요한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던 겁니다.

그리고 주님은 지상에 계실 때 사도 요한에게 보혜사 성령이 임하면 그가 “자의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한다.”(요16:13)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대로 나는 오늘날까지 핍박과 조롱 속에서 다만 주께서 보여주시고 들려주신 것을 전해 왔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저까지 게 뭇데 만날 보고 들었다고 하느냐, 자기가 주님이라도 된다는 거냐, 하고 욕합니다. 이긴자는 주의 것을 받아서 전하는 사람이지,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저는 오직 주의 것만 전했습니다.

오늘날 기독교는 이 땅에 계셨을 때 주님이 하신 말씀과 기사와 이적을 주로 소개하는 데 그치고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며,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쥐고 계신 주님이 하신 말씀을 아는 자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전해 주는 자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요한 계시록에 나오는 흰 돌에 기록한 내용을 받은 자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고로 오늘날까지 기독교는 2천 년 동안 이 땅에 계셨던 주님의 말씀은 알지만 그보다 몇 배 중요한, 지금의 주님의 말씀을 전달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도의 수는 늘어났지만 언제

나 똑같은 방법으로 믿어 왔던 겁니다. 그래서 수십 억 신도들에 비하면 얼마 되지지도 않는 14만 4천의 하늘 군병이 차지 못했던 것입니다.

이 땅에 계셨던 주님의 메시지만 가지고는 지금의 주님을 알 길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33년 동안 이 땅에 계셨던 주님의 발자취는 알 수 있어도, 그 이후의 주님은 알 수 없는 겁니다. 이긴자가 나와야 그를 통하여 하늘의 새 메시지를 전하게 된다고 약속이 돼 있는데, 이긴자가 나오지 않았으니 어떻게 그 복음을 들을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감감 무소식이었던 겁니다.

지금 이 시간에 몇 부제로 예배를 보는 교회에서도 신도들이 만날 이 땅에 계셨던 주님의 말씀만 듣고 있지, 지금의 주님의 말씀은 알 길이 없는 겁니다. 가 보십시오, 내가 거짓말 하나. 전 세계를 돌아다녀 보십시오. 그들이 모르는 원인이 있는 겁니다. 그렇다고 그 사람들을 나무랄 수도 없습니다. 주님이 마지막 때에 대해 아신다고 했습니까? 모른다고 말씀하시고 하늘에 올라가신 분이데, 성경을 백 번 들여다봐야 주님이 모르셨던 걸 어떻게 따르는 사람이 알 수가 있습니까?

그러나 영원히 감춰 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누차 지적했지만, 주님은 “이기는 자에게 흰 돌을 줄 터인즉,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밖에는 모른다.”(계2:17)고 말씀하신 겁니다. “한 돌에 일곱 눈이 박히는 시대가 오면 모든 죄악을 하루에 제하여 버리고 새길 것은 새기고 정할 것은 정하게 되리라.”(슥3:9) 스가랴 선지자가 한 말

입니다. 너무나도 오묘한 말씀이기 때문에 거듭 강조합니다. 그것을 주님이 저에게 가르쳐 주시지 않았으면, 제가 어떻게 그 엄청난 내용을 알 수 있겠습니까? 알지 못하고 어떻게 제가 감히 그것을 터뜨릴 수 있겠습니까?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고 하늘에 올라가신 후에 주의 원수인 마귀가 발등상 되게 하기를 기다리고 계시는 겁니다.(마22:44, 히10:13) 주님이 직접 하시지 않습니다. 지금도 주님은 기다리고 계시는 중입니다. 그러므로 지상에서 주님을 대행하여 마귀를 발등상 되게 하는 하나님의 역사를 하는 자가 있어야 합니다.

기독교는 전쟁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들을 지상에 보내어 십자가를 지게 하는 하나님이시라면, 거기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는 겁니다. 당신이 가장 아끼는 아들을 산 제물로 바치지 않을 때 하나님의 역사가 뜻대로 진행되지 않는다면, 적수가 얼마나 강하다는 걸 아셔야 합니다. 거저 되는 게 아닙니다.

전지전능이라고 기독교에서 말을 많이 하지만, 2천 년이 지나도록 하나님의 크신 뜻은 이루어지지 않고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요한은 “주님을 찌른 자 가운데 죽기 전에 주께서 영광으로 임하시는 것을 볼 자가 있을 거다.”(계1:7) 하고 자기 생각을 기록했습니다. 그는 금방 무엇이 될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안 되었습니다. 이상 중에 하늘나라에 올라가 주님을 만나서 들은 내용을 기록한 것이 요한 계시록입니다. 그러나 계시를 받은 당사자도 그 내용을 모르는 것

입니다. 그러니 일반 사람들은 백 번 읽어도 모릅니다.

주님이 이 땅에서는 그때그때, 상대가 농부면 농부에게, 어부면 어부에게, 장사꾼이면 장사꾼에게 이해하기 쉽도록 말씀하셨습니다. 즉 농부들한테는 씨를 뿌리는 비유로, 어부들한테는 고기를 잡는 비유로, 장사꾼한테는 장사하는 비유로 설명하셨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에게는 십자가를 지고 희생해야 한다는, 보다 높은 차원의 설교를 하신 겁니다. 그러므로 제자들에게 한 설교가 제일 깊은 겁니다.

“생명을 잃고자 하는 자는 얻을 것이고, 생명을 얻고자 하는 자는 잃게 될 것이다.”(마10:39) 이걸 주님이 제자들이나 사랑하는 측근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너희는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생명의 면류관을 얻게 되리라.”(계2:10) 이 말씀은 체계가 선 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요, 의에 주린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요…”(마5:3-6) 이걸 평민들, 불쌍한 사람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어느 한 구절만 보고 이것이 전부다 하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요11:26) 이 말씀도 알아들을 만한 사람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좀 더 깊은 단계에 들어간 사람들한테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갈 것이 아니라, 하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

라.” 하고 엄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비유로 얘기했지만, 이제부터 실상을 말하겠다. 이제 내가 십자가를 져야 해.”(요16:6) 제자들이 만류하고, “무슨 말씀이 십니까? 주님이 돌아가신다니요?”, “내가 죽어야 너희에게 유익해. 나는 십자가를 지기 위해 왔어.” 그러나 제자들은 심령이 어린 고로 이 말씀을 알아듣지 못했습니다.

주님은 사도 요한에게 일곱 우리가 발한 것을 기록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요한아, 그것은 극비의 전략이니 기록하지 말고 덮어 두어라.”(계10:4) 왜 덮어 덮야 합니까? 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적은 사람입니까? 마귀입니다. 기록하지 못하게 한 내용은 마귀를 까부수는 전략입니다. 그날과 그때가 뭘 줄 압니까? 마귀를 박멸시키는 날이요, 때입니다.

이 땅에 계셨던 주님의 말씀도 잘 몰라서 찢찢매는 사람들이 지금 영광의 주님이 저한테 하신 흰 돌의 내용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저는 2천 년 전의 주님을 소개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저는 26년 전에 주님께서 저에게 지시하신 대로 전하고, 지시하는 대로 일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날 목숨을 바쳐서 순종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았으면 제 자신이 약해져서 일을 못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과 함께 동고동락하면서 자나 깨나 하나님의 역사에 심혈을 기울이는 이유가 그겁니다.

저는 출세하자고 하는 것도 아니고, 세상에 이름을 남기자고 하는 것도 아닙니다. 오로지 하나님의 원하시는 것을 이루어 드리고

자 하는 겁니다. 그것만이 제가 할 일입니다. 세상이 저한테 뭐라고 해도 저는 귀담아 듣지 않습니다. 칭찬도 모욕도 저는 상관하지 않습니다. 제가 할 일만 하기에도 바쁩니다. 여호와께서 “감람나무 역사를 다시 세워야겠다. 그것이 내 섭리니, 네가 어려워도 고수해야겠다.” 그런 말씀이 있으셨기 때문에 오늘날도 묵묵히 해 나가는 겁니다.

## Chapter 22.

# 하나님의 비밀과 멜기세덱의 대제사장



“일곱 우리가 발할 때에 내가 기록하려고 하다가 곧 들으니, 하늘에서 소리 나서 말하기를, 일곱 우리가 발한 것을 인봉하고 기록하지 말라 하더라.” (계10:4) 그 다음에 보면 “일곱째 천사가 소리 내는 그날, 나팔을 불게 될 때에 하나님의 비밀이 그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이루어리라.” (계10:7)고 했습니다. 누구의 비밀입니까? 하나님의 비밀입니다. 하나님의 비밀이기 때문에 기록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여건이 조성되면 하나님의 비밀이 선지자들에게 지시한 내용대로 이루어질 때가 오는 겁니다. 주님은 마지막 날에 대해 모른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마지막 날은 누구의 비밀입니까? 하나님의 비밀입니다. 마지막 날이라는 것은 세상 끝을 말하는 겁니다. 왜 이 세상 끝에는 주님도 모르시는 비밀이 있어야 하는가? 믿는 사람들은 궁금증을 느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제자들도

답변을 못 받고 죽었습니다. 주님이 모르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  
입니다.

그럼 주님이 영원히 모르시느냐? 아니다 이겁니다. 누차 말했지  
만, 주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하늘나라에 가서서 일곱 인으로 봉한  
책을 떼었을 때 하나님의 비밀을 알게 되신 겁니다.(계5:8) 그렇다  
면 주께서 다시 이 땅에 오셔서 제자들이나 믿는 사람들에게 “너  
희들이 나한테 마지막 날에 대한 걸 묻지 않았느냐? 사실은 내가 하늘나  
라에 가서 알고 왔다. 그 마지막 날은 여차저차하다.” 이렇게 설교를 하  
셔야 하는데, 주님은 아무 때나 마음대로 오실 수가 없습니다. 왜?  
오실 수 있는 여건이 지상에 마련되어야 합니다.(눅20:43)

그럼 그 내용을 주님 대신에 전해 줄 자가 있어야 사람들이 알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으면 열 명이 예수를 믿든, 천 명이 믿든, 만  
명이 믿든, 주님이 하신 말씀 이외에는 사람들이 알 길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마지막 날에 관한 내용은 영원히 믿는 사람들에게 알려  
질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마지막이 이루어질 수가 없는 겁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져야 주께서  
다시 오시도록 되어 있는 것이 여호와와의 경륜입니다. 그런데 뜻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려면 마지막 때를 알아야 하는데, 모르고 예수  
를 믿는 사람들만 늘어난다면 마지막 때는 어떻게 이를 겁니까?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주님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  
겠다고 하셨는데 그 약속이 이루어질 수가 없는 겁니다.

주님은 이 땅에서 당신이 하실 일을 하시고 하늘로 올라가셨습



니다. 그러나 올라가신 다음에 하실 일이 더 중요합니다. 그런데 주님은 방금 말씀드렸지만, 이 땅에 아무 때나 다시 오실 수 없습니다. 주님은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서 마귀가 발등상 되게 하기를 기다리고 계시는데, **(히10:13)** 누가 마귀를 발등상 되게 할 겁니까? 하나님과 주님의 사정을 지금 제가 밝히는 겁니다.

다른 교회에서는 자기의 사정을 하나님께 호소하지만 저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사정을 호소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설교 자체가 다릅니다. 그래서 영의 귀가 열리지 않으면 알아듣지 못하는 겁니다. 세상 얘기를 하면 알아듣기 쉽습니다. 주님은 “내가 너희들에게 세상 얘기를 해도 잘 알아듣지 못하는데, 하늘나라의 얘기를 어떻게 알아듣겠느냐?” **(요3:12)**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성경에도 멜기세덱에 관해 “이 멜기세덱에 관하여는 할 말이 많으나 너희의 귀가 둔하므로 해석하기 어려우니라.” **(히5:11)** 하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러분은 2천 년 전 당시의 얘기보다 몇 백 배가 어려운 이야기를 듣고 계십니다.

“그가 아들이시라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었은즉,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하나님께 멜기세덱의 반차를 좇은 대제사장이라 칭하심을 받았느니라.” **(히5:9-10)** 하나님께서는 “내 아들이지만 지상에 내려가서 내 뜻대로 움직여서 나에게 도움을 주면 내 권세를 맡겨 주겠다.” 이겁니다. 그것이 멜기세덱의 제사장 자리입니다.

이스라엘 민족 중에 최고로 높은 사람이 누구냐 하면 아브라함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지구상에서 아브라함을 제일 위대한 인

물로 봅니다. 그런데 그 아브라함에게 축복해 준 사람이 있습니다. 그가 바로 멜기세덱이라는 살렘 왕이요, 제사장이었던 인물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멜기세덱의 제사장이라고 칭한 겁니다.

이 지구상에는 훌륭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석가도 있고, 공자도 있고, 소크라테스도 있고, 이렇게 존경받는 인물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아브라함이 최고입니다. 그런데 그 아브라함이 십일조를 바친 인물이 멜기세덱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주님이 멜기세덱의 대제사장이 되도록 작정하신 겁니다.(시 110:4)

“일찍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저희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을 삼으셨으니, 저희가 땅에서 왕 노릇하리로다.”(계5:9-10) 주님이 멜기세덱의 대제사장이 된 것은 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사서 하나님께 드렸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공짜로 받는 것이 아닙니다. 이루어 놓으신 것이 있기 때문에 받았습니다. 주님은 하나님과의 약속을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습니다.(요19:30)

요한 계시록에 보면 “이기는 자와 내 일을 끝까지 지키고 행한 그에게 만국을 다스릴 권세를 준다.”(계2:26)고 약속이 돼 있습니다. 이긴자라고 그 권세를 공짜로 받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예정하신 뜻을 이루어 놓으면 그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시겠다는 겁니다. 이긴자가 할 일을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게 마쳐야 합니다.

주님이 십자가를 지지 않고 하늘나라에 가셨다면, 아들이기는

하지만 멜기세덱의 대제사장의 위치에는 못 앉습니다. 이렇게 되면 주님이 일곱 인으로 봉한 책의 내용을 아실 수 없습니다. 그러나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에 주님이 하나님으로부터 권한을 인수 받은 겁니다.(계5:9)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던 네 생물과 장로들이 전부 주님께 경배를 했습니다.(계5:8) 네 천사장들이 이제 하나님 대신 주님을 섬기는 겁니다. 이 세상으로 말하자면, 주님이 왕이 되시고 하나님은 상왕이 되신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서 2천 년 동안 모든 것을 주관하시며 역사하신 겁니다.

그런데 요한 계시록에 보면 주님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비밀의 내용을 알려 줄 사람이 있습니다. 그게 무슨 내용이냐? 바로 ‘흰 돌’의 내용입니다. 흰 돌을 받으면 그 돌 위에 하나님과 어린 양의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는데, 그 내용을 받은 자 아니고는 알 자가 없다고 했습니다.(계2:17, 3:12)

그래서 2천 년 동안 어느 신학자도 하지 못하는 얘기를 오늘날 제가 하고 있는 겁니다. 목회자들이 다른 건 다 흉내 낼 수 있어도, 이진자가 갖고 있는 흰 돌의 내용은 아무도 모르잖습니까? 그거 알고 머리를 싸매고 연구하다가 끝내 알지 못하고 죽습니다. 그래서 단서가 붙은 겁니다. “받는 자밖에는 모른다.” 이겁니다.

하나님의 비밀은 무엇에 관한 겁니까? 시작입니까, 끝입니까? 끝입니다. 그럼 도대체 마지막 때가 언제냐 이겁니다. 사도 바울은 “비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이니, 곧 감추었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사 만세 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고전

2:7) 하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짓기 전부터 정한 것이 있었다면, 그 내용이 뭐냐 이겁니다.

하나님의 원수는 누구입니까? 마귀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마지막 날을 비밀에 붙이시는가? 여러분, 비밀은 문제가 있을 때 성립 되는 거지 알아도 그만, 몰라도 그만일 때에는 비밀이 되지 않습니다. “상대방이 알 땐 내가 불리해져. 그러므로 알면 안 돼.” 이럴 때 비밀이 생기는 거지, 알아도 괜찮을 때 비밀이 됩니까?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알아도 괜찮아.” 이렇게 편안한 처지라면 비밀이 필요합니까? 필요 없습니다.

6천 년 동안 가려져 있던 얘기입니다. 이영수가 얘기하니까 우습게 들으실는지 몰라도, 이걸 전 인류에게 해당하는 얘기입니다. 제가 하는 말이 안 맞으면 제가 가짜입니다. 그러나 이걸 정확한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비밀은 하나님만 아시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께 비밀이 있다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감추어야 할 문제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 강적이 없습니까? 있기 때문에 숨기는 겁니다. 하나님이 뭐든지 마음대로 하신다면 무슨 비밀이 필요합니까? 이걸 기독교가 상상도 못 하던 얘기가 아닙니까?

그럼 하나님이 비밀을 간직하여, 아들도 모르고 천사도 모르게 할 정도라면, 매우 중대한 문제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비밀은 영원히 숨기지 않습니다. 멜기세덱의 제사장인 주님이 알고, 흰 돌을 받은 자가 알게 돼 있다고 성경은 기

록했습니다. 어린 양의 비밀은 하나님의 비밀을 이어받은 겁니다. 그러므로 ‘어린 양의 새 이름’을 알게 되면 하나님의 비밀을 알게 되는 겁니다.

다니엘은 하나님의 뜻을 완성하는 내용을 마지막 때까지 ‘봉함하라’는 말을 들었습니다.(단12:9) 그 봉함한 것을 떴 사람이 누구니까? 일곱 인으로 인봉한 책을 떴 것은 하늘에 오르신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오늘날 제가 그 내용을 전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 내용을 당사자처럼 설명할 적에, 그 내용을 모르고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다면 그 설명을 하는 자는 그 내용을 통고 받지 않은 겁니까? 구태여 말하지 않아도 듣는 여러분은 짐작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아무도 알지 못하는 얘기입니다. 멜기세덱의 제사장이 되신 그리스도께서 아셨고, 그것을 지상에서 유일하게 어떤 존재가 받아서 움직인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비밀을 이루어 나가는 장소가 귀한 겁니다. 하나님은 알곡성전을 귀하게 보시는 이유가 거기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 너를 거치지 않으면 내게 올 자가 없느니라.”고 말씀하시고, 이어서 그 이유를 설명하신 겁니다. “나 여호와와의 섭리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내가 누차 전해 드렸습니다. 남들은 우습게 봐도 이 섭리 속에 들어오신 여러분은 그 언약 아래 계신 겁니다. 그래서 돌아가신 분들에게도 그 약속대로 은혜를 내려 주시는 겁니다. 축복 속에서 세상을 떠나 약속대로 다 혜택을 받습니다. 이 시대의 섭리가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하시는가? 신도가 많은 데서 하시지 않고, 왜 얼마 안 되는 이곳에서 한 사람, 한 사람을 씻어 세우는 작업을 하시는가? 오랫동안 몰래 간직한 비밀을 이행하기 위해서입니다. 한 사람이라도 좋으니, 알곡으로 만들어 천국 창고에 들여놓아 달라 이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겁니다.

전 세계 기독교 신자들은 “하나님, 이 복 주십시오. 저 복 주십시오.”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다릅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이런 걸 요구하셨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살아야 합니다.” 하고 말하는 사람입니다. 이 성전을 제가 제 생각으로 지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지으라고 해서 지은 겁니다. 저 같은 건 엄두도 못 냅니다.

요전에 제가 몸이 좋지 않아 며칠 고생할 때 주님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주님도 육을 갖고 이 땅에 계신 적이 있지만, 제가 참 고달픕니다.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피곤하지만, 저는 이 시간에 죽어도 보람을 느낍니다. 자나 깨나 주의 역사만 생각하고 살아오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어서 이런 말씀도 드렸습니다. “지금 이 나라의 경제가 어려운데 우리 양떼들이 십여 년을 성전과 부속 건물을 짓기 위해 애썼습니다. 앞선 역사는 얼마나 풍족했습니까? 그러나 지금은 아무도 저를 알아주지 않습니다. 질그릇 하나 만들다가 잘못되면 찢리기가 일쑤입니다. 그래도 저는 범사에 감사하면서 살아오지 않았습니까?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더

이상 바랄 것이 없습니다. 당신께서 원하시면 뭐든지 하겠습니다. 그러나 하다가 힘이 모자라면 할 수 없지 않습니까? 여호와의 능력을 사단이 가로막아 사실 일하기가 어렵습니다.”

제가 어렵다고 여러분하고 의논할 겁니까? 저는 주님의 심부름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어려운 일이 생기면 주님께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햇빛을 받는 식물은 살고, 받지 못하는 식물은 죽습니다. 여러분은 이를테면 한 그루의 식물입니다. 이긴자가 주는 영의 양식을 받아먹어야 합니다. 그래야 사는 겁니다. 그게 이긴자의 것이냐? 아닙니다. 주의 것입니다. 주의 것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주는 겁니다. 이 시대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비밀에 대하여는 나중에 더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 Chapter 23.

# 주의 살과 피는 어떻게 먹고 마시는가?(1)



### 1) 에덴동산에 들어가는 조건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에덴동산 안에는 먹어야 사는 과일과 먹으면 죽는 과일이 있었습니다. 오늘날 범세계적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또 주님을 믿으면서, 왜 하나님은 에덴동산이라는 아름다운 곳에 먹으면 살고, 먹으면 죽는 두 가지 과일이 자라나게 하셨나 하고 궁금하게 생각할 때가 있을 겁니다. 그러나 신학자들도 이 물음에 명확한 답변을 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이에 대해 하나님은 침묵을 지키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강적의 존재를 밖에 드러내기를 꺼리시는 겁니다.

오늘날 고고학자나 인류학자들은 화석에 의해 수백 만 년 전의 유물들을 찾아내고 있습니다. 성경에 기록한 아담, 하와의 기원은 불과 6천 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6천 년 전에 있었던 에



덴동산의 흔적을 현대 과학이 찾아내지 못할 리가 없습니다. 6천 년 전에 아담, 하와가 살았고, 각종 과일나무가 자랐고, 첫째 강과 둘째 강과 셋째 강과 넷째 강의 이름도 성경에 나와 있는데, 아무리 추적해도 그 흔적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에덴동산은 없었다는 얘기도 되는 겁니다. 그런데 왜 성경에는 에덴동산에 대해 자상하게 기록되어 있는가?

신학자들은 대다수가 창세기를 모세가 기록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모세는 3,400년 전 인물입니다. 하나님은 에덴동산을 성경 대로라고 해도, 모세보다 적어도 수천 년 이전에 창설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모세가 에덴동산을 보았을 리도 없고, 따라서 알았을 리도 없습니다. 그런 모세가 창세기를 썼다면 완벽한 기록일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제기됩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영적으로 보여주시고 가르쳐 주셨다고 할지라도, 그 내용을 납득하고 이해하기가 상당히 어려웠을 것입니다. 이 점부터 우리가 먼저 알아야 합니다.

그럼 성서가 영터리란 말인가? 물론 그건 아닙니다. 하나님은 당시에 살던 사람들이 읽어서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을 만큼 보여주시고 들려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이해하기 어려운 메시지를 전한들 무슨 가치가 있겠습니까? 창세기는 사람이 읽고, 하나님은 이런 분이라는 것을 알 수 있도록 기록한 것입니다. 전 세계 각 민족들에게 알리는 메시지도 아니고, 아브라함의 자손인 이스라엘 민족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구약 시대에 이스라엘 민족을 가나안 땅에 정착시켜서 당신에게 영광을 돌리게 하는 것이 1단계 작업이었습니다. 신약 시대에 와서 범세계적으로 하나님의 역사가 전개된 것은 구약 시대에 하나님이 계획했던 일이 뜻대로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가나안은 별 볼 일 없는 땅입니다. 대체로 산악 지대고 군데군데 평원이 있어 농사를 지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지역을 무대로 삼아 아브라함의 자손을 애굽에서 탈출시킵니다. 제가 아무리 영적으로 깊은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하여도 성경을 떠나서 얘기하면 인정을 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성서를 근거로 하여 이야기합니다.

성경에는 에덴동산이 지구상에 있는 걸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불과 6천 년 전에 있었던 그곳을 지구상에서 찾아낼 수 없습니다. 수억 년이 넘는 공룡의 흔적도 찾아내는 현대 과학이 6천 년 전의 에덴동산은 찾아도 없다 이겁니다. 그렇다면 에덴동산이 지구상에 없었다는 얘기가 됩니다.

우주를 지으신 분께서 아담, 하와를 어느 한 지역에 살게 하셨습니다. 그 지역을 에덴동산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그 에덴동산에서 아담, 하와와 대화를 나눕니다. 즉 에덴동산은 아담, 하와 뿐만 아니라 하나님에게도 사시기에 적합한 곳입니다. 제가 한 얘기가 안 맞으면 저를 따를 필요가 없습니다.

저는 언제나 준비 없이 즉흥적으로 설교합니다. 보여주셨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한 겁니다. 에덴동산은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자

라야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입지 않은 사람은 에덴동산에 들어가 살지 못합니다. 적응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을 들어다가 달나라에 갖다 놓으면 금방 죽습니다. 공기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주복을 입고 갑니다. 우주복은 달나라에 적응할 수 있는 옷입니다. 그런데 화성에 사람이 간다고 치면 달나라의 우주복을 입고는 못 갑니다. 화성은 여건이 또 다릅니다. 그러므로 화성에 적합한 옷을 입고 가야 합니다. 다음에 금성에 간다고 칩시다. 금성은 섭씨 500도입니다. 섭씨 500도면 숯불 같습니다. 그러므로 500도를 끄떡없이 견딜 수 있는 어떤 장치를 해야 합니다. 그래야 삽니다.

그처럼 에덴동산에서는 아담, 하와처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자라야 삽니다. 아담, 하와가 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먹었을 때 하나님이 에덴동산 안에 그대로 두었습니까? 내쫓았습니다. 그 안에 살 수 있는 자격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자격을 잃었으니까 내보내는 겁니다. 땀 흘려 고생하며 사는 세계로 나가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아담, 하와는 선악과를 따먹고 형상이 바뀌고 모습이 달라졌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기 전에는 자기들이 벗은 것을 몰랐는데, 따먹고 나니 벗은 것을 알고 부끄러워했다면 모습이 같습니까? 모습이 변했습니다. 또 선악과를 따먹기 전에는 하나님과 자연스럽게 교류했는데, 선악과를 따먹은 후에는 하나님을 마주보지 못하고 숨어 버렸습니다.

범죄하기 전과 같습니까? 엄청난 변화가 온 겁니다. 그래서 “너는 나가라.” 이겁니다. 아담, 하와가 쫓겨나서 사는 세계와 아담, 하와가 살던 세계는 천지차이입니다.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창2:8-9) 에덴동산에 먹어서는 안 되는 과일나무가 있었다면 이긴 문제가 된다 이겁니다. 하나님을 괴롭히는 세력의 존재를 입증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신과 신의 대결 양상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이에 대해 아는 모릅니다. 그러나 빛과 어둠의 싸움에서 인간이 한 분야를 담당하는 하늘 군병을 배출시키는 역사에 동참한 우리로서는 이 대결 구도를 결코 간과할 수 없습니다. 그것을 간과하면 감람나무 역사는 있으나 마나입니다. 에덴동산에서 아담, 하와를 통해 하시고자 했던 하나님의 의도나, 감람나무 이긴 자를 통하여 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의도는 같습니다.

그런데 아담, 하와는 선악과로 인해 에덴동산에서 쫓겨났습니다. 만약 아담, 하와가 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먹지 않고 하나님의 의도대로 움직였다면 인류 역사는 크게 달랐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작업이 시작되기도 전에 아담, 하와는 사단의 손아귀에 들어가 버렸습니다.

여호와께서 하시고자 하는 의도를 이렇게 사전에 알고 차단시

키는 세력이 있다면, 하나님은 인간과의 관계에서는 전지전능하여도, 이 세력을 완전히 꺾기 전에는 모든 일이 마음대로 안 된다는 결론이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은 인간에게 전지전능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마귀도 인간에게 전지전능한 존재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마귀는 신이고, 인간은 육을 입어 연약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마귀가 싸울 때에는 하나님도 전지전능이 안 되고, 마귀도 전지전능이 안 됩니다. 제 얘기를 잘 들으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마귀와 싸울 때에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뜻대로 쉽게 안 됩니다. 상대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도 어려움을 겪으실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을 요한 계시록은 여러 군데 기록하고 있습니다.(계11:7, 12:7, 13:7, 17:14, 19:19) 그리하여 여호와께서 인간에게 무엇을 원하는가를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교회를 많이 지어라, 전도를 많이 해라,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럼 뭐냐? 마귀를 발등상 시켜라 이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마귀를 발등상 되게 하기를 기다린다고 했습니다.(히 10:13) 주님은 하나님의 우편에서 기다리신다고 했습니다. 그럼 주님이 직접 하십니까? 대신하는 사람이 있어야 하는 겁니다.

아담, 하와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기 때문에 에덴동산의 생명과일을 먹고 영원토록 살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들이 범죄하여 마귀에게 속하게 되니 모습도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이젠 나가라 이겁니다. 그럼 쫓겨난 그 생명체가 다시 하나님의 세계에 들어가려면 누굴 닮아야 합니까? 다시 하나님을 닮아야 하는 겁니다. 그

래서 지상에 보내신 아들이 하나님과 똑같은 구세주입니다.

하나님은 “너와 같은 생명체를 만들어라. 그러면 내가 그 생명체를 내 나라로 곧장 끌어들이겠다.” 이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전에도 말씀드린 대로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느니라. 나는 양의 문이니라.”(요10:7)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런데 주님은 지상에 오셔서 하늘나라로 가는 길을 마련하시고 하늘나라에 올라가 이긴자에게 권세를 주어 지상에서 마귀를 발등상 되게 하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계2:26)

오늘날 여러분은 이긴자를 통하여 옛 아담, 하와의 생명체를 받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그 나라에 곧바로 받아들입니다. 내쫓았던 생명체에게 “이제 들어와 살아라.” 이겁니다. 주님은 말씀했습니다.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과 내 피를 먹고 마시면 영생에 이르리라.”(요6:55-56) 이 주의 피와 살이 감추었던 만나요,(계2:17) 죄를 씻는 생수(속13:1, 계21:6-7)인 것입니다.

그런데 기독교에서 주의 살과 피를 떡과 포도주로 비유하여 2천 년 동안 하나의 의식으로 고착시켰습니다. 그렇게 되는 게 아닙니다. 오늘날 여러분이 주의 종을 통해 주의 피가 연결되는 겁니다. 주의 보혈이 여러분에게 임하는 겁니다. 축복한 생수로 시체가 피는 것도 주의 보혈이 역사하는 겁니다. 안찰은 하나님의 생명체를 만들어 내는 겁니다. “내가 목마른 자에게 생명수 샘물을 주리라. 이기는 자는 이것을 유업으로 얻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

들이 되리라.”(계21:6-7) 상징적으로 말씀하신 겁니다. 아들이 아니지만, 아들과 같이 대해 준다는 겁니다. 전부가 비유입니다.

이것이 이루어지게 되면 여러분은 음부를 거치지 않고 바로 하늘나라의 지성소로 갈 수 있는 겁니다. 지성소는 아담, 하와가 살던 장소보다 더 거룩한 곳입니다. 그곳에 가는 겁니다. 그곳에는 하나님과 주님이 계십니다. 그곳에 들어가는 것을 지상에서 예비하는 장소가 알곡성전입니다. “알곡을 만들어라.” 기가 막힌 얘기가 아닙니까? “이 성전을 통해서 내 나라로 들어온다.” 그분이 보여주시고 말씀해 주신 겁니다.

## 2) 주의 부활

하나님의 아들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은 많은 사람들에게 논란거리가 될 수도 있습니다. 과학자나 역사가들은 그리스도의 출현에 고개를 갸웃거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물론 기독교 안에서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며 살아서 부활 승천하셨다고 주장하지만, 막상 증거를 대라고 하면 성서의 기록밖에는 보여줄 수 없습니다. 이것은 기독교의 약점이기도 합니다. 다른 종교에서 “그건 너희들이 좋을 대로 해석하는 게 아니냐?” 하고 우기면 더 이상 반론하기가 어렵습니다.

성경에는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으신 줄 우리가 알게 된다고 하였습니다.(히11:3) 옳은 얘기입니다. 성경에는

신앙이 아니면 이해할 수 없는 내용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중에도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셨다가 부활 승천하시기까지의 과정은 더더욱 의심의 여지가 많습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바와 같이, 주님은 죽었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여 40일 동안 지상에 머물면서 당신께서 다시 사신 것을 증거하시고 제자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승천하셨습니다.(행1:4)

막달라 마리아와 몇몇 여인이 무덤에 들어가 보니, 주님이 누우셨던 곳에 시신은 없고 주님을 싸맷던 세마포만 거기 있더라고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눅24:12) 주님이 다시 살아나셨다면 주님을 싸맷던 세마포가 풀려야 합니다. 묶여 있는 주님 자신은 그 세마포를 풀지 못합니다. 그런데 무덤 안에는 제자나 다른 추종자들은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무덤 입구를 큰 돌을 굴려서 막아 놓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로마 병정들이 무덤을 지키고 있었습니니다. 그런데 사흘 만에 주의 무덤에 가 보니 입구의 돌은 굴러가고, 시신이 놓여 있던 자리에는 주님을 감았던 세마포만 고스란히 남아 있었다면 참으로 불가사의한 일입니다. 과학적으로는 입증 안 됩니다.

인간의 세포를 원자로 분열시키면 연기같이 사라져 버립니다. 히로시마에 원자탄이 떨어졌을 때 인간은 순식간에 재가 되어 버렸습니다. 먼 거리에 있던 사람들은 엄청난 상처를 입고, 그보다 더 먼 거리에 있던 사람들은 멀쩡한 것 같았으나 그들에게서 기형아가 태어났습니다.



어떻게 무덤에서 몸을 감았던 세마포만 그대로 남겨두고 빠져 나갈 수 있었을까요? 주님을 도와준 어떤 존재가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천사가 도와줬던 겁니다. 무덤을 막은 돌을 치운 것도 천사요, (마28:2) 주의 부활을 도운 것도 천사였습니다. 성경에는 무덤 속에 광채 나는 흰 옷 입은 두 사자가 있었다고 했습니다. (마28:5) 무덤에 주님의 시신이 없었습니다. 그럼 주님은 어디로 가셨느냐가 문제입니다.

이에 대해 과학이 인정하는 답변을 해야 하는데, 그게 결코 쉽지 않습니다. 제가 그냥 “이상 중에 봤다. 그래서 안다.”고 말하면 “이 자식이 봤는지 안 봤는지 우리가 어떻게 아냐?” 이렇게 반문하면 끝나는 겁니다. “저 자식이 쇼하네.” 그렇게 말해도 할 수 없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탄생을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그럼 과학이 다냐? 그게 아닙니다. 과학이 다루지 못하는 영역이 있습니다. 영의 문제가 그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은 과학 이외의 영역을 좀처럼 믿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영의 세계도 되도록 과학적으로 해명해야 합니다. “내 살과 내 피를 먹고 마시라.”는 것도 이제 가급적 과학적으로 설명을 해야 한다 그 말입니다. 그래야 이해가 가는 겁니다. 그때는 주님도 설명을 못했습니다. 그저 “육에 관한 얘기가 아니라 영에 관한 얘기니라.” (요6:63) 이렇게 말씀하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인지가 발달하지 못한 시대였기 때문에. 그러나 지금은 다릅니다. 과학적인 밑받침이 있어야 합니다.

천사가 마리아에게 “네가 수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고 하라.”(눅1:30)고 말했을 때 마리아는 “저는 사내를 알지 못하는데 그런 일이 어떻게 있을 수 있습니까?” 하고 의아하게 생각했습니다. 여자가 아기를 낳으려면 여자의 난자에 남자의 정자가 들어가야 합니다. 마리아가 남자를 알지 못한다는 말은 나는 난자는 있어도 정자가 없기 때문에 아기를 낳을 수 없다는 뜻입니다. 그럼 그 정자의 역할을 누가 하느냐? 하나님이 하신다 이겁니다.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으리라.”(눅1:35)고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마리아에게 정자의 역할을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해서 주님이 이 땅에 태어나신 겁니다. 이렇게 태어나신 분이 죽어서 원상 복귀를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하늘의 존재가 땅의 존재와 함께하여 태어난 분을 땅의 존재는 땅의 존재대로 분해하고, 하늘의 존재는 하늘의 존재대로 분해시킨다면 주님의 존재는 원상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이것이 부활입니다.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주님의 육신은 어머니인 마리아의 것이고,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거룩한 그리스도의 생명체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때 마리아의 것은 땅으로 돌아가고, 하나님의 것은 하늘로 가게 됩니다. 이렇게 갈라져 버립니다. 즉 주님은 원상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인간도 주님이 가신 그 방법대로 뒤따라갈 수 있도록 주께서 길을 열어 놓았습니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늘나라에 갈 자가 없다.”(요14:6)고 말씀하신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주님이 이 땅에 계실 때에는 사람이었습니다. 즉 육을 갖고 계

셨습니다. 그 육이 십자가에 처형을 당하여 산제사를 드리게 되면 하나님은 받으십니다. 구약 시대에는 사람이 범죄하면 짐승의 피로 제사를 드려 그 짐승의 피만큼 사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피 흘림이 없으면 죄를 사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히9:22) 피가 곧 생명입니다.(레17:14) 그런데 하나님께서 구약 시대의 제물인 송아지, 양, 비둘기의 피로 드리는 온전치 못한 제사 대신에 온전한 제사를 받으시겠다는 겁니다. 그 제물이 누구냐? 하나님의 아들인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단번에 드린 제사’(히10:10)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런 제사를 드리는 사명을 띠고 온 분을 비유로 ‘어린 양’이라고 말하는 겁니다.(요1:29) 즉 주님은 세상 죄를 짊어지신 어린 양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하나님의 거룩한 제물이 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산 제물이 되셨습니다.

주님은 십자가를 지시고 사흘 동안 무덤에 계셨습니다. 그럼 주님은 사흘 동안 그 무덤 속에 계실 때 무슨 일이 있었느냐 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마리아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하여 육을 입은 주님의 생명을 할 일을 끝냈습니다. 이제 누구에게로 돌아가야 합니까? 하나님에게 돌아가야 합니다. 그러자면 하나님에게 돌아갈 수 있는 모든 여건을 갖춰야 합니다. 주님이 무덤 속에서 이것을 갖추시는 기간이 사흘입니다. 이제 주님은 물과 피가 싹 빠지고 껍데기만 남은 겁니다. 이런 분이 육으로 다시 사시려면 피도 제공해야 하고

물도 공급해야 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살아날 수가 없습니다. 주의 부활에 대해 육을 입은 그대로 다시 살아난 것처럼 얘기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하는 말입니다.

주의 부활은 나사로의 희생과는 다릅니다. 나사로는 죽었다가 다시 육으로 살아난 겁니다. 그러니까 나사로는 자기 피가 몸속에 그대로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피와 물이 다 빠졌습니다. 그분이 다시 사시려면 그만큼 피와 물이 들어가야 합니다. 무덤 속에서 누가 피를 공급해 줍니까? 주님은 지상에 계실 때 시장기도 느끼시고, 갈증도 느끼시는 분이었습니다. 그런 분이 피도 물도 다 쏟아 빼와 가죽만 남은 채 차디찬 돌무덤에 세마포로 싸여 누워 계셨습니다. 어떻게 다시 살아납니까?

마리아는 하나님의 아들을 낳아 주신 분이지만, 흙에서 취한 인간입니다. 그러니까 아담의 후손입니다. 아담, 하와는 선악과를 따 먹었기 때문에 흙으로 돌아갔습니다.(창3:19) 그러므로 그 후손도 흙으로 돌아가지 않을 수 없습니다. 누구나 흙으로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마리아의 몸에서 태어났습니다. 어디로 돌아가야 합니까? 흙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흙은 이 세상을 뜻합니다. 그런데 그분의 생명체는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하여 탄생되었습니다. 그러므로 그 생명체는 이 세상의 것이 아니라 하늘의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늘의 것은 하늘로 돌아가고, 육의 것은 흙으로 돌아갑니다.

원자탄에서 빛이 번쩍하는 순간에 사람의 생명체가 사라져 버

립니다. 육이 사라진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원자탄보다 몇 백만 배의 위력을 지닌 것이 하나님의 광채입니다. 주님의 육신은 그런 놀라운 광채로 말미암아 산화되어 버릴 수 있는 겁니다. 즉 하나님의 초능력으로 사라져 버린다 이겁니다. 그래서 주님을 싸맷던 세마포는 그 자리에 그대로 남아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형상이 없으면 주님이 다시 사셨다는 것을 사람들은 알 수 없습니다. 주님은 사람들에게 다시 사신 모습을 보여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변모하여 제자들 앞에 나타나신 겁니다. 주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다가 육을 입은 그대로 사셨다면 하늘나라로 올라가지지 못합니다.

돌아가신 주님의 육적인 모습에 변화가 없었습니까?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부활하여 새로운 생명체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주님은 영적인 존재입니다. 그래서 아무 데나 자유롭게 나타나시고 생선도 잡수실 수 있는 겁니다. 생선을 잡셨다 해서 옛 모습 그대로 다시 사신 것으로 압니다. 그건 부활이 아닙니다. 죽었던 사람이 다시 사는 것은 나사로의 경우처럼 재생입니다. 그럼 주님의 살과 피는 이 세상에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느냐 이겁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아들의 피로 제사를 받게 되면 내 신을 이슬과 같이 느끼게끔 모든 사람들에게 내려보낸다.”(호14:5 참조)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신이 다른 보혜사 성령입니다. 그리고 그 성령으로 역사하는 종이 감람나무요, 이긴 자입니다.

구약 시대에 짐승의 피로 드린 제사를 하나님이 받으시고 불의 성령을 내려보낸 것처럼(레9:24 참조) 어린 양이 단번에 드린 제사를 하나님이 받으시고 내려보내는 성령을 가리켜서 ‘다른 보혜사 성령’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 다른 보혜사 성령이 우리에게 연결되면 주의 살과 주의 피가 연결되는 것입니다.

그 보혜사 성령은 하나님의 영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연결되면 하나님과 우리가 떨어져 있습니까? 하나가 됩니다.(요 14:16, 20) 하나가 되는 역할을 그리스도가 해 주시기 때문에, 그 이름을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임마누엘’이라고 했습니다. 임마누엘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한다는 뜻입니다. 그 주님이 이긴자에게 다른 보혜사 성령을 보내어 역사하시는 겁니다.

## Chapter 24.

# 주의 살과 피는 어떻게 먹고 마시는가?(2)



### 1) 목숨을 건 신앙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있지만, 그 믿는 척도를 어느 선에 둘 것이냐 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주님 당시에는 신앙의 척도를 나사렛 예수를 ‘주’라고 부르는 데 두었습니다. 그리하여 이런 사람은 구원을 받는다, 영생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당시에 나사렛 예수를 구세주라고 인정하는 것은 목숨과 바꾸는 것을 뜻합니다. 다시 말해서 “너는 예수를 믿느냐?”, “믿습니다.”, “너는 그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구세주로 생각합니다.” 하면 목숨을 부지하기가 어려웠습니다. 이럴 경우에 목숨을 내놓고 “나사렛 예수는 구세주입니다.” 하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구원을 얻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날 예수님을 ‘주’라고 부르면 구원을 받는다고 합니다. 그건 잘못된 해석입니다. 오늘날 구원의 척도는 하나님의 섭

리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 구원의 척도를 모르면 영생이 뭔지를 알 수 없는 겁니다. 주님 당시에 나사렛 예수를 구세주라고 믿어 생사의 기로에 놓이는 위험을 무릅쓴 사람은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 이후에 시대가 변하여 예수를 주님이라고 해도 아무런 위해를 받지 않는 경우에는 주의 이름을 부른다고 해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이 시대에는 이 시대의 바로미터(척도)가 있는 겁니다. 구원의 척도가 2천 년 전에는 당시의 험악한 환경에서 이 선을 넘어야 하늘나라에 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것을 알지 못하면 옛날의 성경 구절을 가지고 “이렇다.”고 주장합니다. 한마디로 안이하게 믿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는 아무리 많은 사람이 모여도 하나님이 적을 무찌를 때 이득이 되지 않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안이 구원을 얻으리라.”(행 16:31)는 것은 주님 당시의 얘기입니다. 당시는 어떤 시대냐? “저 집은 예수 믿는데.” 하면 엄청난 핍박과 불이익이 따르게 마련이었습니다. 이걸 기꺼이 받아들이고 믿는 자가 구원을 받는 겁니다. 오늘날처럼 교회 문을 드나들면 구원받는다는 뜻이 아닙니다.

또 전에도 말했지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으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다.”(요3:16)고 했으므로 오늘날 일반교회에서 이것이 구원의 핵심이 되어 있습니다. 얼마나 듣기 좋습니까? 다른 건 필요 없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그걸로 이미 구원을 받았다는 겁니다. 얼마나 믿기 쉽습니까? 이



렇게만 된다면 무슨 걱정이 있습니까?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구원에 대해 주님이 하신 말씀은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이 땅에 계실 때 하신 말씀하고, 하늘나라에서 사도 요한을 통해 지시하신 말씀이 그것입니다. 이 땅에 계실 때 하신 말씀은 4복음서에 기록되어 있고, 하늘나라에서 사도 요한을 통해 하신 말씀은 요한 계시록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기독교는 이 땅에 계셨던 주님의 말씀도 깊이 있게 상고하지 않고, 어려우면 배제시키고 있습니다. 더욱이 요한 계시록에 주님이 당부하신 말씀은 도외시합니다.

그럼 왜 제자들이 당시에 그렇게 말했는가?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시대적 배경을 알아보자 이겁니다. 불과 같은 성령을 받아서 외치는 제자들은 목숨을 걸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도 목숨을 거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때 목숨을 걸면서도 예수를 믿게 하는 원동력이 뭐냐? 오순절 날 마가의 다락방에서 불이 혀같이 갈라지면서 임한 불과 같은 성령입니다. 그 성령을 받아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확신을 굳히고 예수를 믿었습니다. 그들은 이 확실한 증거를 무시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저를 믿으면” 했을 때의 ‘누구든지’는 그런 위태로운 상황에서도 “나는 죽을지언정 예수를 버릴 수 없다.”는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오늘날처럼 교회 문턱이 낮아 별 사람이 다 드나들 수 있는 처지에서 누구든지 다 구원받는다든 뜻이 아닙니다.

그럼 이런 시대에는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를 사람들한테 알려 줘야 하는 겁니다. 그래야 믿는 사람들이 올바른 신앙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기독교는 “교회만 나오면 구원받는다. 주 예수를 믿으라. 할렐루야, 아멘!” 이러면 끝납니다. 그래서 누구나 다 구원받은 줄 압니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죽을 때까지 목사일, 장로일 했어도 죽으면 썩어 갑니다. 그게 뭐냐? 마귀가 데려간다는 증거입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은 좁아 찾는 이가 적다.”(마7:13-14) 오늘날 교회 문이 좁습니까? 누구나 드나들 수 있는 넓은 문입니다. 주님이 하신 말씀을 상고해 봅시다.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마7:20-21) ‘주여’ 하고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는 겁니까? 구원은 결코 쉬운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주님은 “내 살과 내 피를 먹고 마셔야 영생을 얻을 수 있다.”(요6:54)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일반교회에서는 주님과 영적인 연합으로 생각할 뿐, 그 깊은 뜻을 헤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 주님은 “나를 따르는 자는 각기 매일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마10:38)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 믿기가 쉽습니까? “나를 위해 자기 목숨을 버리는 자는 얻을 것이요, 자기 목숨을 얻고자 하는 자는 잃을 것이다.”(마10:38-39)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시니까 제자들은 ‘구원이 거저 되는 게 아니구나.’ 하는 것을 날이 갈수록 깊이 느꼈던 겁니다.

2천 년 동안 기독교가 주님의 살과 피를 어떻게 먹고 마시는가에 대해 깊이 파헤친 신학자가 있었느냐? 없었습니다. 왜 없었느냐? 주님의 제자들이 믿으면 된다고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구원에 관한 제자들의 설교 내용을 지금 지적한 겁니다. 그것은 주님의 설교 내용과 다릅니다. 제자들은 믿으면 된다고 했습니다.

그럼 주님의 사랑하는 제자들이 왜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을 받은 다음에 나가서 설교할 때 “주의 살은 이겁니다. 주의 피는 이겁니다.” 하고 피와 살을 증거하지 않고, 십자가를 증거하고 믿음에 대한 증거만 했을까요? 주의 살이 찢기고 주의 피를 흘린 대가를 하늘에서 내려보내 주면서 증거하라고 해야 할 수 있는 거지, 함부로 증거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그 대가가 뭐냐? 다른 보혜사 성령입니다. 제자들이 받은 성령은 불과 같은 성령이지, 생수의 성령이 아닙니다.(행2:3, 요7:38-39) 그러니 제자들에게 “내 살과 내 피를 증거하라.”는 지시가 올 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요한을 불러올린 겁니다. 그리하여 하늘의 새로운 메시지를 기록하여 일곱 교회에 전하게 했던 것입니다. 그 일곱 교회 안에서 이긴자가 나오면 그때 비로소 “내가 그에게 나의 피권을 맡겨서 역사하게 할 것이다.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희들에게 하늘의 새 메시지를 전하게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기독교가 2천 년 동안 크게 발전해 왔지만, 주의 살과 주의 피가 무엇을 뜻하는지 알 길이 없었던 겁니다.

주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하늘나라로 올라가신 다음의 행적이

복음서에 나와 있습니까? 없습니다. 본 사람이 있길 합니까, 지시 받은 사람이 있길 합니까, 알려 주는 사람이 있길 합니까? 그래서 오늘날까지 기독교는 제자들, 그중에도 사도 바울의 신학에 의해 수백억의 기독교 신자들이 믿어 왔던 겁니다. 그러니 하늘에서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임했던 불과 같은 성령은 전에도 말한 바와 같이 구약 시대의 성령입니다. 그 후에 생수의 성령이 최초로 임한 것이 앞선 감람나무 역사입니다. 제가 그것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주님이 저에게 가르쳐 주신 겁니다. 그러나 누가 이것을 믿어줄 겁니까? 이것은 이단으로 공격받기에 딱 알맞은 얘기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은 제자들이 목 베임을 받지 않고도 순교자의 반열에 참여하도록 하기 위해 십자가를 지신 겁니다. 그리하여 하늘 군병의 수가 차면 적을 완전히 무찌르게 됩니다. 그래야 비로소 하나님의 크신 경륜이 이루어져 새 하늘과 새 땅이 열리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십자가를 지신 후에도 사랑하는 제자들이 선지자들처럼 처참하게 죽어야 된다면, 주님이 지신 십자가의 혜택을 받은 겁니까? 못 받은 겁니다. 이것은 대단히 어려운 얘기입니다. 수천 년 동안 전해 내려온 구원의 원리를 뒤집는 겁니다.

주님은 우리들하고는 태어날 때부터가 다릅니다. 모태에서부터 성령이 충만했습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영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하나님도 되고 인간도 됩니다. 주님은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요10:30)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과 주님이 일체다 이겁니다. 그래서 “내가 아버지로 인하여 사는 것처럼 내 살과 내 피를 먹고 마시는 자는 나로 인해서 산다.”(요6:57)는 겁니다. 이 말씀을 잘 들으셔야 합니다.

주님이 저한테, “내가 땅에서 직접 할 수 없으니 네가 맡아서 해 줘. 그러나 네 건 아니야, 내 거지. 이걸 전해 줘. 그러면 너를 통해서 이걸 받는 사람은 내 것을 받기 때문에 살아서 나 있는 데로 곧바로 올 수 있어. 그는 내 아버지가 계신 데도 갈 수 있는 거야.” 하고 말씀하신 겁니다. 얘기가 그렇게 되는 겁니다. 또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앞선 역사에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생수의 성령을 물 붓듯 보내 주는 걸 봤지?”

“봤습니다.”

“받았지?”

“받았습니다.”

“그게 누구 거냐? 박아무개 거냐, 내 거냐?”

“주님의 것입니다.”

“그래, 이것을 짓밟아 버리면 누구의 피를 짓밟는 거냐?”

“주의 피를 짓밟는 겁니다.”

“그렇지?”

“그렇습니다.”

이 대화의 내용을 제가 여러 차례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습니다. 평생 해야 합니다. 저는 그것을 전할 직분을 가진 사람이니까. 그거 전하지 않으면 주님께 혼납니다. 제가 주의 파수꾼이기 때문입

니다. 듣든 말든, 믿든 말든, 저는 전해야 합니다.

체계가 선 사람들은 알아듣지만, 하나님의 섭리를 모르는 사람들에게는 우스꽝스럽게 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러냐? 오늘날까지 기독교가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주님이 하신 말씀이 아니라 제자들의 말에 의해 발전되었기 때문입니다. 주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것이 구원의 요건인데, 이에 대한 해명 없이, 예수를 믿으면 덮어놓고 영생을 얻는다고 문호를 개방했던 겁니다. 이 경우에 하나님께는 이득이 돌아갑니까? 안 돌아갑니다. 이것을 주님이 저한테 설명해 주신 겁니다.

이 말을 듣는 당사자는 어깨가 가벼울까요? 무거운 겁니다. 이만저만 부담스럽지 않습니다. ‘큰일 났구나!’ 그 후부터 주의 종에게 공생애가 시작된 겁니다. 이걸 어둠의 세력은 가만히 보고만 있을까요? 가로막게 됩니다. 어둠이 가만히 있을 리가 없습니다. 더구나 무너진 앞선 역사를 다시 세워야 합니다. 그래서 하늘에서는 고도의 전략을 세웁니다. 그만큼 어려운 겁니다.

오늘날 영적으로 보통 어려운 전쟁을 하는 게 아닙니다. 남의 눈에는 아무것도 아닌 걸로 보여도, 그게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이 “너희 조상들이 이때를 보고자 했으나 못 봤고, 이 말을 듣고자 했으나 못 들었는데, 너희는 직접 보고 들으니 복이 있다.”(마13:17)고 말씀하셨을 때, 당시의 제사장, 바리새인들이 ‘웃기는 놈’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겁니다.

독약이 몸에 퍼진 사람은 해독을 시켜야 살 수 있습니다. 그건

말로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오늘날 주의 종에게 안찰을 받고 싶어서 받으십니까? 처음 받으면 눈이 뒤통수로 빠지는 것 같은데, 누가 받으려고 합니까? 안찰이 뭐니까? 해독시키는 겁니다. 선악과를 먹어서 들어간 독소를 제거해 버리는 겁니다. 무엇으로 하는가? 생수로 하는 겁니다.(눅13:1) 이것을 이긴자에게 유업으로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겁니다.(계21:6-7) 이긴자는 힘이나 능으로 됩니까, 하나님의 신으로 되는 겁니까? 하나님의 신으로 되는 겁니다.(눅4:6)

## 2) 제사의 혜택

주의 살과 피는 어떻게 우리가 먹을 수 있도록 만들어지는가? 말로만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은 이것이 어떻게 만들어지는가를 아셔야 합니다. 구약 시대에 A라는 사람이 도둑질을 했다면 하나님께서 “이런 죄를 지은 사람은 나한테 이런 짐승으로 제사를 지내게 해. 그럼 내가 그 제사를 받아서 성령의 불로 그 사람의 죄를 그 제물의 피가 정결한 만큼 사해 주겠다.”(레4:20, 9:24) 이겁니다.

그럼 하나님만 제사를 받느냐? 아닙니다. 마귀도 받습니다. 다른 종교의 제사는 마귀가 받습니다. 심지어 토속적인 제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옛날 심청을 풍랑이 거센 바다(인당수)에 제물로 바치면 신이 그 제사를 받은 다음에 풍랑이 멎게 할 것이라는 믿음도 미신으로만 볼 것이 못 됩니다.

이 모든 것은 신과 인간 사이에 주고받는 거래가 있다는 것을 말해 줍니다. 어떤 신이 됐든, 인간과 교류하려고 합니다. 무당을 보십시오. 무당도 되고 싶어 되는 게 아닙니다. 무당이 되기 전에 그 사람이 신을 받지 않으려고 별짓 다 해도 막무가내입니다. 끝내 거부하면 그를 알아놓게 합니다. 이렇게 해서 상대방이 약해진 틈을 타고 무당 신이 들어가서 무당이 되게 만드는 겁니다. 이것을 신접했다고 말합니다.

저도 신접한 사람입니다. 제 힘으로 어떻게 안찰을 합니까? 성령이 저와 같이하는 겁니다. 그렇다고 무당처럼 점을 치거나 맨발로 작두날을 밟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왜? 신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저의 설교를 들으면 여러분에게 신이 접하게 됩니다. 그것을 좋게 말해서 “그리스도의 신이 같이한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을 신이라고 하는 겁니다.(요10:35)

무당만 신접하는 게 아닙니다. 저도 신이 접한 사람입니다. 신이 다르다 뿐입니다. 악령이 무당에게 동행하듯이 보혜사 성령이 항상 저와 동행합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특하면 “주여” 합니다. 달리 그러니까? 주를 찾는 겁니다. 주님이 우리의 신입니다. 그러나 입으로 ‘주여, 주여’ 한다고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마7:21)

우리는 신과 신의 전쟁에 동참하는 군병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신과 접해야 합니다. 그래야 신을 도울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신이 인간을 손쉽게 상대하려면 신으로 와서는 안 됩니



다. 우리와 같은 존재로 와야 합니다. 그래서 신이 육을 입고 지상에 오신 겁니다. 그 신이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신이 인간의 형상을 입고 오셔서 인간에게 친히 복음을 전하시고, 인간이 하늘나라로 갈 수 있는 길을 마련하시고, 신의 세계로 올라가셨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신의 세계로 가려면 신과 접해야 합니다. 주님이 인간을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하늘나라로 가는 길을 열어 놓았기 때문에 인간은 그 길을 따라 그 나라에 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자신을 길이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어디로 가는 길입니까? 하늘나라로 가는 길입니다. “나는 길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께로 갈 자가 없느니라.” 옳은 말씀입니다.

그럼 하늘나라로 가는 요건이 뭐냐? 주께서 “내 살과 내 피를 먹고 마셔라.” 하신 겁니다. 그럼 어떻게 2천 년 전의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실 수 있는가? 이것을 설명하기 위해 제가 구약 시대의 제사에 대해 설명한 겁니다. 양을 잡아 흘러나온 피는 땅에 떨어지고, 그 살은 제사장들이 구워 먹지만, 그걸 하나님이 제사로 받으십니다. 이때 하늘나라에서는 그 제물을 불과 같은 성령의 은총으로 환원시킵니다. 그래서 죄가 사해집니다.

여러분, 비유로 쉽게 설명하겠습니다. 산유국에서 채취한 원유를 우리가 유조선에 싣고 와서 파이프를 통해 정유소로 보내면 정유소에서 그 원유를 구분해서 휘발유, 경유, 등유 등을 만들어 내고 찌꺼기는 플라스틱이나 나일론의 재료로 쓰입니다. 그래서 원유를 블랙 골드(검은 금)라고 합니다. 원자재는 원유인데, 다른 것

을 만드는 데 쓰입니다. 제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양을 잡아 하나님께 제사를 지냈을 때 땅에 떨어진 피가 그 사람의 죄를 씻어 주는 것이 아닙니다. 또 양고기가 그 사람의 죄를 사해 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 제사를 받으시고 그 제물로 다른 은총, 즉 성령을 그 사람에게 다시 내려보내 죄를 사해 주시는 겁니다. 주님이 십자가를 지시면 그 살과 피가 아니라, 생수가 옵니다.(요7:38-39 참조) 주님의 살과 피로 말미암아 오는 것입니다.

### 3) 생수의 성령

저는 전에 인류의 기원과 하나님의 역사의 기원을 구분하여, 하나님께서 교류하기 시작한 가인, 아벨의 부모를 아담, 하와라고 하여 인간의 시조로 삼은 것이 6천 년 전이고, 인간의 기원은 훨씬 오랜 세월을 거슬러 올라간다는 것을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 후 20여 년이 지나 일반교회의 교역자들 중에 저의 주장에 동조하는 분들이 적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의 종의 설교집이 암암리에 그들의 손에 들어가 읽히고 있는 것입니다.

그 설교집에서 감람나무 이긴자라는 말만 빼고 설교하여 교인들에게서 좋은 반응을 얻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같은 내용도 제가 하면 이단이 되고, 그들이 제가 한 말을 사용해서 얘기하면 진리가 됩니다. 지금도 우리 설교집이 나오기를 기다렸다가 구하여 읽는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어디 가도 이와 같은 영적인 말을

들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다른 얘기는 알아도 ‘흰 돌’의 내용은 누구도 알 수가 없습니다. 창세기와 요한 계시록은 알파와 오메가입니다. 창세기를 알면 요한 계시록을 알게 되고, 요한 계시록을 알면 창세기를 알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날 요한 계시록의 내용을 밝히는 하나님의 역사가 펼쳐지기 때문에 창세기가 밝혀지고 있는 겁니다. 그게 그렇게 간단한 게 아닙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라.”는 주님의 말씀에는 복잡한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깊은 사정을 알아야 비로소 왜 주의 살을 먹어야 하고 주의 피를 마셔야 하는가를 알게 된다 그 말입니다.

주의 살을 먹고 주의 피를 마신다고 누구나 바로 사는 게 아닙니다.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사람은 마지막 날에 살리는 겁니다.(요 6:54) 마지막 날이란 주님의 적수인 마귀가 마지막이 되는 날을 말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마귀가 존재하는 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뜻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제 말을 잘 들으셔야 합니다. 잘못 들으면 사실을 말해도 하나님을 깎아 내리는 것으로 오해할 수밖에 없습니다. 높이 받든다고 해서 하나님을 위하는 것이 아닙니다. 진실을 알아서 하나님 앞에 득을 드려야 하나님을 위하는 겁니다.

전지전능하다는 하나님이 어째서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야만 구원을 시킵니까? 하나님의 아들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할 수만 있으시면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 주십

시오.”(마26:39) 하고 하나님께 기도하셨습니다. 기꺼이 십자가를 지신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를 지기를 싫어하셨습니다. 그러자 전에도 말했지만,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어 아들이 십자가를 지도록 돕게 하셨습니다.(눅22:43) 그렇다면 하나님께 그럴 만한 이유가 없겠습니까? 있다 이겁니다.

하나님이 아들을 죽여야만 어떤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면 그게 보통 일입니까? 대단히 어려운 문제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우선 이것부터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제가 하는 말이 틀리면 저를 따르실 필요가 없는 겁니다. 이제는 제가 밝힐 건 밝혀야 합니다. 믿어도 그만이고, 안 믿어도 그만입니다.

하나님께서서 예언자들을 통해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약속대로 처녀의 몸에서 아들이 이 땅에서 태어났습니다. 그 아들이 할 일이 뭘니까? 십자가 지고 죽는 겁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아들을 보내신 겁니다. 거기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을 거다 이겁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뜻이 있을 거다 이겁니다. 그걸 섭리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서 죽여야만 어떤 일을 하실 수 있다면,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에 큰 애로가 없습니까? 있습니다. 얼마나 방해가 크면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면서까지 역사를 하시겠습니까? 2천 년에 이르는 기독교 역사에서 이에 대해 생각해 본 적이 있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안타까움을 근황조차 몰랐던 것이 사실 아

납니까? 그저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의 대속을 위해 십자가를 지러 오신 걸로만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서 죽여야 하는 이유가 있었다면, 그 이유는 누구에게 제일 요긴하겠습니까? 바로 하나님께 제일 요긴한 겁니다. 기독교는 하나님의 뜻을 준행하는 종교이지, 인간의 비위를 맞추는 종교가 아니다 그 말입니다. 기독교는 인간이 하나님으로부터 축복을 받아 잘 먹고 잘살게 하는 종교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뜻을 이루려는 종교가 기독교입니다. 인간이 구원을 받는 것은 2차적인 일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대명사는 ‘임마누엘’입니다. 앞서서도 말했지만, 임마누엘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뜻입니다.(마1:23)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를 지신 것은 하나님이 에덴동산에서 마귀에게 빼앗긴 인간을 다시 빼앗아 함께하시기 위해서입니다. 빼앗는 것이 간단합니까? 치열한 싸움을 해야 합니다.

주님은 “너희들은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당시에 주님의 설교를 듣는 사람들에게 이게 이해가 가는 얘깁니까?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게 사실입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셔야 한다.” 왜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셔야 하는가?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들이 내 살과 내 피를 먹고 마셔야 하는 이유는 내가 아버지로 인해서 사는 것처럼 나로 인해서 너희를 살게 하기 위해서이다.”(요17:12) 주님이 누구 때문에 산다고 했습니까? 하나님 때문에 산다고 했습니다.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사람은 누구 때문에 산다고 했습니까? 주님 때문에 삽니다.

그렇게 해야 하나님이 인간과 함께하시게 됩니다.(요14:16, 계21:3) 하나님이 빼앗겼던 인간을 다시 빼앗기 위해 얼마나 비참한 초비상 수단을 동원했는가를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다들 저절로 되는 줄 알고 있습니다. 이걸 싸움입니다. 어떻게 저절로 됩니까? 저절로 되는 일이면 주께서,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셔야 한다.”고 강조하실 이유가 없습니다.

주님은 살을 찢기시고 피를 흘리셨습니다. 그럼 그 나머지 할 일은 뭐냐? 하나님은 그의 아들을 멧기세덱의 대제사장이 되어 인간을 치리하게 하셨습니다.(히5:8-9) 이제 주께서 하실 일은 당신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돌아가시기 전에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만찬을 베풀고 떡을 떼어 주시면서 “이건 내 살이다.”, 포도주를 따라 주면서 “이건 내 피다.” 하고 주의 살과 피를 잊지 않도록 상징적으로 말씀하셨던 겁니다.

“내가 십자가를 지게 되면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너희들에게 다른 보혜사 성령을 보낸다.”(요14:26) 주님의 살과 피는 하늘로부터 내려온 떡, 곧 생수의 성령입니다.(요7:39) 하나님의 아들이 찢겨 피를 흘리지 않으면 생수의 성령이 인간에게 오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아들이 산 제물이 되어 드린 제사를 받으셨습니다. 그리하여 “여태까지 짐승의 피로 드렸던 제사는 필요 없다.”는 뜻에서 성전 휘장이 찢겨 나갔습니다.(마27:51) 제사 제도가 바뀌어 지성소와

성소를 갈라놓는 휘장이 필요 없으므로 하나님께서 찢어 버리신 겁니다. 이젠 다른 제사를 받겠다 이겁니다. 누구의 제사냐? 바로 아들, 곧 어린 양의 제사입니다. 이제부터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제사(예배)를 지내는 사람에게는 그리스도의 보혈이 제물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빈손 들고 나옵니다. 그것을 신령과 진정의 예배라고 말하는 겁니다.(요4:23)

구약 시대의 선지 성인들은 목 베임을 받은 대가로 주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하늘나라로 갔습니다.(마27:53) 그리고 신약 시대에도 계속 그 상태로 나온 겁니다. 그리하여 수많은 사람들이 순교를 당하였습니다. 그러다가 이긴자 감람나무의 역사가 일어나면서 순교가 필요 없게 되었습니다. 주의 보혈로 말미암은 생수의 성령이 임하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일반교회에서 믿음이 돈독한 분들이 죽은 모습하고 우리 역사에서 돌아간 분들의 죽은 모습이 크게 다른 것은 그래서입니다. 사람의 힘이 아닙니다. 성령의 조화입니다.

제가 26년 동안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새로운 메시지를 전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을 신학자들이 두뇌로 아무리 말을 뒤집으려고 해도 안 되는 겁니다. 그들은 사람의 생각을 앞세우고 저의 주의 것을 가지고 말하는데, 어떻게 사람의 생각이 주의 것을 이길 수 있습니까? 이긴자가 하나님의 섭리를 말하지 않는 한, 기독교는 더 이상 전진하지 못합니다.

주님은 26년 전에 저에게, “내가 박 아무개에게 기름을 부을 때 너

한테도 같이 부어 놓았다. 네가 두 번째 감람나무의 소임을 맡아야 한다.”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너무 힘들어 하나님께 호소하면, “감람나무 역사는 내 섭리니 어려워도 고수해라.”고 말씀하시는 이유도 그겁니다.

그럼 하나님은 무엇 때문에 감람나무 역사를 중요시하는가? 감람나무는 성도들에게 누구의 피를 전달해 주니까? 주님의 핏니다. 2천 년 동안 내린 불과 같은 성령이 감람나무를 통해 내린다면 감람나무의 존재는 귀할 게 하나도 없습니다. 똑같은 기능을 하는 성령인데, 뭐 귀합니까? 감람나무가 아니고는 다른 보혜사 성령이 오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이스라엘에게 이슬과 같으리니.” (호 14:5) 영적 이스라엘, 곧 이긴자에게 이슬 같은 보혜사 성령이 내리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마시는 생수가 왜 귀한가? 바로 그 생수에는 영적으로 주님의 피가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보혜사 성령이 깃들어 있기 때문입니다. (요7:39)



## Chapter 25.

# 주의 살과 피는 어떻게 먹고 마시는가?(3)



### 1) 생명수 샘물의 유업

하나님께서 요엘 선지자를 통하여 “말세에 내가 내 영으로 모든 육체에 부어 주리니, …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욘2:28-32)고 말씀하셨는데, 당시에 듣는 사람들은 이게 무슨 뜻인지를 몰랐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말세가 임박한 줄 알고 이 말씀을 인용했던 겁니다.(행2:17)

그리고 주님도 알아듣기 어려운 말씀을 하셨습니다.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떡이니라. 너희 조상들이 광야에서 하늘로부터 내린 만나를 먹어도 죽었지만, 내가 주는 만나를 먹으면 영생한다.”(요6:49) 당시에 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은 “저 친구 무슨 말을 하는 거야? 나사렛에서 목수로 근근이 살아가던 요셉의 아들이 하늘에서 내려왔다고? 웃기는 소리 잘도 하네.”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 주님은 사마리아 여인에게 “내가 누군지 알고 구하였으면 내가 너에게 생수를 주었을 것이다.”(요4:10)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가 강같이 흘러나리라.”(요7:38)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때 이 생수는 예수를 믿는 자가 받을 성령을 가리키는 것이라고 사도 요한은 설명했습니다.(요7:39) 주님이 생수의 귀중성을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주님은 이 생수가 하나님께서 700여 년 전에 이사야를 통하여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에서 물을 길으라.”(사12:3)고 예언하신 말씀이 그대로 응해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요7:38) 그런데 예수가 아직 십자가를 지시지 않았기 때문에 생수의 은혜, 곧 성령이 없었다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에게만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60억 인류 중에 20억 인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그분들 모두에게 하는 얘기입니다.

생수가 뭐냐? 주를 믿는 사람이 받아야 할 성령을 말하는 겁니다.(요7:39) 그런데 그때에는 그 은혜가 없었습니다. 분명히 이사야도 예언했고, 주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못받는 이유가 뭐냐? 예수가 십자가를 지기 전이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주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하늘나라에 올라가셨습니다. 그래서 약속된 성령을 받기 위해 마가의 다락방에서 120문도들이 합심하여 기도를 했습니다. 왜? 주님이 기다리라고 약속하셨으니까. 그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합니다. 내 말이 안 맞으면 나는

단을 내놔야 합니다.

주님은 승천하시기 전에 말씀하셨습니다.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행1:8) 그런데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120문도들에게 임한 성령은 생수하고는 전혀 다른 불이 왔습니다. 성경은 불이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왔다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행2:3) 주님의 말씀과 맞습니까? 동떨어진 겁니다.

이걸 기독교가 오늘날까지 모르고 있는 겁니다. 생각해 본 사람도 없습니다. 난들 어떻게 알겠습니까? 주의 종이 될 때 주님이 설명해 주셔서 알게 된 겁니다. 주님이 생수의 은혜를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불이 왔습니다. 약속과 다릅니다.

왜 약속하신 성령을 내려보내지 못했느냐? 성경에 이유가 나옵니다. 아까는 주님이 이 땅에 계실 때 하신 말씀이고, 이번에 제가 읽는 주님의 말씀은 영광의 주님으로 하늘나라에 계실 때 하신 말씀입니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로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을 유업으로 얻으리라.” (계21:6-7)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땅에 계실 때 주님은 “나를 믿는 자에게 생수를 주겠다.” (요7:38)고 약속하셨는데,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불과 같은 성령의 은혜를 받은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이긴자가 나오면 생명수 샘물을 주겠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이긴자가 나와야 내가 주는 생수를 유업으로 받아서 너희들에게 주

게 된다.” 바로 그 말씀입니다.

주님이 하늘에 올라가서 직접 주실 수 있었으면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120문도에게 약속하신 생수의 은혜가 왔어야 합니다. 주님은 생수의 은혜를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나를 믿는 자는 불이 혀같이 갈라지는 은혜를 받는다.”고 약속하신 적이 한마디도 없습니다. 그래서 뜨거운 불을 받은 양떼들에게 다시 하신 말씀이, 값없이 생명수 샘물을 주시겠다는 겁니다.(계21:6)

그런데 조건이 있습니다. 이긴자가 나와야 생수를 그에게 유업으로 맡겨 주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약속한 일을 대신 이긴자가 하게 됩니다. 이처럼 주님의 일을 대신하니까 하나님의 아들과 같이 된다는 겁니다.(계21:7)

대통령이 특사를 미국에 보냅니다. 그럼 미국에서는 대통령이 보낸 특사를 대통령처럼 맞이합니다. 마찬가지로입니다. “내가 생명수 샘물을 A라는 사람에게 맡겼으니 너희들은 이 사람에게 가서 받으라.”고 하신다면, A라는 사람은 주님의 역할을 대신하는 겁니다. A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닐지라도 하나님의 아들이 하고자 하는 일을 대신한다 그 말입니다.

주님이 하실 일을 이긴자가 한다면 이긴자는 누구를 대신하는 겁니까? 주님입니다. 주님을 대신하니까 이긴자에게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칭호를 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냐? 그건 아닙니다. 주님의 역할을 대신한다 그 말입니다.

주님이 하늘에 올라가셔서 120문도에게 생수의 은혜를 주셨으면 얘기는 끝나는데, 생수가 오지 않고 불이 왔습니다. 성령은 성령인데, 생수의 성령이 아니고 불과 같은 성령이 온 겁니다.

생수의 은혜는 주님이 직접 주시는 게 아닙니다. 이긴자를 통해 주시는 겁니다.(계21:7)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아버지로 인하여 사는 것처럼, 내 살과 내 피를 먹는 너희는 나로 인해서 산다.”(요6:57)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그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소용 있습니까? 아무 소용이 없는 겁니다. 주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다고 해서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내 살과 내 피를 먹고 마시라.”고 하셨으면, 그 말씀대로 먹어야 하고 마셔야 합니다. 그래야 영생이 있는 겁니다.

중독된 사람은 해독제를 먹어야 삽니다. 해독제를 눈으로 보기만 해서는 살 수 없습니다. 선약과는 먹으면 죽고, 생명과일은 먹어야 영생합니다. 덮어놓고 되는 게 아닙니다.

주님은 “내가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생명수 샘물을 주리라.”(계21:6)고 말씀하셨습니다. 만약 마가의 다락방에서 120문도가 생명수 샘물의 은혜를 받았다면 “내가 값없이 생명수 샘물을 주리라.”는 말씀이 필요합니까? 필요 없습니다. 이미 받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런 약속이 필요 없는 겁니다. 시행이 안 되고 있으니까 이긴자에게 생명수 샘물을 유업으로 주어 마시게 하겠다는 겁니다.(계21:7) 유업이란 상속시킨다는 뜻입니다. 즉 ‘내가 가진 재산을 그에게 맡겨 주겠다.’ 그 말입니다. 나는 심부름꾼에 불과하지만, 이것이 구원의

요체이기 때문에 하는 소리입니다.

120문도가 받은 은혜는 주님이 약속한 은혜입니까? 아닙니다. 삼척동자라도 이렇게 설명하면 알아들어야 합니다. 2천 년 동안 기독교가 전 세계에 퍼져 나가면서 오늘날까지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었지만, 주님이 약속하신 성령은 그동안 단 한 사람도 못 받았던 겁니다.

여러분은 앞선 감람나무 역사와 이 역사의 귀중성을 아셔야 합니다. 주님이 2천 년 동안 기다린 역사입니다. 120문도가 받은 성령의 은혜는 2천 년 동안 계속 신도들에게 임했습니다. 그건 구약 시대의 성령과 같기 때문에 무수한 사람들이 순교를 당해야 했던 겁니다. 그러나 주님이 대속의 피를 흘리셨기 때문에 그 보혈의 은혜를 받는 사람들은 순교하지 않고도 주님이 대제사장으로 계신 멜기세덱의 반열에 설 수 있는 겁니다. 주님이 길을 열어 놓았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대신 십자가를 지신 다음에도 계속 목 베임을 당해야 한다면, 주님이 뿔 하러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느냐 이 말입니다.

## 2) 유업의 역사를 맡은 종

인간의 육체 속에는 피가 있고, 핏속에는 혼이 담겨 있는 고로, 그 혼이 주의 형상을 입기 위해서는 먼저 피가 맑아져야 합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라야 영생한다.”는 것은, 우리에게 성

령이 임하여 우리의 피를 정화시켜 핏속에 있는 혼이 맑아지는 것을 뜻합니다. 이렇게 변한 새 생명체를 ‘거듭난다’고 말합니다.

이 성령을 부어 주는 것이 안찰입니다. 이 역사를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안찰에 대하여 보여주셨습니다. 저는 앞선 종을 통하여 안찰을 받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안찰을 해 보니까 마치 고무호스에서 물줄기가 나가듯 제 손길을 통해 성령의 은혜가 나가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어떻게 그리스도의 살을 먹고 피를 마시게 되는가에 대해 앞선 역사에서도 대충 들었지만, 앞선 종도 상세한 내용을 알지는 못했습니다. 오늘날 이어지는 역사에서 그 내막을 밝히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핏속에는 조상으로부터 내려오는 갖가지 죄의 형상이 섞여 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의 피가 들어가게 되면 조상으로부터 이어받은 모든 죄의 형상이 파괴되고 새로운 생명체로 바뀌어 그 핏속에 있는 혼이 깨끗해집니다. 참으로 놀라운 변화입니다.

주님은 지상에 오셔서 “내가 하나님과 하나다.”(요10:30)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주님과 인간이 하나가 되게 만들겠다는 겁니다.(요14:20) 이사야는 주님께 대해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할 것임이라.”(사9:6)고 예언했습니다. 그는 일반 사람이 아니다, 그 소리입니다. 기적의 사람이 태어난다는 겁니다.

성령을 받은 사람하고 악령을 받은 사람은 영적으로 볼 때 첫

째, 모습이 다릅니다. 그리고 적응하는 영의 세계가 다릅니다. 악령을 받은 사람은 하늘나라에 가서 살지 못하고, 성령을 받은 사람은 음부에 가서 살지 못합니다. 다시 말해서 성령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이 계신 곳에 가야 살고, 악령 받은 사람은 마귀가 있는 음부로 가야 삽니다. 그래서 신은 아무나 데려가지 않습니다. 조건이 맞지 않기 때문입니다. 데려가려면 자격을 먼저 갖추어야 합니다. 말로 되는 게 아닙니다. 자격이 안 되면 신도 못 데려갑니다. 그래서 자격을 갖추어 곧바로 데려가기 위해 하나님이 순교하게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주님은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태어났습니다. 성령이 마리아에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은 신 이의 능력이 마리아를 덮었던 겁니다.(눅1:35) 이 경우에 하나님이 능력으로 남자의 역할을 하신 겁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수 있는가? 그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담을 잠들게 하고 갈비뼈로 하와를 만드신 하나님이신데, 능력을 행하여 상대방에게 수태하게 하는 건 속된 말로 식은 죽 먹기입니다. 그렇게 해서 태어난 분이 주님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걸 잘 아십니다. 그러니까 신과 사람이 합쳐서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러므로 주님은 신도 되고 사람도 됩니다.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시는가? 인간은 죄 가운데 태어났으므로 하나님의 신이 인간과 교류하려고 해도 잘 안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과 교류를 원활히 하여 하늘나라로 바로 데려



갈 수 있는 자격자를 만들자는 겁니다. 자격을 갖추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데려갈 수가 없습니다. 그럼 이런 사람은 누가 데려가느냐? 마귀가 데려갑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같은 분이 사람의 형상을 입고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럼 사람과 교류하기가 어려워집니까? 쉬워지는 겁니다. 신과 인간은 연결되기 어려워도 사람과 사람은 연결되기 쉬운 겁니다.

하나님과 인간의 중보 역할을 하는 존재가 주님이십니다. 주님이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다리를 놓아주시는 겁니다. 주님은 신도 될 수 있고 인간도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신 쪽에 가서는 신이 되고, 인간 쪽에 가서는 인간이 되면, 인간하고도 교류가 잘되고 신하고도 교류가 잘되니, 신과 인간을 교류시킬 수 있습니다.

통역이 그거 아닙니까? 영어도 할 줄 알고 한국말도 할 줄 알아야 통역이 됩니다. 미국 사람이 영어로 뭐라고 하면 한국 사람에게 한국말로 알려 주고, 한국 사람이 한국말로 뭐라고 하면 미국 사람에게 영어로 알려 줘야 말이 통하는 겁니다. 양쪽 말을 잘해야 합니다. 이때 미국 사람과 한국 사람은 의사소통이 안 되지만 중간에서 통역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의사소통이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은 인간과 교류하시려고 한 여인을 택하여 아들을 사람으로 태어나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은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셨습니다. 그 피는 신도 되고 사람도 되는 분의 핏입니다. 주님은 하나님의 생명체도 가지고 계시지만, 인간의 혈육도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주님은 “나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산다.”고 말씀

했습니다.(요6:57) 육을 입었지만 하나님으로 인해서 사는 존재이므로 “내 살과 내 피를 먹고 마시는 자는 나로 인해서 살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 분이 하나님께 드린 산제사로 말미암아 지상에 보혜사 성령이 임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예정해 놓으셨습니다. 이것은 고도의 전략입니다.

이제 신도 되고 사람도 되었던 주님이 하늘나라에 올라가셨습니다. 그럼 이제 하나님도 되고 사람도 되는 존재가 이 땅에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늘나라에서 사람에게 하시고자 하는 일을 원활히 할 겁니까?

주님은 지상에서 임마누엘이라는 존재로 태어나신 분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하나님과도 통하고 사람과도 통합니다. 그런 분이 이제 지상에 계시지 않습니다. 하늘나라에 가셨습니다. 그럼 하나님과 주님은 통할지라도 사람과 누가 통할 거냐 이겁니다. 지구상에 연결해 줄 주님이 없지 않습니까? 그럼 주님은 아닐지라도 신하고도 교류가 되고 인간하고도 교류할 수 있는 존재가 있어야 합니다. 요한 계시록에 그를 이긴자라고 했습니다. 그가 주님의 일을 대행하는 겁니다.

겉으로 보아서는 다른 사람들과 같은 사람입니다. 그러나 이긴자는 생명수 샘물을 유업으로 얻은 자입니다.(계21:6-7) 생수는 성령을 가리킵니다.(요7:39) 그게 말로 되는 게 아닙니다. 말은 누가 못 합니까? 하늘에서 인정해 줘야 합니다.

제가 안찰을 할 때 제 손이 여러분의 눈에 닿습니다. 손만 닿았

다가 떨어진다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건 저와 여러분만 만난 겁니다. 그런데 제 손이 여러분에게 닿을 때 하나님의 신, 곧 다른 보혜사 성령이 여러분에게 연결됩니다. 그렇다면 저는 육을 가지고 있지만 신과 교류가 안 됩니까? 됩니다. 제가 신과 인간 사이에서 이렇게 연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신(성령)을 사람에게 주는 겁니다. 그리하여 사람을 신에게 갖다 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주의 역사를 맡은 종에게 “이렇게 해 다오. 저렇게 해 다오.” 하고 부탁하시는 겁니다. 직접 하실 수 있으면 “이렇게 해 다오. 저렇게 해 다오.” 하는 말씀이 필요합니까?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이 일반교회의 교역자들에게는 “이렇게 해 다오. 저렇게 해 다오.” 하고 말씀하시지 않는 것은 그들이 중보 역할을 하는 존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이긴자를 통하여 역사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계2, 3장 참조)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브라함아, 너 하란에서 애굽으로 가라.”, “네, 알았습니다.”, “너 백 세에 낳은 아들을 내게 바쳐.”, “네, 알았습니다.” 지시를 하시지 않습니까? 오늘날 우리 역사를 보십시오. 우리가 하고 싶어서 합니까? “내가 지시하는 한적한 곳에 내 성전을 짓고 내게 영광을 돌리도록 해.”, “네, 알았습니다.” 성전 짓고 나니까, “이 성전을 통해 필요한 하늘 군병을 만들어 줘.”, “네, 알았습니다.” 해서 오늘날까지 일하고 있는 겁니다.

“전하여 주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며, 듣지 않고 어찌 믿으리오. 믿지 않고 어찌 구원을 받으리오.”(롬10:14) 사도 바울이 한 말입니다. 바울

이 당시의 섭리를 말한 것입니다. 오늘의 섭리는 그때와 다릅니다. 여러분이 체계를 모르면 착각하는 수가 있기 때문에 주의 종이 하나님의 섭리를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제가 중보의 역할을 하도록 주님으로부터 통고를 받았기 때문에 그걸 전하다 보니까 ‘나’를 드러내는 것같이 들리는 거지, 저는 ‘나’를 드러내고 싶은 사람도 아니고, 또 그런 걸 좋아하지도 않습니다. 제가 얼마나 어깨가 무겁습니까? 제가 말씀 드렸지 않았습니까? 다른 데서도 이루어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거기도 되고, 나도 되면 걱정할 게 뭐 있습니까?

주의 종은 조금만 무슨 일이 있으면 하나님의 역사에 지장이 갈까 봐 전전긍긍하면서 바보가 되고 천치가 되어야 합니다. 저는 이렇게 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분의 뜻을 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똑바로 알고 따르라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을 귀히 여깁니다. 오늘날까지 저와 여러분이 함께 고생했습니다. 그러니 누구도 낙오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전진해야 합니다.

전에도 말했지만 저는 26년 동안 여러분을 이끌어 오면서 한 번도 설교 준비를 하지 않고, 하나님과 주님이 보여주시고 들려주신 것을 그대로 전하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주의 종처럼 편한 목회자가 없습니다. 저는 그거 하나만은 참 팔자가 좋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깊은 섭리의 내용을 가르쳐 주시지 않았으면 나도 죽어라 하고 공부를 해야 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열심히 공부를 하면 뭐 합니까? 영의 세계를 공부해서 어떻게 압니까?

우리 역사는 한마디로 신비합니다. 그리고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지시가 옵니다. 인간의 노력으로 이루어지는 역사가 아니라는 것을 알려 주시기 위해 하늘에서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셨다는 걸 입증하시기 위해서 말입니다. 그러니 저도 자랑할 말이 없습니다. 제가 제 여건을 만들어 가지고 일한다면 어깨에 힘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언제나 마음을 조여야 합니다. 위에서 지시가 내려오면 그대로 따라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잠도 설치고 걱정이 떠나지 않습니다. 그러니 주님 앞에 항상 매달리게 됩니다. 여러분들도 그걸 아시고 겸손한 자세로 항상 주의 역사에 힘을 쏟아 주시기 바랍니다.

## 하나님

께서는 죄에 빠진 인류를 구원하시려는 원대한 계획을 세우시고, 당신의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실 한 민족을 만드시고자 아브라함을 부르셨다. 예수님이 오심으로 이스라엘의 사명은 끝나고, 유대교는 새 언약과 복음을 기반으로 한 기독교로 발전하였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 죄를 소멸시킬 수 있는 생명수 샘물을 이루셨다. 그 생수를 유업으로 받아 역사할 존재로 하나님께서는 이미 두 감람나무를 예정해 놓으셨다. 예수님은 승천하신 뒤 하나님께 책을 받아 보시고 하나님의 계획을 아셨으며, 이를 제자들에게 알리고자 사도 요한을 불러 계시를 주셨다. 그 계시 가운데, 이기는 자가 나오면 생명수 샘물을 유업으로 맡기고 두 감람나무의 사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다.

